

425

序說 金河龍 /

中共의 리더십과 韓國統一 //

金永俊

- (1) 中國共產黨의 리더십成功의 先行條件
- (2) 文化大革命과 黨不在現象
- (3) 九全大會와 黨再建 및 權力構造의 再編成
- (4) 毛澤東後繼者 林彪의 리더십의 限界
- (5) 中共의 基本的인 디렘마
- (6) 世代交替와 毛·林支配體制의 展望
- (7) 結論 (變動의 限界와 類型)

中共의 外交政策과 그것이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 75

韓己植

- (1) 林彪의 論文을 通해서 본 中共의 世界革命戰略

- (2) 中共政權의 基本目標과 政策作成定向
- (3) 中共外交政策의 變遷過程과 그 原因
- (4) 中共의 對美關係
- (5) 中共의 對中-對 北僞關係
- (6) 中共의 對日關係
- (7) 中共對外政策의 展望과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

中共의 世界戰略과 韓國統一 141

金永俊

- (1) 中共의 國家目標과 國家戰略
- (2) 中共의 世界戰略判斷
- (3) 中共의 戰略思想
- (4) 中共의 國家軍事戰略의 構造
- (5) 中共의 核武器를 開發하게 된 動機
- (6) 中共軍의 機能
- (7) 中共의 軍事力量의 概況
- (8) 中共의 在來式 軍事力量
- (9) 中共의 核能力
- (10) 結 論

中共의 經濟發展이 韓國統一에

미칠 影響

201

金潤煥

- (1) 中共經濟의 推移와 現況
- (2) 中共經濟의 問題點과 展望
- (3) 中共의 經濟發展이 韓國統一에
미칠 影響

結 論

韓國統一을 위한 우리의 對備策

227

金河龍

- (1) 中共對 아시아 政策의 方向
- (2) 우리의 對備策

主宰者 金俊燁

序 說

中共對外政策의 傳統的要素

1927年 山西省의 井崗山에서 毛澤東이 소위 「井崗山鬭爭」을 展開한 이래 오늘에 이르는 40餘年間 中國共產黨指導層 사이에 形成된 思考類型은 오늘날 中共의 基本政策路線이 어떠한 要素에 입각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毛澤東은 「맑스·레닌主義」가 中國革命에 適用할 수 있는 「普遍的眞理」이며 中國共產黨이 추구하는 궁극적 目標라는 立場을 떠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맑스·레닌主義」의 正統을 이은 철저한 共產主義者로 自處하였으며, 그것이야말로 中國革命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偉力있는 武器라고 주장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中國共產黨의 基本路線에 있어서 「맑스·레닌主義」는 이처럼 重要한 要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中共의 基本路線에 있어서

~2~
基調를 이루는 다른 要素의 重要性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 아니 사실상 中共의 共產主義는
다른 要素가 作用하는 側面을 把握하지 않고서
는 그 性格이 鮮明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맑스·레닌主義」라는 側面에서만 본 까닭으로
中共의 基本路線에 관해서 여러 가지 誤解를
자아낸 理由는 여기에 있다. 한때 스탈린이
毛澤東을 한낱 農村改良主義者로 誤認한 것은
그 좋은 例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中共의 基本路線은 「맑스·레닌主義」
이외의 어떤 要素를 그 基底로 삼고 있는가
이 問題에 관한 解明은 中共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性格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先行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그것은 中共指導者들이 한 中國人으로서
中國을 보는 立場과 態度이다. 사실 중국은
西歐의 侵犯을 본격적으로 받기 前, 數千年間,
限定된 地域이기는 하였으나 廣大한 아시아地域
內에서, 文化, 經濟, 政治, 軍事등 모든
分野에 걸쳐서 壓倒的인 優越性을 누린 最大強

國이었다. 그들의 文化, 倫理가 바로 東아시아 地域의 文化, 倫理였고 그들의 經濟, 政治體制가 곧 東아시아地域의 典型이었으며, 核心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비단 政治的, 軍事的力量에서 뿐만 아니라 文化, 倫理面에서도 그 隣近地域을 制壓함으로써 손쉽게 그 隣接民族을 屈服시킬 수 있었으며, 그로써 屈邦體制를 確立하여 東아시아 地域 國際秩序의 核心的位置를 누렸다. 이 大帝國이 興亡 盛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位置에 起伏은 있었으나 그것은 한낱 暫定的인 것이 있을 뿐, 數千年間 그들의 優越된 位置에 큰 變動은 없었다. 長久한 時日에 걸쳐서 누려온 이러한 優越性은 中國人들의 內面에 뿌리 깊은 中華思想을 扶植시켰다.

中國人の 自尊과 自負는 불과 數十年 동안 西方 國家나 日本으로 부터 받은 支配와 侮辱으로는 결코 解消될 수 없는 뿌리깊은 傳統的인 것이었다. 더욱이 中國共産黨이 中國本土를 統一하고 西方勢力을 一朝에 逐出하자 그들의 中華의 自負와 自尊은 愛國心과 더불어 불길처럼 再燃하였다.

이러한 時代的인 中華의 思潮로 부터 中共指導者들이 과연 解脫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 그들이야 그것을 先導하였던 것이다. 毛澤東만큼 中國的인 條件을 重要視한 共產主義는 또 없었던 것이다.

中華思想이 中共의 對外政策에 反映된 樣相을 우리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類型化할 수 있다. 1) 그것은 中共이 世界共產革命을 위해서 指導的地位를 차지해야 하고 共產화된 全世界의 中心이 되어야 하며, 될 수 있다는 信念과 使命感을 造成하였던 것이다. 「막스·레닌主義」를 中國革命의 具體的實踐으로 適用하는데 成功하고 소위 「中華人民共和國」를 수립할 수 있었으니, 그들의 方法은 그들과 비슷한 條件을 가진 後進地域에 마땅히 適用하여야 할뿐 아니라, 오히려 先進國家에도 適用될 수 있다고 確信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中國을 占據한지 얼마 안되어서 共產陣營의 指導的地位를 둘러싸고 소련과 競爭을 展開하였을 뿐 아니라 非共產主義國家를 赤化하는데 있어서 소련의 指導보다도 그들의 指導가 더

效果的이라고 주장하게 이르렀다. 2) 그것은 지난날 화려한 中華의 歷史를 가진 傳統的中國의 모든 版圖를 回收해야 하겠다는 國土回復의 使命意識을 造成하였다. 台灣海峽에서의 緊張造成, 中蘇國境紛爭, 中印, 中共·버마國境紛爭 등 연이은 中共邊境地帶에서의 武力衝突, 그리고 과거에 屈邦이었던 地域의 紛爭에 介入하거나(例 韓國戰爭介入) 혹은 後援하고(例 越南戰爭에 있어서 越盟後援),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人民戰爭을 誘發시키는 一聯의 政策의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中華思想도 그 중요한 要因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둘째 要素는 中共의 民族主義이다. 사실 中國의 民族主義는 그들의 中華思想과 밀접한 聯関을 갖고 있는 것이며, 別個의 것으로 區別지을 性質의 것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中國의 民族主義는 中國이 西歐諸國의 侵犯을 받은 후에 싹 텄던 것이며 따라서 時代的으로 中華思想에 비하면 훨씬 最近의 思想潮流일뿐더러 그 本質的인 性格上 中華思想에 포함시킬 수 없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中國共産黨의 本土占據가 결정적 段階에 달하고 있었을 때인, 1949年 7月, 毛澤東은 그의 論文에서 中國共産黨路線이 孫文의 民族主義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明白히 하였던 것이다. (人民民主專政論) 그렇다면 그가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民族主義는 어떠한 條件下에서 生成되었던 것인가 孫文은 그가 「三民主義」를 著述할 당시, 中國現實을 半植民地狀態라고 단정하였었다. 즉 中國은 완전한 植民地가 아닌 狀態에서 이미 主權의 여러가지 屈性を 잃었으며, 植民地가 흔히 누릴 수 있는 最小限度의 利處도 못가진채로 오직 不利한 處만 가졌다는 것이다. 그는 中國이 植民地이면서도 그 보다 더 不利한 狀態에 있다는 것을 憐憫해서 半植民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半植民地國家에서의 反西方感情은 그 어느 곳 보다도 強烈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같이 半植民地狀態下에 있었던 中國과 아랍세계의 民族主義가 그 어느 곳에 비해서도 強烈한 反西方主義를 內容으로 하

는 민족主義가 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는 여기에 있었다. 특히 獨立을 爭取하기까지 後進地域의 민족主義는 의례히 排他的인 反植民主義, 反西方主義이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中國이나 아랍세계에서 만큼 철저한 곳은 없었다. 印度의 민족主義는 이러한 뜻에서 中國이나 아랍세계의 그것과는 꼭 對照的인 것이다.

中共의 指導層이 소련까지도 포괄하는 西歐 더욱 正確히 말해서 白人의 勢力을 아시아에서 全面的으로 除去하기를 決心하고 있는 徵候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中國的條件에서 들어 나온 민족主義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 우리는 「맑스·레닌主義」와 「스탈린主義」의 要素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물론 中共의 對外政策이 본질적으로 反資本主義路線을 堅持하지 않을 수 없는 原因일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특히 레닌의 革命戰略과 「스탈린의 對外戰略」이 中共의 對外政策의 性格에 끼친 影響을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다.

毛澤東의 「持久戰略」, 「遊擊戰術」은 中國의 現

~2~
실제에 대한 그의 判斷에 입각해서 「맑스·레닌主義」, 「스탈린主義」의 戰略을 中國革命의 具體的實踐에 創意的으로 適用한 結果이기 때문이다. 특히 「戰略」적으로는 大膽하게, 「戰術」적으로는 用意周到하게, 라는 「스탈린의 命題」는 毛澤東의 戰略에 큰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中共의 對外政策이 때로는 극히 無謀한듯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用意周到하고 慎重한 모순된 兩面性을 나타내는 것은 레닌·스탈린의 戰略을 結論을 더 發展시킨 形態인 毛澤東의 「持久戰略」, 「遊擊戰術」이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한 基本要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毛의 戰略이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한 傳統으로 化했다는 것은 林彪의 論文 「人民戰爭勝利萬歲」에서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후 그것은 對美, 對蘇 그리고 對越南政策에서 具體적으로 實證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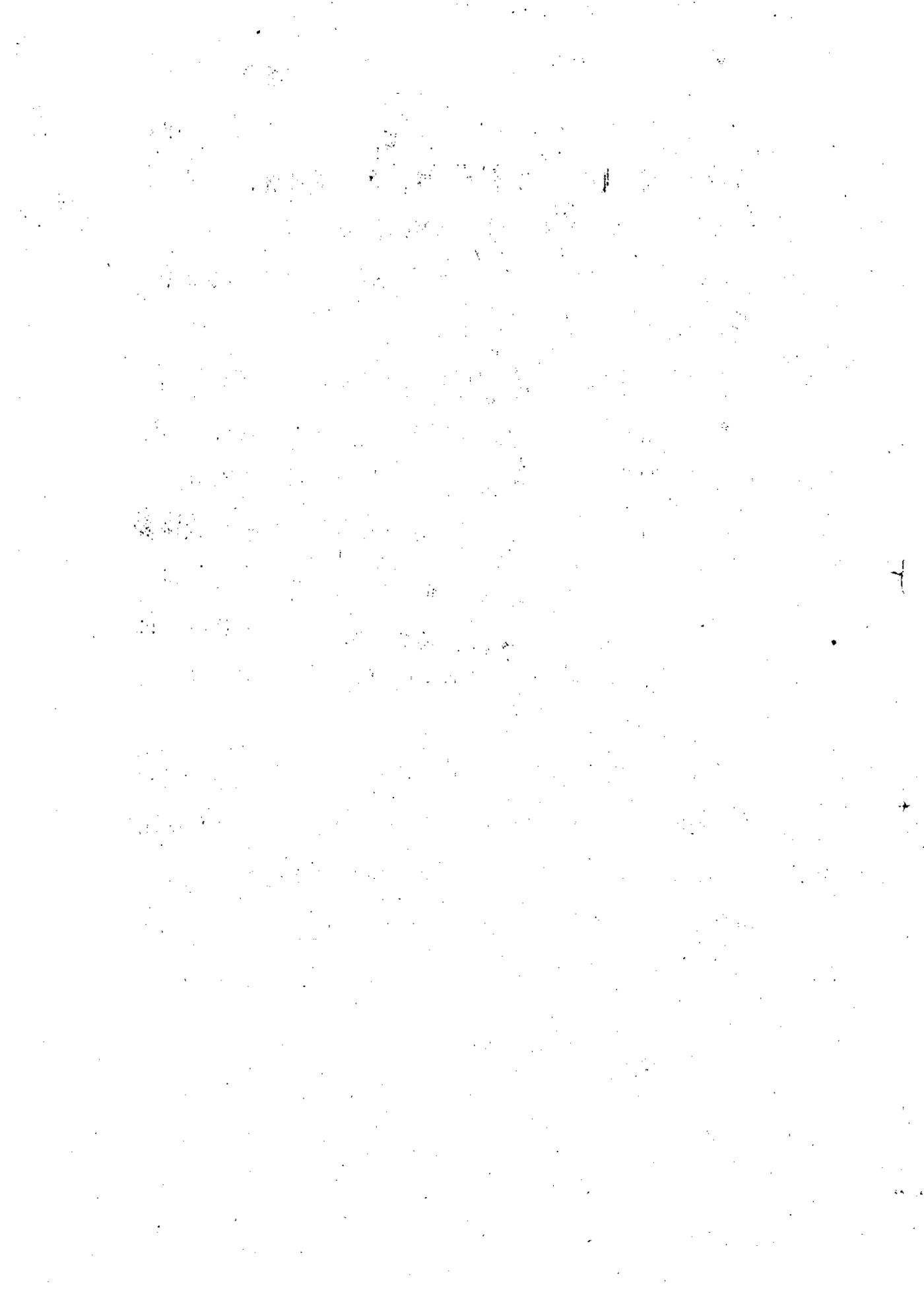
中華思想, 民族主義의 排他的인 反西方主義, 그리고 「맑스·레닌主義」의 反資本主義, 反帝國主義는 한 獨立된 要素로서 각각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好戰的인 要素가 될 수 있지만, 이 세 要素가 서로 化合하여 相乘作用을 하기 때문에 中共은 世界에 있어서 가장 好戰的이고 危險한 存在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毛澤東의 持久戰略은 中共의 對外政策에 대해서 暴力戰略과 平和戰略을 混合한 高度의 伸縮性과 機動性을 賦與하는 要素가 되고 있다.

中共의 對外戰略이 나치스, 팻시스트全體主義國家의 그것에 비해서 複雜한 樣相을 띠고 있으며 그 根本的인 性格을 洞察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가지 要素가 巧妙히 얽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中共의 國內外政策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傳統的인 要素의 올바른 把握이야말로 中共自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先行해야 할 條件이라고 할 것이다.



中共의 리더십과 韓國統一

(1) 中國共產黨의 리더십 성공의 先行條件

中共의 政治的安定與否 問題나 그의 리더십에 關한 問題를 檢討하여 우리와 關聯될 問題를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中共의 리더십이 成功하기 爲하여 不可欠한 先行條件이 무엇이나를 理解해야 한다.

歷史적으로 檢討해 보면 中國 共產黨이 執權하게 된 當時 그의 政治的 將來는 旧政黨, 規模는 尙大하였으나 그 組織力이 貧弱한 政府官僚集團, 많은 軍閥에 依하여 構成되는 軍隊勢力 그리고 教師·學生·文人·著述家를 包含하는 知識階級의 四大勢力에 依하여 左右되었다. (註1)

(註1) Robert A. Scalapino, "Communism in Asia,"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ed., by Robert A. Scalapino, pp. 1~46.
 Kai-yu Hsu: "The Chinese Communist Leadership," *Current History*, September 1969, pp. 129~134.

특히 知識階級은 一般的으로 20世紀의 中國社
會를 形成하는 主要原動力으로 是認되어 왔다.
中國에 있어서 知識階級의 政治的 役割은 重要하
였다. 知識階級은 그들이 教育을 받고 知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國家的 狀況과 그 可能性
을 充分히 自覺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知識
階級에게는 社會的 變革의 通路가 開放되어 있었
기 때문에 必要에 따라 人民의 運命을 變革시키
기 爲해서는 그들 自身の 運命을 再形成해야 했
다. 따라서 知識階級은 中國에 있어서 가장 代
表的인 潛在的인 革命勢力이었다. 知識階級은
1910年代에 對外的으로 처음으로 中國共産黨細
胞을 養成하고 1921년에 上海에서 第一次 中國
共産黨大會를 열었다. 이것이 바로 中國 共産黨
의 創黨이다. 그러나 中國 共産黨은 長期的인
展望에서 맑스·레닌主義의 敎訓에 따라서 知識階
級이 가지고 있는 小市民的인 氣質이 革命의 貫
徹에 妨害가 될 것을 憂慮했다. 왜냐하면 知識
階級은 부르주와지의 過去에 對하여 너무나 鄉愁
的이기 때문에 社會主義에 献身하기 어려움은 勿

論 도 너무나 理論에 執着하게 되는 나머지 社會的 現實에 適合하겠음 革命過程에 適應하는 方法의 摸索이 困難하였으며 特히 革命의 遂行에 要하는 斗争의 無慈悲性에 對하여 지나치게 感傷的이었다.

그 結果 中國共産党은 곧 指導者는 프롤레타리아트 부터 學習해야 한다는 事實을 強調했다. 이것은 知識階級 出身이 아닌 프롤레타리아트勢力을 党에 加入시키기 爲한 試圖였다. 그러나 結果적으로 中國 共産党의 리더십構造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오랫동안 살아 있는 일이 없었으며 效果的인 리더는 亦是 知識階級이었으며 中國과 蘇聯에서의 週期的인 思想教育이 必要하였다. 同時에 이들 리더들은 勞動者·農民과 一定한 期間동안 生活을 같이 하므로써 그들의 부르주와 지적인 性分을 澈코받겠음 하였다.

中國共産党에 對하여 骨幹의 役割을 提供해준 것은 오로지 軍隊였다고 할 수 있다. 蔣介石의 士官學校에서의 士官養成은 中國 共産党의 將軍을 輩出하는데 寄與했다. 그 中에는 오늘날 毛澤東

의 後繼者로 지난 4월에 있는 九全大會에서 새로운 黨規約 속에 明文으로 規定된 林彪가 있다. 이 士官養成이 量的으로 需要를 充足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中國共産黨은 國民黨軍에서 轉向한 部隊과 그 指揮官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 轉向한 指揮官들은 그 大部分이 共産主義에 對하여 半獻身的이었으며 中央의 權威에서 떠나 個人的인 支配權을 確立하던 地方軍閥의 氣質에서 離脱되지 않았다. 따라서 中國 共産黨은 1935~1936年の 長征時에 共産軍에 가장 獻身的인 者만 남기고 나머지의 大多數의 將兵을 排除시켰다. 그리고 아주 少數의 高級 指揮官만이 黨의 權力 構造에 參與하게 하므로서 軍에 對한 黨의 統制를 維持하고 또 가장 忠誠心있는 部隊로 하여금 軍을 監視시키므로서 黨의 統制權을 維持했다.

위에 指摘한 것 외에 中國 共産黨은 또한 大衆의 支持獲得이 必要했다. 大衆의 支持를 자아내기 爲해서는 數百個의 大衆組織과 職能組織에 浸透하며 또 이러한 組織이 없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組織을 만들도록 大衆을 支援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들 組織은 數的으로 相當히 많았으며 이것들에 對한 政治的支持를 얻는 工作은 政治的 忠誠心을 造成하여 維持하는 共產黨細胞를 그들 組織의 內部에 浸透시키므로서 이루어졌다. 人民政治協商會議를 만든 것도 모든 水準의 大衆과 政府機關 사이에 直接的인 政治的 意思疎通의 通路를 가지기 爲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歷史的인 文脈에서 본다면 中國 共產黨의 리더십이 成功하기 爲한 先行的인 不可欠한 條件은 黨, 政府機關, 軍隊, 知識階級, 大衆組織을 하나로 結束시켜서 이들 사이에 有機的인 密接한 聯關性을 維持하는데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國家建設을 爲하여 그때 그때 特定한 歷史的 段階에 突入할 새로운 政策을 決定하기 爲하여서도 이들 諸集團을 잘 調停하여 그들 사이에 勢力均衡을 維持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調停을 해야 할 경우에는 普通 政策路線의 再確認부터 始作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行動으로 轉換시킬 것이냐가 問題되었다. 그리고 이럴때마다 特定한 試行錯誤에 對한 非難과 批判

이 展露되었다. 中共에서는 恒常 知識層을 起點으로 하여 改革運動이 展開되었다. 青年層은 理念에 對한 自己犧牲的 献身에서, 이데올로기運動에서 先鋒的인 役割을 하였다. 1951~1952年의 思想改革運動을 비롯하여 1957年 百家爭鳴·百花齊放運動에 뒤따른 反右派斗争, 1958年後의 經濟的 後退期에 있었던 紅(思想)과 專(技術)의 統合運動 그리고 1960年代初 以來 強化된 反蘇修正主義運動等 모든 運動이 바로 이러한 形態의 運動이었다. (註2)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實質的인 活動分子는 젊은 世代出身이었으며 이들은 中央權力構造에 接近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恒常 存在하는 唯一의 要素는 毛澤東이을 國家의 이미지로 하고 또 그를 모든 國家集團을 結束시키는 求心點으로 삼아 왔다는 事

(註2)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亞細亞研究 Vol. X, No. 3, 1967年 9月, pp. 167~228, 拙稿 中共의 分派斗争과 毛澤東 後繼者에 關한 研究 特許 pp. 173~177 參照

實에 있었다. 그리고 毛澤東을 國家의 이미지로 삼았을 때는 中心的인 役割을 해온 것은 周恩來 首相이었다.

이와같이 中共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再編成의 가장 最近의 形態를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지난 4월에 있는 九全大會를 비롯하여 最近 幾年間의 狀況을 理解하여야 한다.

(2) 「文化大革命」과 党不在現象

中共은 1965年 以來 文化大革命이 展開되어 中國 共產党史上 類例없는 國內 政治的 鎮痛과 權力斗争을 겪었다.

1958年의 大躍進政策에 依한 經濟建設의 失敗와 人民公社運動의 失敗에서 文藝論爭을 起點으로 하는 党内斗争이 漸次的으로 權力斗争의 性格을 前面에 露呈시키고 毛澤東과 林彪를 中心으로 하는 主流派와 劉少奇와 鄧小平을 中心으로 實權派 사이에 權力斗争이 惡化一路로 展開되어 커다란 政治的 激動을 겪었다.

中共은 蘇聯의 立場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므로 劉少奇가 示唆하는 바와 같은 右傾化路線 또는 穩健路線을 取할 수 없었다. 그 代身에 中共은 強硬路線을 繼續 強調해 왔으며 徹底한 改革을 追求해 왔다. 中國 共產黨은 다이나믹하며 잘 統合되고 效果的인 組織이기는 하였으나 그間 너무나 急速히 그 黨員이 充員 擴大되므로서 커다란 副作用을 免치 못하게 되었다. 党의 膨脹過

程에서 思想的으로 共產主義에 對한 半信半疑的인 傾向에서 부터 機會主義에 이르기 까지 커다란 變質을 內包하게 되었다. 더욱 經濟建設을 推進하게 됨에 따라 많은 專門技術職의 黨員에의 吸收가 要請되었으며 이들의 大量加入은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는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運動에 活氣를 부여 넣어주기 爲하여 青年의 吸收運動을 展開하였다. 이들은 安定한 官職에 充員되므로서 政治·經濟·行政·社會等 모든 國家機關에서 占하는 比重이 커짐과 同時에 官僚로서의 惰性이 또한 增大되어 갔다. 이리하여 毛澤東이 紅衛兵을 道具삼아 앞장 세우고 林彪의 指揮下에 있는 軍을 背景으로 하여 黨과 모든 政府機關에 뿌리박고 있는 劉·鄧實權派에 對한 權力鬭爭을 敢行했다.

文化大革命은 1962년의 社會主義 教育運動에의 文藝整風運動을 거쳐 政治鬭爭으로 擴大發展하는데 1966年 8月 1日 建軍記念日과 더불어 開催된 11中全會를 契機로 아래로 부터의 大衆動員의 形式으로 紅衛兵이 前面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11 中全會에서 毛·林派가 劉·鄧派에 對하여 党中央의 權力을 奪取하고 全國으로 紅衛兵·造反派를 先鋒隊로 하여 實權派에 對한 奪取鬭爭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依한 奪取鬭爭이 党組織의 機能을 徹底히 마비시켰음은 勿論 大衆組織은 四分五裂되어 亂鬭劇을 演出케 하였다. 따라서 이들 混亂된 事態의 收拾을 爲하여 그 기능이 마비된 党組織 代身에 唯一의 組織機能을 가지는 解放軍의 前面的인 介入이 不可避하게 되고 紅衛兵의 役割은 後退하고 軍의 役割이 앞장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期待속에 軍마저 武鬭를 일으키므로서 事態는 더욱 混亂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實權派에 對한 奪權鬭爭은 이들에 對한 潛在力까지를 完全히 除去할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一面에서는 混亂된 事態의 收拾과 同時에 實權派와의 臨時的인 妥協의 摸索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毛澤東이 지난 봄 以來로 革命大衆의 大聯合이나 이들과 革命幹部 및 軍幹部 사이의 「三結合」을 強調하여 왔다. 이리하여 文

化大革命의 收拾은 大聯合 (또는 三結合) — 革命
委員會의 設置 — 黨大會의 開催라는 一連의 過
程에 따라 推進하여 왔다. 革命委員會의 設置
(註3) 는 實權派를 破壞한 後 黨不在의 狀態에
서 이것에 事實上으로 代身할 臨時 權力機構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가을 中共은 全國 29
個의 直轄市·省·自治區에 最高臨時權力機關으로
革命委員會를 設置하였다. 元來 革命委員會의 設
置는 革命的左派의 大聯合에 依한 아래로 부터
의로의 體制化를 目標로 하였다. 그러나 結果的
으로 毛·林派가 支配를 執은 全國 29個의 革
命委員會 가운데서 15個로 評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革命委員會의 거의 全部는 그 統制가 末
端機構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革命委員會의 設置는 急速히 展開되었으나 이와
같은 急速한 收拾過程속에서 解放軍의 役割을 顯著

(註3) L. La Dony; "Maó's China: The Decline
of a Dynasty," *Foreign Affairs*, July
1967, pp. 610~620

~22~
하게 強化하고 實務 党官僚가 發言權을 回復하기
始作한 反面에 實權派打倒의 尖兵이었던 紅衛兵과
그 指揮理論家의 役割이 後退하게 되었다.

「三結合」에서는 實際로 軍閥가 支配權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革命委員會의 設置는 다음과 같
은 特徵的인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었다. 첫째로
革命委員會에서 軍關係者가 最高責任者의 地位를
차지하였다. 둘째는 革命委員會가 成立된 후에도
武庫가 根絶되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로 革命
委員會에 內部的인 抗爭이 있었다. 이들 問題點
은 結果的으로 革命委員會가 克服하기 어려운 弱
點이었다. 그 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問題點은
構成에 關한 것이었다. 革命委員會는 三結合의
組織이 될 것을 名分으로 하였다. 그러나 內部
的인 勢力關係에서 보아 軍關係者가 壓倒的인 比
重을 차지하였다. 省委員會의 主任 29名 中에
서 23名이 解放軍의 司令官級이었으며 革命幹部
에서 主任으로 된 것은 不過 6名이며 따라서
革命大衆의 代表는 하나도 包含되지 않았다. 이
것은 大衆과의 密着이라는 基本課題가 解決되지

않았음은 勿論 革命委員會가 위로 부터의 壓力에 依한 軍事組織의 延長으로서의 色彩를 濃厚히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革命委員會는 大衆과 遊離되는 傾向을 克服하지 못한 채 從來의 黨과 國家機關의 各單位가 가지고 있던 黨·政治·經濟·文化의 諸權力을 한 손에 결여진 臨時權力機構로서 設置되었다.

그리고 革命委員會가 臨時權力機構로서 設置되었다는 것은 黨大會가 開催되어 黨이 再建될 때까지의 組織으로서의 存在意義를 가지는 組織이라고 理解되었다. 中共은 革命委員會의 全國的組織이 完了된 후 黨大會를 開催하여 黨의 再建과 再編成을 完了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리고 國家機構의 再編成을 爲하여서는 基層單位를 基盤으로 하여 革命的인 人民代表大會를 全國적으로 擴大시켜서 새로운 革命的인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成立에로 發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成立과 開催는 中共이 마비된 黨機能과 國家機能을 回復시키기 爲하여 不可欠한 先行條件이다. 그러나 中共은 이와같은 두個의

課業中에서 後者인 全國人民代表大會의 開催에 關하여, 지금 現在에 이르기 까지 公式的으로 아무런 言明이 없으며 따라서 그 展望은 아직도 未知數에 屈한다. 이에 反하여 中共은 第一次的으로 大聯合 — 革命委員會의 設置 — 黨大會의 開催 — 黨再建과 再編成의 過程으로 文化大革命의 收拾을 試圖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4월에 開催된 黨大會가 九全大會였다.

(3) 九全大會의 黨再建 및 權力 構造의 再編成

中共은 지난 4월에 있는 11년간의 九全大會의 目的을 그 開催에 앞서 文化大革命의 評價와 푸로레타리아獨裁下의 階級투쟁의 繼續에 있다고 發表했다.

林彪는 이 두個의 目的 가운데서 첫째의 目的에 關하여 政治報告에서 具體적으로 劉少奇가 어떠한 過誤를 犯했다는 事實을 指摘하지 않고 다만 黨과 모든 黨要職에서 追放할 ことを 確認하면서 一般적인 論調로 그를 非難했다. 따라서 劉少奇는 國家主席의 地位에는 그대로 머물르게 되었는데 그의 國家主席의 地位를 剝奪하는 ことを 決定할 수 있는 것은 黨大會가 아니라 人民代表者大會이다. 그리고 둘째로 文化大革命의 將來에 對해서는 林彪는 모든 修正主義가 除去될 때까지 더욱 活潑하여 徹底하게 繼續할 ことを 強調했다. 文化大革命을 通하여 부르조와지의 價値觀이나 修正主義의 價値觀에 對한 微溫적인 態度를 完全한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의 目標과 相衡된 다 하여 徹底
底히 干란했다. 따라서 文化大革命을 繼續하여
徹底히 推進하겠다는 것은 階級斗争을 繼續하겠
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九全大會의 實質的인 唯一의 目的은 党
의 再建과 權力構造의 再編成에 있었다. 文化大
革命은 生産關係 特히 所有關係의 變革에 重點을
둔 것이 아니라 上部構造의 革命에 重點을 두었
다. 그리고 九全大會는 이 上部構造中에서도 그
核心部를 革命하기 為한 것이었다. 文化大革命
全體에서 보면 九全大會는 그 中間的 決算을 為
한 大會로서의 意義를 지니지만 그러나 基本的으
로는 文化大革命에서 解体된 党을 再建하며 權力
을 確立하여 定着化시키기 為한 것이었다. 党不
在의 混亂된 狀態를 克服하기 為한 試圖를 의미
한다. 改正된 黨規約에서 林彪를 毛澤東의 後繼
者로 指名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昨年 10月 党内외의 모든 公職에서 追放된
毛澤東의 라이벌인 劉少奇 前黨副主席 兼 國家主
席의 脫落은 當然한 일이라 하더라도 鄧小平 前

黨總書記를 비롯하여 中國 革命史에 크게 寄與하고 執權後 黨과 國家가 다 같이 支柱로 삼아오던 中央委員의 四分之三이 失脚했다. 人事面에서 보아 이와 같은 黨幹部의 新陳代謝는 予想을 뒤집을 程度로 革命的이었다는 可象을 주는 것은 그만큼 實權派에 對한 毛·林主流派의 權力투쟁이 熾烈했음을 示唆하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黨體制의 誕生이 陣痛을 거듭했다는 證據이다.

大會가 閉幕된 후 發表된 中國共產黨 第九回 全國代表大會의 人事措置(註4)를 보면 中央委員會의 委員은 170名(八全大會時는 97名), 同 候補委員은 109名(八全大會時는 193名)으로 되어 있다. 지난 八全大會時의 193名の 中央委員 및 同候補委員 가운데서 死亡者를 24名으로 推算하여 現存者를 169名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現存者 가운데서 이번 九全大會에서 다시 中央委

(註4) 鹿島研究所 國際時評 1969年 7月, pp. 53~

63, 毛澤東을 둘러싼 사람들. 國防, 1969年 6月,

pp. 42~56, 中共大陸의 新指導者들.

員會의 正委員으로 認定된 것은 不過 53名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의 116名은 모습을 감추었으며 그 중에서 110名은 確實히 肅清된 것으로 보는 反面에 나머지 6名의 身上은 未詳이다.

九全大會에서 選出된 中央委員會委員의 三分之一은 單幹部이다. 나머지는 紅衛兵을 包含하는 大衆組織의 幹部로서 充員되었다. 이리하여 全般的으로 본다면 中國 共產黨 中央委員會의 再組織은 改正된 黨規約에 따라 旧黨幹部·軍部·大衆組織의 三者 사이에 多少間 均等하게 按配된 것으로 보아진다. 八全大會時의 中央委員中 53名이 이번 九全大會에서도 中央委員에 그대로 머물르게 되어 이들은 數적으로 보면 全中央委員의 三分之一에도 未達하는 弱勢이지만 이들을 背景이나 經歷에서 보면 이들이 적지 않은 比重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一面에서 본다면 黨의 참신한 再組織은 그들의 表面上의 主張과는 距離가 있게 部分的으로 밖에 實行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中央委員會에서 數적으로 近三分之一線을 차지하는 大衆組織의 幹

部는 그 大部分이 候補委員이며 正委員은 아니다. 紅衛兵의 指導者도 많이 包含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内部的인 勢力關係에서 본다면 黨内の 新·舊幹部層의 權力斗争의 素地가 完全히 排除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權力斗争의 素地는 다음과 같은 두箇의 事實에서도 予測할 수 있다. 卽 첫째로 279名의 中央委員과 候補委員 가운데서 約 112名은 軍幹部이다. 따라서 이것은 軍의 發言權의 增大를 意味하며 非軍部出身의 幹部와의 抗争의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둘째로 279名의 中央委員과 候補委員 가운데서 170名은 經歷上 地方의 黨幹部 出身이며 이들은 黨中央의 權力統制에 對하여 抵抗할 要素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中共은 이와같은 黨幹部의 再編成을 爲하여 予定計劃 보다도 九全大會를 一週日 더 繼續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九全大會에서의 中央委員會의 再編成과 그 内部的인 勢力關係를 檢討했다.

다음에 指摘해야 할 것은 黨書記局과 總書記職의 撤廢에 關한 것이다. 中共은 九全大會에서

黨書記局과 總書記職을 撤廢하여 共產黨의 權力의 中核構造를 政治局과 政治局常任委員會로 縮少集約 시켰다. 이번 九全大會가 開催될 때 까지 政治局常任委員會는 7名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即 毛澤東 · 劉少奇 · 周恩來 · 陳毅 · 鄧小平 · 林彪의 7名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九全大會에서 政治局常任委員을 毛澤東 · 林彪 · 陳伯達 · 周恩來 · 康生の 5名으로 縮少시켰다. 同時에 林彪가 毛澤東의 後繼者로서 改正된 黨規約속에 指名되고 同大會에서 確認되었다. 劉少奇와 鄧小平의 除去는 미리 予想하는 바였다. 그리고 林彪는 毛澤東의 後繼者로서 그의 다음가는 第二人者이지만 나머지 3名의 序列은 公表하지 않았다. 即 中共當局은 毛澤東 · 林彪 다음에 陳伯達 · 周恩來 · 康生の 順序로 発表하면서 이것은 序列이 아니라 中國式 慣例에 依한 筆馬順이라고 公表했다. 이러한 뜻에서 보더라도 陳伯達 · 周恩來 · 康生の 役割은 그리 큰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리하여 權力의 核이 이번에는 從來의 7名

制로 부터 5名制로 더욱 縮少 集中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은 陳伯達의 새로운 登場이다. 그는 과거에 中央委員會에서 大体로 序列上 第七位를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毛澤東에 對한 代弁者 또는 그의 思想의 理論的 解釋能力때문에 起用되었다. 毛澤東이 그를 劉少奇나 鄧小平의 思想的論爭을 展開하기 위한 代弁者로 利用할 것이다. 이리하여 毛澤東이 첫째로 林彪를 利用하여 中國共產黨의 傳統인 軍에 對한 黨의 統制 또는 軍(軍事)에 대한 黨(政治)의 優位性의 原則을 固守하고자 하며 둘째로 康生을 通하여 事實上으로 黨의 規律과 團結을 爲하여 과거의 黨書記局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고자 하며 또 셋째로 周恩來를 通하여 그가 過去에 遂行하여 顯著한 業績을 남긴 知識階級과 大衆組織을 統制하고자 한다. (註5) 다시 말해서 黨 · 軍 · 大衆組織의 三結合이나 大聯合의 擴大 發展을 이들 3名을 通하여 이룩하고자 試圖한다.

(註5) 上掲 Current History.

마지막으로 言及해야 할 것은 政治局의 構成에
관한 것이다. 이번 九全大會에서 政治局委員은
2委員, 21名과 候補委員 4名으로 都合 25名
으로 構成되게 되었다. 過去 24名에 比하면 數
的으로는 大差가 없다. 25名 中에서 9名은
軍幹部인데 그 中에서 6名은 林彪와 個人的으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者들이다. 8名은
文化大革命의 過程에서 起用된 者들인데 그 中에
서 5名은 毛澤東의 妻인 江青과의 親分關係에서
認定받은 者들이다. 그리고 7名은 周恩來에 對
한 支持者로 알려져 있다. 이리하여 政治局의
構成도 어느 面에서 본다면 軍部(林彪) · 大衆
組織(周恩來) · 革命組織(康生)의 三者間에 어
느 程度로 均衡을 維持할 것을 試圖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三者間의 均衡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政治的 混亂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現在에는 毛 · 林關係가 密着되어
있으나 万一에 兩者 사이에 對立투쟁이 일어난다
고 假定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均衡子의 役割을
할 수 있는 것은 周恩來의 立場이다. 또 이러

~33~

는 限에 있어 周恩來는 黨의 古參幹部로 부러
新世代의 幹部에 이르기 까지 모든 分派勢力에
對한 潛在的인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現在로서는 不遠을
將來에 毛澤東과 林彪가 서로 對立하며 分裂할
可能性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劉少奇
와는 달리 林彪는 毛澤東의 領導體制나 또는 黨
의 現路線에 對한 威脅的인 存在는 아니며 지금
現在로서 그의 真正한 能力을 評價하기 어렵다.

(4) 毛澤東의 後繼者 林彪의 리더십의 限界

지난 9全大會는 1965年 以來 文化大革命을 展開하여 實權派에 對한 奪取斗争過程에서 事實上으로 再形成되어 나온 党中央의 權力構造를 公式化하였다. 그間 實權派에 對한 奪權斗争은 다른 方面에 있어서는 毛·林을 中心으로 하는 主流派內에 主導權의 爭奪을 隨伴했다. 다시 말해서 林彪를 中心으로 하는 解放軍派와 周恩來를 中心으로 하는 官僚派 그리고 陳伯達과 江青을 中心으로 하는 毛澤東 側近派의 三派間에 主導權 爭奪戰이 隨伴되어 왔다. 따라서 九全大會는 이들 三派間에 어느 程度까지 勢力均衡을 維持하고자 努力하면서 그들間에 展開된 힘의 關係를 既定事實로 公式化하는데 黨權力構造의 再編成의 核心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同時에 革命委員會 設置의 基盤으로 삼았던 三結合 다시 말해서 黨幹部·軍幹部·大衆組織의 幹部 사이에 힘의 均衡을 維持하고자 하던 그들의 意

圖의 表現의 延長이다. 그러나 九全大會에서 그들 三派間의 勢力均衡의 維持를 基礎로 하여 새로운 黨權力構造가 公式化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毛·林體制의 成立을 意味할 수 있어도 派系 確立을 意味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제 各派閥間의 妥協의 產物로서 成立된 毛·林體制가 앞으로 確立되고 安定되기 爲하여서는 相當한 時間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毛·林體制가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또는 그 安定化를 爲하여 얼마만한 時間이 必要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아무도 速斷할 수 있는 者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毛·林體制가 當面한 問題點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指摘할 수 있다. 卽

① 毛澤東의 後繼者로서의 林彪의 地位의 安定性 興否에 關한 基本的인 問題가 있다. 改正된 黨規約에서 林彪가 後繼者로 指名 明記되고 이것이 九全大會에서 確認되었다. 毛澤東의 權威는 그가 抗日戰爭과 內戰을 克服하고 近代의 國民國家를 建設하고 近代 社會主義的인 國民的 平

이드를 滿足시켜 주었다는데 그 根源이 있다.
그러나 毛澤東이와는 달리 이와같은 權威의 根源
을 林彪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現在 林
彪의 存在나 權威는 第一次的으로 毛澤東의 그것
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毛澤東의 生存如何가
林彪의 存在價値를 左右하고 있다. 毛澤東에
對한 林彪의 政治的 忠誠心에 關하여서는 論할
必要조차 없으나 劉少奇에 對하여서는 勿論 國家
機關의 幹部를 支配해온 周恩來나 그리고 또 毛
澤東의 側近者로 되어 있는 陳伯達에 比하여 領
導者로서 組織的 指導能力이나 權謀術數에서 뛰어
난 能力의 所有者로서도 認定되고 있지 않다.
毛澤東 生存中 黨規約속에 明記되어 承認을 받아
둔다는 異例的인 節次를 取하지 않을 수 없었던
根本原因이 바로 林彪의 이와같은 能力의 欠如에
있었을 것이다. 獨裁者의 生存中에 指名된 後繼
者가 그 獨裁者의 死後에도 반드시 權力을 繼承
한다는 保障은 있을 수 없다. 蘇聯에서 스탈린
死後 表面上 後繼者로 알려졌던 말렌코프가 黨의
序列構造에서 自己보다도 훨씬 下位에 있던 흐루

시쵸프에게 그 地位를 물러주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林彪는 解放軍 全体에 對한 忠誠心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林彪의 支配權이 가장 保障되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指揮해 왔던 關係로 個人的 忠誠心을 紐帶로 할 수 있는 第四軍이며 나머지의 三個軍에 對해서는 같은 次元에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300萬의 軍이 林彪를 求心索으로 하여 完全히 一体化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地方에 定着하여 地方軍閥의 色彩마저 띄우게 된 軍은 人脈上의 罅隙이나 利害關係의 葛藤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그 不安定이 언제 表面化 될런지도 모른다. 九全大會에서 改編된 黨中央委員會나 그 政治局의 構造는 軍을 中核으로 하는 黨幹部 · 軍幹部 · 大衆組織의 幹部의 三結合에 依한 妥協主義의 產物이었다. 따라서 林彪의 支配體制는 이들 三派間의 勢力均衡의 維持를 떠나서는 存続할 수 없다. 따라서 三結合의 中核이 되어있는 軍을 支配하지 못하는 限 林彪가 이들 三派間의 勢力均

衡을 維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現在 이들 三派間에 어느 程度로 겨우 勢力均衡이 維持되어 있다고 할다면 그것은 林彪의 領導力에 依靠 것이 아니라 毛澤東 個人支配體制의 權威의 所産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毛澤東의 死亡問題는 黨權力構造에서 均衡을 破壞하고 根本적인 動搖와 變動을 이룰 수 있는 唯一의 要素라고 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③ 九全大會는 黨中央의 權力構造를 改編한데 不過하며 地方黨의 再建은 아직 完了되어 있지 않다. 黨再建은 中央을 整理한데 不過하며 地方黨의 再建인 下部組織의 整備는 今後의 課題로 되어 있는데 이 課業의 遂行은 地方革命委員會가 다급도록 期待되고 있다. 그리고 一部 地方에서 는 共產黨의 새로운 中核적인 集團이 地方黨의 再建을 爲하여 어느 程度의 進展을 본 곳도 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보아 地方黨의 再建은 實現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京과 地方의 中間에 있는 中間級 黨組織에 關하여서도 거의 具體적인 言及이 없다. 따라서 中央·中間

級· 地方의 사이에 겹이 크며 九全大會에서의 党再建은 中央中心의 半身不隨的인 權力構造의 再編成이었다.

④ 革命委員會의 存續與否나 機能에 關한 問題가 있다. 元來 革命委員會는 軍幹部의 指導權下에 위로 부터의 「革命的 三結合」 다시 말해서 革命幹部· 軍幹部· 大衆組織의 幹部의 三者의 結合에 依하여 革命派의 唯一의 權力機構로서 設置되었기 때문에 党務· 政務統合의 一元的 指導機關이었다. 그러나 党이 再建된 오늘 날 革命委員會의 將來에 關하여는 具體的인 言及이 없다. 따라서 革命委員會가 그 役割을 党再建의 產婆役을 하는데 끝이고 党이 再建되면 그 속에 吸收되는지의 與否는 現在로서는 豫測하기 困難하다.

⑤ 党決定의 執行中樞인 國家行政機關이 再編成되지 않고 있다. 中央黨의 再建은 九全大會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國家行政機關의 再編成을 爲하여 必要한 全國人民代表大會는 아직도 開催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 開催에 關하여 具體的인 言及이 없다. 이리하여 党· 革命委員會· 國家行

政機關의 三者間의 有機的인 聯関性이 明確히 들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黨務와 政務의 運營이 正常化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黨構造에 있어 中央과 地方이 直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幹部와 大衆이 密着되지 않고 遊離되고 있음을 立証한다.

⑥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軍에 對한 黨의 優位體制를 다시금 만들어 내야 한다. 軍에 對한 黨의 優位原則은 中國 共產黨의 가장 基本的이며 特徵的인 傳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傳統的인 原則의 固守를 爲하여서는 文化大革命에서 主役을 다하던 解放軍의 役割을 後面에 돌리고 그 代身 黨의 支配的인 役割을 優先시켜야 한다. 中共은 軍内部에 政治部· 政治將校制度를 設置하여 軍에 對한 黨의 統制를 實施했다. 이것은 軍指揮系統과는 別途로 黨에서 直接 軍의 末端에 이르기까지 監督하는 制度였다. 그러나 文化大革命의 混亂過程에서 軍文化大革命小組가 組織되는 바꿈에 이 制度는 事實上 그 機能이 미비된 然後 아직도 再建되지 않고 있다. 現在

林彪 以下 毛澤東에게 忠實한 者를 要職에 補한
다는 人事措置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
서 軍(軍事)에 對한 党(政治)의 基盤을 提供
하고 政治優位의 傳統的인 原則을 固守하기 爲하
여서는 便宜的인 人事措置를 止揚하고 軍에 對한
党統制의 基本體制를 다시 確立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위에 指摘한 몇個의 問題點은 毛·林支配體制
가 그 機能의 正常化를 爲하여 克服해야 하는
先行課題이다. 毛澤東이 새로운 權力構造를 바탕
으로 하여 첫째로 林彪를 通하여 解放軍을 統制
하며 둘째로 康生을 通하여 党規律과 團結을
圖謀하며 그리고 셋째로 周恩來를 通하여 知識
階級과 大衆組織을 統制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統制는 基本組織의 機能이 正常化되지
않고서는 大衆과 遊離되고 만다. 이러한 까닭에
毛·林體制는 本格的인 建設型의 體制로 確立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繼續하여 軍을
背景으로 支配體制의 確立과 維持에 努力하지 않
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設使 이와 같은 支配體

~42~

제가 確立된다고 하더라도 毛澤東과 林彪가 今後 어떠한 方法으로 山積한 對內外的인 課題解決을 爲하여 具體的으로 革命과 建設을 推進할 것인지는 明確하지 않다.

이것은 不遠한 將來에 安定의 回復을 期待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中共의 이와같은 政治的 流動性이 決定的 腐敗를 가져올 것이라고 速斷하는 것도 또한 잘 못이다.

(5) 中共의 基本的인 디렘마

앞에서 指摘한 것은 毛·林支配體制가 아직도 未確立인 데서 오는 體制上의 問題點과 이에 關聯된 林彪의 領導力의 問題性에 關한 것이다.

그러나 說使 이들 體制上의 未備點이 補完되고 또 毛澤東 死後에 林彪가 黨規約속의 明記된 대로 그의 後繼者가 되었다 하더라도 克服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中共固有의 基本的인 問題點이 있다.

이들 問題點은 누가 執權하더라도 當面하는 普遍的인 디렘마이다.

中共은 歷史적으로 重大한 變革期에 突入하고 있다. 毛澤東一人支配體制가 終末에 達해서고 後繼者斗争이 文化大革命으로 露骨化되었다. 古參革命幹部들은 老令 때문에 實質的인 政治舞台에서 사라져야 할 時期가 그리 멀지 않다. 이들은 멀지않아 所謂「革命의 後繼者들」에게 그의 役割을 代行시켜야 한다. 이들 문제 가운데서 가장 重要한 것은 中共이 革命過程에서 基本的으로 不確실한 段階에 突入했다는 데 있다. 勿論 相當한

~44~
実績을 이미 내놓았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基本目標에 到達하기에는 아직도 遠遠하며 많은 未解決의 問題와 더럼마에 逢着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데올로기 · 政治 · 經濟 · 軍事等 모든 重要한 分野에 있어서 深刻한 意見의 對立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中共은 裁權以來 過去 그 어느때 보담도 리더십과 政策에 있어서 커다란 激動期를 맞이하고 있다. 中共 自体는 勿論 外部世界에 있어서도 이러한 中共의 激動性이 結果的으로 무엇에 歸着할 것이냐를 正確하게 豫測할 수 없다. 그러나 轉換期를 맞이한 中共의 將次的인 發展이 中共에 對해서 뿐만 아니라 온 世界에 重大한 意義를 주게 되기 때문에 中共이 當面한 諸問題를 分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文化大革命으로 象徵化되어 있는 中共의 混亂은 今日 中共이 겪고있는 社會的 變動을 端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中共의 政治的發展의 歸趨도 革命과 近代化 過程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效果的인 政治的 統制能力과 當面問題

를 成功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效率性을 어느
程度 發揮할 수 있는나에 달려있다. 革命以前에
비하여 相當한 実績을 쌓아 올렸고해도 革命 그
自体가 지니는 內的인 메카니즘 때문에 現狀維持
가 不可能하다. 社會的 經濟的 그리고 政治的
近代化過程에서 發散된 變動의 原動力은 大衆의
期待水準이 向上됨과 더불어 더욱 革命을 새로운
段階에 밀고 나가게 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서 実績의 基準은 社會 그 自体가 指向하는 目
標에의 接近을 爲하여 恒常 發展的으로 上昇하며
變動한다. 그러나 實은 이것과는 正反對로 革命
初期와 같은 發展의 速度를 그대로 維持하기 어
려우며 時間이 흐름에 따라 鈍化되기 쉽다. 뿐
만 아니라 初期에 成功的으로 抑壓할 수 있었던 舊
社會의 낡은 價値觀, 思考方式 그리고 行動形態
가 다시금 되살아나서 革命의 推進에 挑戰하게
된다. 그러나 革命指導者는 老令으로 되어감에
따라 激變하는 社會的 狀況에 對한 適應力이 弱
化된다. 이들은 새로운 問題를 解決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그 問題解決에 있어서 낡은 方法을 適

用하기가 일수이며 大衆的 革命運命의 基層指導者
였던 時代와는 달리 하나의 支配集團의 立場에서
超然하여 社會의 現實問題에서 멀어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革命의 古參
幹部와는 判異한 價値觀과 目標를 가지고 새로운
集團과 指導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모든 要因
때문에 政治的 變動이 不可避하게 된다. 따라서
要는 變動이 일어날 것이냐에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範圍와 性格의 變動이 일어날 것
이냐에 問題가 있다. (註6)

毛澤東이 執權과 더불어 政治權力을 獨占하고
中國歷史上 類例없이 末端에 이르기까지 中央의
權力의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全体主義的인 統
治組織을 效果的으로 活用하여 中國社會를 基本的
으로 變革시켰다. 그는 經濟를 社會主義化하고
集團化하여 産業化를 推進했다. 近代의 軍의 建
設을 指向하고 對外的으로 影響力을 미치고자 試

(註6) A. Doak Barnett, *China after Mao*,

圖했다.

要컨대 毛澤東 執權以後 初期의 10年間に 있어서 求心力 없는 社會를 다시 統合하고 經濟成長을 促進하고 또 社會構造를 革命化했다. 그리고 近代的 産業國家의 基礎를 마련하고 힘의 眞空을 메울 수 있는 軍事力을 育成하고 또 國際社會에서 強大國으로 登場하고자 試圖한다.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지난날의 実績은 그들이 오늘날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을 解決하며 將次의 政治的 發展의 歸趨를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그러한 意義를 가지고 있지 않다. 中共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課題는 經濟發展을 継続的으로 어떻게 促進할 것인가에 關聯되어 있다.

1959년에 始作되는 人民公社運動 · 大躍進 · 三面紅旗運動의 失敗에 따르는 經濟的混亂은 國家發展에 關한 接近方法이나 戰略問題를 둘러싸고 意見의 對立을 激化시켜 왔다. 이러한 동안에 毛澤東支配體制에 不安이 造成되고 革命精神이 褪色될 可能性이 나타나 이데올로기와 政治分野에서 다시금 革命精神을 鼓吹시키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2年 9月 10日 中全會에서 「文化大革命·階級斗争에 관한 毛澤東指示」를 채택하고 漸次的으로 政治的으로 急進化하기 始作했다. 中共의 指導層은 毛澤東과 그의 著述을 禮讚하며 村落水準에서 階級斗争을 促進하며 知識層을 攻撃하며 軍에서 階級制를 撤廢시켰다. 一般的으로 그의 努力은 부루조와지와 修正主義的 影響에 對한 斗争과 革命精神의 鼓吹 그리고 継続的인 緊張의 造成에 集中되었다. 文化大革命과 紅衛兵運動은 中國社會를 毛澤東化·革命化하기 爲한 마지막 努力의 表現이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註7)

中共이 當面한 基本的인 디렘마인 經濟問題에 關聯된 첫째의 問題는 紅(思想)과 專(技術)의 問題이다. 이것은 世代交替와 새로운 革命의 後繼者養成問題와 關聯되고 있다. (註8)

(註7) Lucian W. Pye; "Coming Dilemmas for China's Leaders," *Foreign Affairs*, April 1966, pp. 387~402.

(註8) A. Doak Barnett, *op cit.*, pp. 23~26.

中共은 이데올로기의 動機에 透徹하며 革命課業의 遂行에 獻身的 (紅) 입과 同時에 社會主義的 近代化에 要하는 여러가지 課業을 遂行할 수 있는 優越한 專門技術(專)을 兼備한 새로운 世代의 養成을 追求하여 왔다. 毛澤東과 그 指導者들은 紅과 專의 重要性을 認定하면서도 特히 紅을 強調하며 이 兩者中에서 扶一할 경우에는 紅아닌 專보다도 專아닌 紅을 扶할 것이다. 그들은 專門化와 技術에의 一辺倒가 革命의 遂行에 不可欠한 이데올로기의 熱狂을 褪色시킬 것을 憂慮하고 있다.

毛·林主流派는 革命의 初期에 있어서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政治的 動員의 效率性에 至大한 信念을 두고 있다. 이에 反하여 劉·鄧實權派는 問題解決에 對한 이데올로기의인 接近이나 獨斷論的인 接近보다도 實用主義的 接近의 效率性을 主張한다. 前者는 紅派이며 後者는 專派라고 할 수 있다. 專派는 經濟官僚나 技術官僚 그리고 모든 種類의 專門家에 있어서 支配的인 傾向으로 나타났다. 紅派는 革命精神의 持統을 總하여 高

度의 이데올로기의 熱狂과 緊張狀態의 維持를 強調하며 浸蝕에 依한 革命의 弱화를 憂慮한다. 紅派도 現段階에 있어서 近代化와 經濟發展의 問題는 革命의 初期段階의 그것과는 다르며 效果的인 管理와 科學技術能力 그리고 經濟的 動機가 近代化의 成功을 爲하여 不可欠하며 따라서 組織的 動員과 이데올로기의 教化만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을 認한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들 毛澤東一派는 政治經濟의 急進化를 主張하여 왔다. 이에 反하여 中共에서 主導的인 行政官僚와 技術官僚를 包含하는 專派는 經濟政策의 成功을 爲하여서는 大衆에 對하여 最少限度의 經濟的 動機의 考慮가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紅과 專의 對立은 軍部內에 있어서 國防思想이나 戰略問題를 中心으로 毛澤東과 林彪의 人民戰爭論派(紅派)와 羅瑞卿·彭德懷의 唯武器近代化論派(專派)의 對立으로 展開되어 왔다.

全 中國社會를 通하여 紅과 專의 兩極的인 對立은 將次에도 繼續하여 增大될 것이며 그 早速한 解決은 容易하게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紅과 專의 對立은 党幹部와 國家行政機關의 幹部
 다시 말해서 職業的인 軍事指導者, 知識階級, 그
 리고 經濟官僚과 技術官僚 사이에 兩極的인 對立
 을 일으켜 왔다. 毛澤東이 理想化한 革命的인 人
 間像은 党規律에 無條件으로 服從的이며 革命目標
 에 獻身的이며 私利를 不顧하고 自己犧牲的인 人
 間이다. 그러나 近代化의 過程은 이것과는 反對
 로 이데올로기的인 熱狂보담도 專門的인 技術能力
 을 尊重하는 專門家의 養成을 不可欠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党機關 自体内에서도 漸次的으로
 技能的인 專門化나 分化가 促進되어 나왔다. 이
 러한 一連의 傾向은 党幹部의 政策選擇과 展望에
 對하여 그 具體的인 時期는 언제이든지 間에 影
 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確實하
 다.

둘째의 問題點은 党 및 政府機關에 있어서의
 官僚化氣風의 增大에 關한 것이다. (註9) 모든
 努力에도 不拘하고 낡은 官僚主義的인 行動形態가

(註9) Ibid., pp. 27~30.

蘇生하여 黨 및 政府의 幹部는 漸次的으로 大衆에서 遊離된 엘리트로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엘리트는 高度로 階層化됨에 따라 階級意識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에 反하여 中共의 指導者들은 現實的으로 大衆路線의 政治를 強調하여 推進하여 왔다. 이와같은 二律背反에서 中共政權은 漸次的으로 그 所期의 目標을 達成하기 어렵게 되었다. 元來 毛澤東의 大衆路線은 1940年代의 그의 勞·農·兵 路線의 政策을 再確認한 것인데 이것은 부루조와지의 價値觀의 蘇生에 對한 不信을 反映하는 것이다. 지난 九全大會에서 地方幹部의 重要性을 是認하고 中央委員會에서 五分之三의 議席 그리고 同政治局에서 近 40%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九全大會에서의 決定은 黨과 政府의 統制에 大衆이 參與해야 한다는 要請을 反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努力이 官僚化氣風을 除去하고 幹部와 大衆의 遊離를 克服하는데 具體的으로 어느 程度로 寄與할 것인지는 지금 現在로서는 알 길이 없다.

세째로, 知識階級에 關한 問題가 있다. (註 10).
中共이 安定된 基盤위에서 調和的인 協調가 可能
하겠음 知識階級을 하나의 集團으로 再形成하는
努力에서 失敗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中
共은 1950年代 以來로 繼續的으로 知識階級の
思想改革을 爲하여 整風運動을 展開하여 왔다.
그 結果 적지않은 數의 知識階級은 黨에 吸收되
어 直接的인 黨規律에 屈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大多數는 黨統制에 對한 全的인 服從이나
黨이 規定하는 獨斷論을 不可侵的인 것으로 받아
들일 것을 拒否하여 最少限度의 知的인 獨自性を
維持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知識階級은
하나의 集團으로서 紅을 專보다 더 重要視하는
毛路線의 努力에 抵抗하고 있다. 文化大革命을
展開하여 知識階級에 對한 主要思想斗争으로서 反
修正主義斗争을 展開하여 知識階級을 다시금 強力
한 政治的統制속에 밀어넣고자 하였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이들은 如前시 革命化되지 않았다.

(註 10)

Ibid., pp. 30~34.

~54~
과라서 文化大革命은 知識階級의 政治不問의 脫이
데올로기적인 傾向이나 또는 政治의 世界로 부리
의 自己疎外 傾向을 克服하지 못한채 收拾段階로
들어 갔다.

네째로 이와 關聯하여 새로운 世代를 革命後繼
者로 養成하는데 關한 問題가 있다. (註11) 1949
年 政權樹立과 더불어 要職을 차지하여 온 古參
革命幹部는 그후 20年이 지난 오늘 날 이미
老化現象을 나타내어 멀지않은 將來에 새로운 革
命의 後繼者에게 그 役割을 移讓하지 않으면 아
니된다. 여기에 將次의 政權의 担當勢力으로서
새로운 後繼者養成이 不可欠하게 되어 있다. 그
러나 새로히 教育받은 젊은 世代는 革命의 古參
幹部와는 달리 革命以前의 中國社會에 對한 個人
的經驗의 不足으로 이데올로기적인 熱狂을 欠如하
고 있다. 紅衛兵運動은 젊은 世代에게 確固한
革命的 熱狂을 부여하기 爲하여서는 全國을 震動
시키는 劇적인 措置가 必要하게 되었다는 毛澤東

(註11) Ibid., pp. 30~34.

의 信念의 表現이다.

다섯째로 經濟的 管理者에 關한 問題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問題는 紅과 專을 어떻게 混合 折衷시켜서 이 두個의 集團 사이에 有機的이며 調和的인 關係를 設定할 것이냐에 있다. 다시 말해서 專門的이며 技術的인 經濟官僚와 企業에 對한 政治的 統制權을 行使하는 黨幹部 사이에 어떠한 形態의 關係를 設定해야 할 것이냐가 問題이다.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效率性과 自律性에 對한 要求가 增大하는 反面에 黨에 依한 直接的인 干涉의 減少가 要請되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管理의 效率性과 政治的 統制의 確實性이라는 兩者를 調和시키기 爲한 具體的인 關係設定은 決코 容易한 일일 수 없다.

위에 指摘한 몇個의 問題點은 어느 意味에서 본다면 政治外的 問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共이 當面하고 있는 基本的인 問題點에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毛·林體制가 存立을 爲하여 克服해야 하는 本質的이며 先行的인 課題이다. 毛澤東이 執權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20年間 그대로 모든 問題를 스스로 決定해 왔다. 그리고 中共에 있어서 日常的인 모든 活動은 巨大한 官僚機構를 通해서 이루어지느니 보다는 毛澤東에 對한 個人的인 献身이 앞섰다. 따라서 中間 中共에 있어서는 權力體制를 制度化하며 形式化하는 努力이 事實上으로 不足했다. 이것은 毛澤東 死後에 中共의 支配體制가 動搖되지 않을 수 없다는 體制上的 本質的인 弱點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立証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위에 指摘한 問題들은 毛·林體制의 形式化와 安定化를 爲한 先行條件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있는 文化大革命은 毛澤東이 그의 後繼者로 하여금 革命의 變動에 對한 壓力에 抵抗하겠음을 保障하기 爲한 마지막 試圖였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리고 中共의 革命의 將次的인 可變性 與否를 理解하는데 있어서의 基本的인 問題는 世代交替에 關한 問題이다.

(6) 世代交替와 毛·林支配体制의 展望

中共이 앞으로 基本的인 이데올로기의 政策的 딜레마를 解決하며 또 當面된 課題의 解決을 爲하여 어떻게 展望될 것인지는 不確實하다. 이와 같은 不確實한 展望 가운데서도 가장 不確實한 것은 리더십의 變動의 展望에 關한 것이다. 왜냐하면 九全大會에서 林彪가 毛澤東의 後繼者로서 指名되기는 하였으나 毛澤東과 林彪를 包含하여 党的 古參幹部는 이미 老化現象을 나타내어 멀지않아 새로운 世代에 依하여 交替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이다. 時代는 이미 外國에서 留學한 中堅 第二世代의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 革命 古參幹部에 代替할 이들 새로운 世代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方向으로 志向할 것인가가 終極적으로 重要な 問題가 아닐 수 없다.

中共에 있어서 世代交替가 리더십에 어떠한 結果를 가져올 것이냐가 우리의 主要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社會科學은 正確하게 우리에게 그 解答을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可能한 資料를 利用하여 中共의 엘리트의 構造와 特徵을 分析하여 그 未來變化의 可能性을 展望할 수 있다.

中共에 있어서 革命의 古參幹部集團은 두드러진 特徵을 가지는 集團이다. (註12) 그들은 모두 適者生存의 長期斗争의 經驗의 所有者로서 斗争的이며 獻身的이며 透徹한 革命精神의 所有者들이다. 毛澤東政權의 主要 힘의 源泉은 이들 間의 團結과 共同目標의 堅持에 있었다. 黨幹部의 大多數는 社會的 出身基盤에서 본다면 中·上層 階級의 出身이며 一般的으로 充分한 教育背景의 所有者들이었다. 그리고 教育背景에 있어서는 蘇聯을 비롯하여 西歐나 日本에서의 留學이 큰 口實을 하였다. 그 反面에서 貧農出身에서 充員한 많은 幹部도 包含되어 있다.

어쨌든 이들 古參幹部는 社會的 出身이나 教育

(註12) Ibid., P. 72

背景을 不問에 붙치고 基本的인 立場에서 본다면 大體로 職業的인 革命家로서의 經歷의 所有者들이 었다. 따라서 그들의 經歷의 본바탕은 本質的으로 党生活과 革命斗争이다. 党에 加入한 後 이들의 出世의 通路는 党的 組織生活과 革命軍에 從事하는데 있었다. 이것은 中國의 共產革命이 지니는 獨特한 性格을 反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1920年代末 以來로 中國革命은 軍事的 反革命에 對한 武力革命이 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幹部의 大多數는 革命軍의 指揮官 또는 政治委員으로서 實質的인 軍事的 經歷의 所有者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執權斗争에 있어서 技術的 또는 職能的인 能力보다도 軍事的 战斗, 政治的 組織化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動員의 技術에 주로 依存했다.

執權後 近 20年이 經過되는 동안에 이들은 專門技術을 習得하게 되고 또 技術的 專門的 關心을 第一次的인 것으로 하는 活動分野에 密着하여 生活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들 古參幹部는 하나의 集團으로서 職能

的인 專門家로서 立場보다도 革命將星으로서의 立場을 理想化하는 痼疾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行動形態에는 그들의 初期의 經驗과 그 後의 經歷發展이 多分히 反映된다. 革命的인 教化와 動員의 技術을 強調하는 大衆路線은 그들의 過去經驗을 바탕으로 하며 그들은 이것이 現在는 勿論 未來에도 一貫하여 繼續되어야 한다고 主張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두드러진 特徵을 가지는 中國 共產黨幹部는 다른 共產黨史에 비하여 하나의 集團으로서 高度의 團結과 結束力을 보여 주었다. 團結과 結束의 基盤이 된 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個의 特性을 指摘할 수 있다. (註¹³) 即 첫째로 그들은 서로 同一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基本目標에 関하여 見解의 一致를 보여 주었다. 둘째로 長期的인 革命투쟁의 經驗을 같이 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中國 共產黨의 主要幹部에도 1920~30年代 以來의 毛澤東의 革命

(註¹³) Ibid., pp. 77~78.

同志가 支配的이다. 세째로 毛澤東의 個人的 指導力과 支配的인 役割이 團結을 爲한 主要要素로서 寄與했다.

中國 共産党的 最高決定過程에 있어서 毛澤東의 役割이 決定的인 作用을 해 왔다. 이것은 内部的인 緊張이나 紛爭이 일어나서 破局的인 分派主義가 일어나는 것을 成功的으로 毛澤東이 防止할 수 있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中共의 領導體制는 毛澤東一人支配體制였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毛澤東死後에 일어날 政治的 不安定의 要因을 示唆하고 있다.

네째로 操作技術의 卓越性을 들 수 있다. 中國 共産党은 1920年代 以來 이데올로기의 統一과 組織的 規律을 促進하며 内部的인 緊張을 處理하는데 效果的인 技術을 驅使해 왔다. 内部的인 緊張을 處理하는 基本的인 技術的 方法을 整風運動이라고 한다.

위에 指摘한 要因에서 中國 共産党이 内部的으로 高度의 團結을 誇示할 수 있게된 것이다. 그러나 1949年 執權以來로 中共의 리더십이 安

定과 持續性을 維持해 왔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있는 文化大革命에서 보여준 權力 斗争이 立証하듯이 國家의 엘리트의 特徵이 恒常且 靜的인 狀態에서 變化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은 엘리트의 特徵의 時代的 可變化의 趨勢가 中共의 支配體制의 將來를 左右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指摘할 수 있는 問題矣^(註14)은 첫째로 革命古參幹部와 新進幹部間의 世代的인 葛藤의 增大이다. 모든 水準에 있어서 初期의 리더십이 長期的으로 持續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年齡水準이 上昇되어 엘리트內의 上向的 移動率이 自然히 低下되게 되었다. 執權 當時에는 國家와 黨機關 및 그 活動이 迅速히 膨脹됨에 따라서 모든 水準에 있어서 上向的 移動의 機會가 많았다. 그러나 1950年代末부터는 全体 엘리트集團內에서 上向的 移動보다도 下向的 移動이 많았다. 이것은 活動의 地方分權化를 試圖한 政府努力의 結果

(註14) Ibid., pp. 81~86.

었다. 党中央委員會의 擴張에 依하여 上向的 移動이 뒤따르기는 하였으나 大體로 上向的 移動은 嚴格히 制限되었다. 1962年 十中全會 以來 「革命的 後繼者」의 養成과 地方水準에 있어서 党機構의 革命化運動을 推進해 왔으나 幹部의 上向的 移動을 促進하고 새로운 革命的 後繼者를 리더십의 構造속에 編入시킬 것을 保障하기 爲한 努力에서는 失敗했다. 이번 九全大會에서는 中央委員會의 五分之三과 政治局의 近 40%의 議席을 地方幹部로서 充當하였으나 權力의 核은 如前히 古參幹部가 支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硬化現象은 有能한 젊은 黨員의 昇進의 機會를 가로막고 있어 上向的 移動에 對한 潛在的인 壓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潛在的인 政治的 不安定의 根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毛澤東 死後에 리더십의 上層構造에 變化가 일어날 境遇에는 이 上向的 移動에 對한 壓力이 露骨되어 內部的 緊張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水準의 엘리트 間에 社會的 階層化가 複雜化되어 가고 있

다는 뜻이다. 党 · 軍 · 國家機關에서 强히 한 階級意識이 增大되어 왔다. 軍은 1965년에 階級制를 撤廢하였으나 그 意識의 除去는 一朝一夕에 期할 수 없을 것이다. 特히 黨員은 報酬와 職責에 依하여 分類되고 古參性이 序列決定에서 至大한 役割을 해 왔다. 幹部의 範疇도 複雜하다. 執權한 해인 1949年을 分岐點으로 하여 古參幹部和 新參幹部로 分類되고 또 古參幹部는 長征幹部 · 延安 또는 抗日戰爭幹部 · 解放戰爭幹部等으로 細分된다. 權力構造의 頂點은 이들 古參幹部들이 占有하여 왔다.

그러나 終極的으로 새로운 世代가 古參性을 바탕으로 하는 階級보답도 能力을 昇進시키기 爲한 第一次的인 基準으로 삼아야 된다고 主張하게 되는 時期에는 强대한 抵抗이 일어날 것이다. 紅衛兵運動에 參與한 젊은 世代의 熱狂은 古參幹部和 젊은 世代間의 葛藤을 反映하고 있다.

세째로 指摘할 것은 官僚化風潮이다. 大衆運動은 臨時的인 牽制策에 不過했다. 党 · 政府가 大衆에서 遊離되는 官僚化風潮를 막고자 하는 努力

은 文化大革命에서도 失敗하고 말았다. 党的 優越성을 強調하므로서 初期에는 軍·警·政府·企業 體에 있어서 党的 統制에서 벗어난 官僚主義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事態는 變化하여 모든 組織을 통하여 職業的인 專門家와 黨組織幹部 사이에 緊張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党中央이 權力의 核心體이면서도 그 反面에 특히 軍部の 役割이 增大하였다. 文化大革命에 따르는 政治的混亂은 事實上의 黨不在 狀態에서 軍의 政治的 役割을 圧倒的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黨 自體內에서도 利害와 機能의 分化傾向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黨員도 漸次的으로 機能적으로 特定한 分野에 對한 關心과 同一體性を 第一次的으로 생각하게 하는 傾向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傾向은 비단 黨에만 局限된 것도 아니며 軍이나 經濟企業體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이것은 制度的 基盤이 個人의 權力增大를 爲하여 커다란 役割을 하게 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毛澤東 死後에 黨

軍 · 企業體 · 政府機關과 같은 여러 制度的인 利害의 對立이 더욱 重要性을 지니고 競爭하며 또 最高水準에 있어서의 決定에 對해서 먼저 重大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相互間에 어떻게 眞正하게 均衡을 維持할 것이냐가 問題이다. 그러나 지금 現在로서는 이들 間의 權力關係가 어떻게 展開될 것이냐도 未知數에 屬하는 問題이다.

이로서 中國 共產黨幹部의 特徵을 비롯하여 內部的인 團結과 結束이 可能하던 要因 그리고 世代交替에 關聯된 問題에 關하여 論하였다.

林彪는 毛澤東의 後繼者로서 指名되었다. 그러나 基本的인 意味에서 毛澤東 死後에 眞正하게 그를 代身할 權威의 所有者는 없다. 1935年 以來 그는 不可侵的인 黨의 指導者였고 1949年 以來 모든 重大問題를 決定했다. 1959年에 國家主席의 자리를 劉少奇에 물려 주었어도 그는 唯一의 이데올로기 統領은 勿論 政治組織者요 軍事指導者요 또 政府管理者였다. 中共의 全社會는 毛澤東 個人의 理念과 人格에 依하여 支配되어

왔다.

毛澤東時代가 終末에 닥아서는 오늘날 後繼者 林彪가 그의 領導體制를 維持하기 爲하여서는 軍을 支配하여야 함은 勿論 黨과 政府官僚의 掌握이 不可欠하다. 그러나 그에게 이것이 可能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 疑問에 屈하는 問題이다.

따라서 毛澤東死後 内部的인 分派勢力의 競爭이 強化되어 過去 그 어느 때 보다도 리더십과 政策에 있어서 보다 큰 流動性을 보여줄 可能性이 크다. 黨權力構造에서 全的으로 世代交替가 이루어지기 爲하여서는 5年이나 10年 또는 그 이상의 期間을 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時期야 언제이든지 間에 世代交替는 不可避하다. 이 世代交替는 리더십과 政策에서 流動性을 強化하는 基本的인 動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毛澤東의 死亡은 内部的인 團結과 結束力의 弛緩 그리고 對立的인 政策路線과 利害集團 間의 競爭을 더욱 增大시킬 것이며 權力構造에서의 世代交替는 이것의 促進劑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趨勢는 林彪體制로 하여금 實用主義的이며 온건한 政策을

主張하는 者들에 依한 政治的 壓力에 順應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世代가 指導層으로 登場하여 自己를 主張함에 따라 修正主義에 接近하지 않을 수 없는 壓力이 漸次的으로 強力해 질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 우리는 不遠한 將來에 어떠한 方向으로 變動할 것인가를 미리 速斷할 수는 없어도 리더십과 政策에 있어서 現在와 다른 變化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結 論

變動의 限界와 類型

中國 共産黨의 리더십이 成功하기 爲한 先行條件은 黨 · 軍 · 政府官僚 · 知識階級이라는 四大主要勢力을 效率的으로 統合하며 支配하는데 있다. 이것은 中國社會가 지니는 獨特한 歷史的 傳統의 反映이기도 하다.

文化大革命과 紅衛兵運動이 黨中央을 牙城으로 삼은 實權派에 對한 奪權투쟁으로 展開되었기 때문에 事實上으로 黨機能이 마비되어 黨不在現象을 가져왔다. 九全大會는 解黨運動에 終止符를 찍고 黨不在現象을 克服하기 爲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九全大會는 黨 · 軍 · 大衆組織의 三結合 위에 樹立된 臨時最高權力機構인 革命委員會를 基盤으로 黨을 再建하고 權力構造를 再編成했다. 이것은 毛 · 林支配體制의 確立을 模索하기 爲한 것이었다. 그 結果 毛 · 林이 依存하던 軍閥의 大量進出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基

本적으로는 各派閥間의 勢力均衡을 維持하기 爲하여 雙方間의 妥協과 讓步로서 만들어진 臨時的인 派閥의 聯合體의 性格을 濃厚히 지니고 있다.

이것은 毛·林體制의 成立을 意味하여도 그 確立을 意味할 수 없다. 따라서 黨에 對한 林彪의 領導的 地位는 確固不動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軍에 對한 林彪의 支配力도 完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政府機關에 對한 林彪의 地位는 더욱 未知數이다. 九全大會가 끝난지 半年이 넘는 오늘에도 政府機關의 再編成을 爲한 全國人民代表大會의 開催에 關해서는 아무런 具體的인 言及도 없다.

이러한 가늠에 劉少奇는 아직도 國家主席으로서의 公職을 維持하고 있다.

知識層에 關한 問題는 더욱 複雜하다. 이것은 政策路線에서 보면 中共이 當面하고 있는 基本問題인 紅(思想)과 專(技術)의 對立으로 問題되고 있음은 勿論 世代上의 次元에서 본다면 古參革命幹部에 代身할 革命的 後繼者의 交替라는 世代交替問題로 浮刻되고 있다.

이리하여 林彪의 領導力은 權力構造의 四大支柱인 黨·軍·政府官僚·知識階級에 關한 問題를 具體的으로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이 中에서도 長期的인 眼目에서 보아 毛·林體制에 있어 리더십과 政策이 流動性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겠음 점점 큰 壓力으로 作用하는 것은 젊은 世代의 上向的 移動의 要求에 對한 潛在的인 壓力이다. 黨이 指導權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革命的 後繼者에서 離脫되면 그 指導力은 死文化한다. 따라서 指導權과 指導力이 密着하기 爲하여서는 世代交替에 따르는 새로운 世代의 要求의 壓力에 對한 反應이 不可欠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지않은 將來 또는 毛澤東死後에 리더십과 政策에 있어 急激한 變化가 일어난다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이 뜻에 있어 스탈린死後의 蘇聯과는 事情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루시초프는 過渡期의 指導者로서 스탈린이 쌓아올린 社會經濟的 業績과 遺産에 依하여 媒介되면서도 그것을 否定할 수 있었다. 그는 스탈린의 業績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反

面에서 否定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相當
한 期間 동안 中共에는 스탈린化의 必要性에서 全
적으로 外面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否定하
기 어렵다. 中共의 現在의 事情에서 보아 現行
路線의 全적인 急激한 否定은 危險한 自己否定을
意味하기 쉽기 때문이다.

후바研究所의 報告書(註15)는 尙后 10年間의

(註15) 스펀포드大學 후바研究所報告, *Communist China
and Arms Control, A Contingency Study,*
1967~1976, 第二章 毛澤東以後

Lucian W. Pye는 *Foreign Affairs*, April
1966에 投稿한 「Coming Dilemmas for China's
Leaders」라는 論文에서 中共의 리더십의 不安定의 要
因의 하나로써 過去 15年間 모든 日常活動이 巨大한 近
代的인 官僚機構를 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니 보담도
毛澤東個人에 對한 政治的 忠誠心에 依存하였기 때문에
權力體系 自体를 制度化하여 形式化하는 努力이 거의
欠如되어 왔다는 點을 들고 있다. 後繼者 林彪가 毛
澤東이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個人的인 權威의
根源이 없음은 勿論 執權後 20年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權力機構가 制定化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特
히 毛澤東死後의 中共의 領導體制의 基本的인 問題矣
이라고 理解된다.

中共의 리더십의 類型으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想定하였다. A型은 맑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繼承하여 大躍進을 信奉하는 教條主義이다. B型은 맑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表面的으로 信奉하지만 A型처럼은 教條主義的이 아니며 國內政策에서는 官僚的이며 對外政策에서는 가장 實利的이며 柔軟한 態度를 取하는 리더십의 型이다. 그리고 C型은 毛澤東思想의 信奉은 말뿐이며 實은 國內的인 安定과 調和에 重點을 두고 對外關係의 改善 特히 對蘇和解를 取하는 型이다.

이들 리더십의 型 가운데 그 變化可能性을 ① A~B, ② A~B~C, ③ A~C, ④ A의 持續, ⑤ A~B~A의 다섯개로 想定할 수 있다. 여기에서 ③은 急激한 變化를 前提로 하기 때문에 現在의 中共으로서는 自己否定을 의미하게 되어 그 可能性이 적다. ④는 이미 指摘한 諸要因때문에 그 持續이 날이 갈수록 困難하게 된다. 文化大革命 當時의 리더십은 A型에 가깝다. 그리고 九全大會 후의 毛·林體制는 A

型이면서도 「大躍進-經濟調整-文化大革命」이라는
過程에서 본다면 A~B~A型 即 ⑤ 困難한 限
에 있어 그의 리더십變化의 可能型은 ①과 ②에
歸着한다. 그러나 ③인 A~B~C型은 A~B의
轉換과 B~C의 轉換이라는 二段階的 轉換이기
때문에 九全大會후 A~B~A로 轉換한 오늘의
毛·林體制에서 본다면 ①인 A~B型에의 轉換
이 있는 후가 아니면 그 可能性은 予測하기 어
렵다. 따라서 急激한 轉換이 自己否定이나 飛躍
을 意味한다는 뜻에서 A~B~A를 轉換한 毛·
林體制의 오늘날의 時점에서 본다면 ①인 A~B
轉換이 歴史的인 發展過程에서 본다면 A~B~C
轉換보답도 앞설 것이다. 이것은 蘇聯에 比하여
國家發展段階에서 많이 뒤떨어진 오늘날의 中共의
現實에서 본다면 앞으로 相當한 期間동안 強硬路
線이나 好戰性이 持續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中共外交政策과 그것이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

(1) 林彪의 論文을 통해서 본 中共의 世界革命戰略

1965年 中坐紛糾가 다시 收拾할 수 없을 정도로 惡化되면서 中國의 文化大革命이 進展 激化되자 毛思想學習의 大熱風은 全中國을 휩쓸었다. 中國人民은 거의 全部 毛思想學習 運動에 動員되어 農場에서 職場 또는 官方에서 各者가 所屬하는 社會團體나 또는 學校에서 毛思想學習과 討論에 熱을 들었고 또 數十萬, 數百萬의 紅衛兵들은 毛主席의 語錄이나 冊子를 손에 들고 거리를 行進하며 反毛系로 指目되는 黨, 外廳團體 또는 政府, 社會 文化機關의 官僚나 幹部를 糾彈하는 所謂 文化大革命을 爆發시키자 全國은 것잡을 수 없는 混亂과 騷擾에 빠져 들어가고 만 것이다.

此際에 中國大陸의 權力層이 세삼스럽게 毛思想學習運動을 全國적으로 벌리게 된 動機는 무엇이며 또 이 文化大革命의 大熱風 속에서 迄

刻 強調되는 毛澤東思想의 內容은 무엇이었을까?

毛澤東思想이란 다른 어떤 中國革命의 理論이며 中國革命의 經驗을 토대로 한 世界革命의 戰略을 內容으로 한 것임은 두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며 러니와 1960년대 後半期에 와서 中共의 世界革命戰略을 萬邦에 宣言한 文獻으로서 注目되는 것은 1965年 9月 2日 發表한 林彪의 「人民戰爭 勝利萬歲」라는 論文이다.

이 論文은 西方의 中共專門家들에 의하여 히틀러의 「mein Kampf」 막스 엥겔스의 「共産黨宣言」에 버금하는 比重을 갖는 文獻으로서 重要視 되고 있는 바⁽¹⁾ 우리가 보아도 果然 毛澤東을 中心으로 한 中共政權의 實權者들이 거니는 世界觀, 政治目標, 그리고 世界情勢의 認識과 아울러 中共의 世界革命戰略이 簡單 明瞭하게 要約되어 있으며 이 內容은 1969年

(1) China and The U.S. Foreign policy (1945-1967)

Congressional Quarterly Service (Washington, D. C; New Washington)

4월에 열린 九全大會에서 再確認되었다.

「毛思想은 全人民, 全軍, 全党과 모든 協力 指導 理念이다」라는 標語가 가르키듯이 이것이 바로 中共外交政策의 青寫眞이니 만큼 이 論文의 內容을 綿密하게 檢討하여 보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이 論文의 前部分에서 林彪는 中國共產黨이 武力的으로 壓倒的인 優勢를 지닌 日帝와 民主友邦의 積極的인 援助를 物心兩面으로 받아들인 蔣介石政權에 抵抗하여 끝내 싸워 이긴 經驗과 戰略을 分析하여 그것을 美國을 爲始한 自由陣營과의 角逐에 適用하려고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다.⁽²⁾

(1) 抗日에 贊同하는 모든 人民(即 反日勞動者, 農民, 兵士, 學生, 知識人, 企業家들)을 統合하여 抗日民族統一戰線을 形成시켰다.

(2) Doak Barnett Communist China After Mao, with Selected Documents (Princeton, Univ. Press; New Jersey) 1967, P.47

其他 引用은 이 文獻에서 뽑은 것임.

~28~
(2) 統一戰線內部에서 우리는 獨立과 이니셔티브의 策을 追求하였다. 卽 統一과 獨立을 必須要件으로 보았다.

(3) 軍事戰略으로 말한다면 統一된 戰略의 태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限 獨立적으로 各自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遂行되는 게리라戰法을 採択하였다.

但 게리라戰法을 基本으로 했으나 輿件이 許諾할 때 移動戰爭을 遂行하는 機會를 棄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4) 蔣介石이 領導하는 頑強한 反共政權에 對한 內爭에 있어서 우리는 內部的 矛盾을 잘 利用하였다. 卽 多數의 支持를 獲得하고 少數者를 反對하여 敵을 各個 擊破하여 우리에게 有利할 때 自制心を 갖이고 適當한 立地條件에서 內爭을 展開하였다.

(5) 日本軍의 占領地域과 國民党政權의 影響 下에 있는 地域에서 우리는 統一戰線을 最大限

으로 發展시키는 한편 選拔된 黨幹部를 地下에 潛伏 工作케 하였다. 組織과 鬥爭의 形態로 말한다면 選拔된 黨幹部를 長期間 地下에 潛伏케 하여 力量을 蓄積하여 時期를 기다리게 하였다.

(6) 社會의 諸階級과의 提攜問題에 關해서는 우리는 進步的勢力을 發展시키고 中間勢力의 支持를 얻어 頑固한 反共勢力을 孤立시키는 基本方針을 固守하였다.

(7) 頑強한 反共分子에 對해서는 우리는 革命的인 二重政策을 使用하였다. 卽 그들이 抗日을 할 수 있는 限 그들과 提攜하고 그들이 共產黨과 싸우려고 드는 限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孤立시키는 것이다.

(8) 地主나 부르주아지에 對해서는 그 때 그 때 分拆하여 分別하는 것이 必要하며 統一할 수 있는 모든 勢力을 統合하려는 우리의 目的을 이루겠음 다른 政策을 形成하였다.」

이것이 毛澤東의 中國革命戰略의 基本으로서

~80~

이 公式이 그대로 美國의 支配를 反對하는 世界 革命戰略에도 適用하며 특히 中共의 對外關係에 또 適用되는 것이라는 事實에 留意하여 다음의 句節을 吟味하여 보기로 하자.

「民族民主革命에 있어서 이 統一戰線內部에 두 가지 種類의 同盟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歷史는 가르켜 주고 있다.

하나는 勞働者 農民의 同盟이고 또 하나는 勤勞人民과 뿌루조아지 또는 其他 非勤勞者의 同盟이다. 勞農同盟은 勞働者階級과 農民, 그리고 都市와 農村의 모든 勤勞人民의 同盟을 뜻하며 이것이 統一戰線의 基礎가 된다. 勞働者階級이 民族民主革命의 主導權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들이 廣範圍의 農民大衆의 支持를 얻어 그들의 周圍에 團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決定된다. 勞働階級이 農民의 主導權을 질 때에 限하여 이 勞農同盟의 基礎가 세워지므로서 비로소 第二의 同盟을 樹立할 수가 있는 것이며 廣範圍의 統一戰線을 形成하고 人民戰爭을 勝利的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지

못할 때 모든 일이 辰氣樓나 空虛한 말 같이
밑잡지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筆者가 이와 같이 긴 引用을 한 것은 毛澤東
이 指摘하는 社會階級과 政治勢力을 現在 世界
의 國家로 比喻해 볼 때 中共外交政策의 全貌가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頑固한 反共勢力
을 美國과 徹底한 親美反共國家로 보고 地主나
뿌로쵸아지를 親美反共路線을 徹底하게 따르지
않는 先進民主友邦으로 보고 進歩勢力이나 中間勢
力を 非同盟 또는 中立國家로 보고 農民階級을
中共이 影響력을 미칠 수 있는 後進國이 容共國
家로 看做하고 勞働者階級을 共產國家로 볼 때
中共의 外交政策과 世界革命戰略이 明若觀火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特別히 比喻를 더 擴大하여 소
聯을 勞働者階級으로 보고 中共을 아직도 勞働
階級化하고 있는 先進國農民勢力으로 볼 때 中共
戰略의 理論과 實際가 더욱 確然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첫째, 中 소紛爭은 毛가 말하는 勞農의 同盟

이 確固하지 못하고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第二次的 同盟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容共 中間勢力이 支配하는 國家라고 같은 同盟을 맺지 못할 때 勝利의 不可缺한 要因인 廣範圍의 統一戰線도 不可能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바로 中共의 世界戰略이 基礎부터 뒤틀린 것이며 따라서 外交政策도 完全히 失敗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斷定하기 前에 毛澤東思想의 內容을 더 仔細히 檢討 吟味하여 보기로 하자

毛澤東은 게리라戰法을 定義하여 「武裝의 裝備에 있어서 劣勢한 國家가 強大한 侵略軍에 對抗하여 싸울 때 必要한 戰法⁽³⁾」이라고 하였거나 와 毛思想은 한마디로 말해서 武力的으로 弱한 集團이 強大한 集團에 被擄取 被壓迫人民이 抑壓하고 擄取하는 集團에게 後進國이 先進國에게 抵抗하여 屈服케 하는 革命理論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弱小集團이 強大集團에 對하여 이

(3) Samuel B. Griffith, Mao Tse-Tung on Guerrilla Warfare (New York) 1967. p. 42

평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인가? 毛澤東은 그 勝利의 要件으로 (1) 強力히 組織된 馬스 레닌의 黨이 있고 (2) 民族主義의 社會改革의 심블로써 廣範圍의 社會層과 人民의 支持를 받는 統一戰線이 있어 그것이 固結한 勞農同盟에 기반을 奠하여 있으며 (3) 強力한 農村의 革命基地가 樹立되어 있으며 (4) 새로운 類型의 革命軍隊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毛澤東은 革命의 手段으로서 武力 即 人民軍隊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다.

「結局 馬스 레닌의 프로레타리아트 革命의 理論은 革命的暴力에 의하여 國家의 權力을 奪取하는 理論이며 人民戰爭에 의하여 反人民的戰爭에 對決하는 理論인 것이다. --- 그 (毛澤東은) 는 明確히 말한 바 있었다. 武裝軍隊에 의하여 權力을 奪取하는 것, 問題를 戰爭의 方法으로 解決하는 것은 革命의 核心課題이며 革命의 最高形態인 것이다. 馬스 레닌의 革命原則은 中國에 對해서나 모든 다른 國家에 對해서나 普遍的으로 妥当하다.」⁽⁴⁾

(4) Doak Barnett, op. cit. pp. 61-1

그러나 아무리 武力이 決定的인 役割을 한다고 해서 弱者의 武力으로 強勢의 敵을 一時에 打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毛澤東은 人民戰爭의 戰略과 戰術을 使用해야 한다고 하는 바 人民戰爭은 첫째, 게리라戰이어야 하고 둘째, 持久戰이어야 하고 셋째, 包圍作戰으로 나가야 한다. 게리라戰은 彼我의 戰鬥力量을 知悉하고 測定한 後 敵軍이 進擊하면 我軍은 後退하고 敵軍이 駐屯하면 我軍은 敵陣을 包圍하며 敵軍이 疲勞하면 我軍은 攻擊하고 敵軍이 後退하면 我軍은 追擊하는 戰法을 써야 한다. 모든 戰鬥에서 我軍은 圧倒적으로 優勢한 力量을 集中하여 敵軍을 完全包圍하며 時機를 보아서 敵軍에게 決定打를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我軍이 敵軍보다 많은 損失을 입거나 또는 皮장 파장이 되는 消耗戰은 回避해야 한다. 그런 方法으로 全體的으로 볼 때 我軍의 力量은 相對方보다 劣勢이나 個々 戰鬥에서는 敵軍보다 絶對적으로 優勢해야 하며 이렇게 持久戰을 繼續하는 동안에 全體的으로 敵軍보다 優勢해 지고 結局에 가서 敵軍을 全滅할

수가 있다.⁽⁵⁾

그리고 人民戰爭은 언제나 我軍이 願하는 戰爭을 하지 敵軍이 願하는 時期와 場所, 그리고 方法으로 싸워서는 안된다. 싸움은 언제나 勝利할 수 있는 戰爭을 해야 하며 勝算이 없을 때는 絶對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人民戰爭은 언제나 自給自足할 수 있는 바탕에서 戰爭을 해야지 外部의 援助를 期待해서 싸워서는 안된다는 原則을 強調한다.

其他 무엇보다도 重要的 人民戰爭의 原則은 農村에 革命基地를 樹立해서 都市를 包圍한다는 것이다. 世界를 두고 말한다면 北美나 西歐는 都市이고, 亞細亞, 亞非利加 南美地域은 世界의 農村인바 世界革命은 世界人口의 壓倒的多數를 占하는 亞細亞 亞非利加, 南美地域의 被壓迫人民의 革命期爭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後進國의 政治的 經濟的 條件은 革命前 中國의 與件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力量을 統一戰線에 흡수하는 것만이 世界의 都市地帶인 先進

(5) Ibid, P.228.

國을 擊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農民만이 民族民主革命의 主力部隊가 되며 「農村과
農村만이 革命의 基地가 될 수 있으며 窮極的
勝利를 達成할 革命은 이곳 (農村—後進國社會)
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中共은
세계의 反動勢力 反共勢力의 主軸인 美國을 世界
人民으로 부러 孤요시키고 後進國人民을 反美戰後
에 總動員하여 人民戰爭의 方法에 의하여 美國을
包圍 擊滅시키므로써 世界革命을 成就하겠다는 것
이며 이것이 바로 中共外交政策의 基調가 되는
것임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 일이다.

現時代의 性格을 規定하여 林彪는

「우리는 世界資本主義와 帝國主義가 滅絕
의 구렁이로 빠져가고 있으며 社會主義와
共產主義가 勝利로 前進하는 時代에 살고
있다. 毛同志의 人民戰爭의 理論은 中國
革命의 產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時代의 特徵을 分析하고 있는 것이며 ---
여기에 毛思想의 偉대한 國際的 意義가

~82~

있다」고 論하고 있다⁽⁷⁾

赫彪의 「人民戰爭勝利萬歲」라는 論文의 檢討와 吟味는 一端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자 前述한 바와 같이 中共의 外交政策 特別히 對美政策, 對소政策, 對日政策 그리고 統韓政策도 모두 이러한 理論? 思想的 바탕에서 나온 것이며 또 이러한 思想을 充分히 理解할 때 過去는 勿論 未來의 展望도 내다 볼 수가 있는 것임을 指摘하고 이제 보다 具體的인 論議를 벌리기로 하자

(7) Ibid. p. 246.

(2) 中共政權의 基本目標와 政 策 作 成 定 向

前술한 바 現中共政權의 實權者이며 毛澤東의 後繼者로 指目된 林彪의 論文을 通하여 中共의 世界革命戰略의 內容과 中共外交政策의 基本的 輪廓을 알게 되었거니와 이제부터 中共政權이 무엇 때문에 國內의 基本的인 問題도 解決 못 하면서 世界의 最強大國인 美國이나 兪聯을 敵對視하고 世界革命의 野望을 주제넘게 固守하고 그 非現實的인 目的을 達成코지 狂奔하여 왔는가를 한번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이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우리는 中國의 對外政策의 傳統面에서 살펴 보고 다음 1949年 以來 中共政權이 取하여 온 外交政策과 政策決定行態에서 살펴 보고 한 다음, 中共執權層의 精神分析을 通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傳統面에서 본다면 John Fairbank 教授를 爲始한 많은 西方의 中共專門家は 中國人이

傳統的으로 中華思想에 自己 陶醉되어 自己 나라가 人類文明의 中心이며 人類社會의 模範으로 自處하여 왔기 때문에 共產化된 現在에도 그와 같은 過去 中國의 榮光과 威勢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 (8) 하여튼 中國民族은 過去의 文化傳統과 過去 數千百年 동안 누리온 國家的 威勢로 因하여 民族的自尊心이 大端한 民族인티 19世紀 中葉의 阿片戰爭 以來 百餘年 동안 西歐勢力과 日帝에 屈服되어 온갖 苦難과 辱恥를 겪어 왔으며 外勢와 封建勢力의 強力한 支援을 받은 國民黨 政權과 20年間 血雨腥風 끝에 겨우 中國大陸의 主權을 掌握하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艱難과 侮辱에 報復하고자 하는 熾烈한 感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無理가 아닌 것이다.

다음 中共政權樹立後 現在까지 執요하게 追究하여 온 外交政策의 目標에 關해서 Robert A. Scalapino 教授는 첫째, 亞細亞로 부터 西方의 影響을 一掃하여 버리는 것. 둘째, 이 대을로 기적으로 또 政治적으로 「新中國」의 模型을 본

(8) John K. Fairbank, The United State & China (N.Y.: Viking Press) 1962, pp. 307-316.

받은 亞細亞를 어떤 手段으로 든지 만들어 보려는 總則, 첫째, 이와 같이 進歩的인 亞細亞의 總力을 動員하여 世界의 修正主義와 帝國主義勢力을 打倒하려는 이 세 目標을 指摘하였다.⁽⁹⁾ 또 한편 Doak Barnett 教授는 첫째, 強大한 權力の 基地를 構築하여 中國의 安全保障을 強化하며 둘째, 外勢와 反動勢力의 손안에 있는 台灣 (其他의 失地)를 斷乎히 回復하겠다는 決意이며 셋째, 世界의 強大國으로서 世界舞臺에서 指導的 役割을 遂行하겠다는 三大目標가 中國의 外交政策을 支配하여 왔다는 것이다.⁽¹⁰⁾

果然 中共의 領導下에 東洋의 잠자는 獅子는 깨어 났고 죽은 獅子는 蘇生하였다.

그런데 台灣을 爲始한 群小島嶼는 아직 美國의 保護와 支援을 받은 國府軍의 손아귀에 있고 거기서 捲土重來 大陸反攻을 準備하고 있으며 또 極東과 亞細亞에 그 影響力을 버치려고 하나 그것이 美國에 의하여 沮止되어 있으니 美國에

(9) China and The U. S. Foreign Policy, op.cit. P.308

(10) Ibid. P.281

對하여 熾烈한 敵愾心을 갖는다는 것을 理解할 수 없는 바가 아니다.

티구나 무엇보다도 暴力을 崇尚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中共의 指導者들로서 自國보다도 圧倒的으로 優勢한 「美帝國主義」가 그들의 領土의 한 모퉁이서 버티고 있으며 아직도 怨恨이 새로운 蔣政權이 거기서 大陸反攻을 企圖하고 있으니 不妥하지 않을때야 不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中共의 威勢를 四海에 배치려는 野望을 곧세게 妨害하며 또 그 政權의 存續 그 自体를 威脅하는 것이 美國인 만큼 그 美國勢力과 影響力을 中國 周邊과 亞細亞로 부터 물리치는 것이 中共外交政策의 至上目標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中共外交政策作成에 作用하는 要因으로서 中共指導層의 精神狀態와 그들의 世界觀을 檢討하여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A.M. Halpern 教授가 論하였드시⁽¹¹⁾ 現 中共指導層의 人

(11) A.M. Halpern, "The Influence of Revolutionary Experience on Communist China's Foreign Outlook: The Chinese Model (Hon Kong Univ.) 1965. 205-

生態度와 世界觀은 그들의 人格形成期에 겪은 中國革命의 經驗에서 由來한 것이다. 그들 大部分은 都市나 農村에서 地下노作과 게리카戰에서 生殘한 革命勇士들이며 延安의 洞窟에 숨어서 世界를 내다 본 사람들이며 外界世界와 接觸할 틈이 적었고 또 文明의 惠澤으로 부터 隔離되어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 思考의 準據範圍는 매우 좁으며 또 單純하여 世界를 黑白二元論의 立場에서 보는 버릇이 있다. 다시 말해서 世界를 絶對善과 絶對惡의 勢力이 對決하고 있는 舞臺로 보고 있으며 自身이 바로 絶對善의 勢力을 領導하는 領帥로 自處하며 또 은갓 危險과 苦難을 겪어 온 그들로서 世界의 最強國을 相對해서 싸우는데 對해서 劫을 내고 물리 설 그들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지껏 鐵石과 같이 밀어온 同盟國인 소聯이 그 絶對惡의 頭領인 美國을 두려워 하여 妥協하러 나섰으니 이것은 容赦 못할 背信이오 反逆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近來 毛主席은 어떤 佛蘭西記者에게 말하기를

「美國은 敵이나 尊敬할 만한 敵이다. 그런데
 소련은 反逆者이나 容赦할 수 없는 놈들이다.」
 라고 소련에 對한 敵愾心의 程度를 表示하였
 는 것이다.

이러한 中共指導層의 偏狹하고 歪曲된 現實認識
 과 政治行態는 毛澤東의 人格 特性에 의하여 더
 욱 燦化된다. 毛澤東의 性格은 中共指導層의 多
 數를 占하던 湖南省 出身에 共通된 氣質을 反映
 하는 것인 바 「그것을 簡單히 말한다면 氣分 좋게
 달려주고, 잘 치켜주면 어떤 苦難도 부릅쓰고 自
 身の 등골이 빠지는 것도 모르기 愚直 誠實 忠
 誠스럽게 奉仕하여 그 氣分을 들어지게 하면 누
 가 와서 威脅하고 아무리 때리고 구박해도 끝내
 버티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氣質이 中共의
 外交政策에 그대로 反映되어 美소兩大國에 對決하
 여 싸우다 原子彈 洗禮를 받을 망정 끝내 싸워
 보겠다는 것이 中共의 立場인 것이다」

(3) 中共外交政策의 變遷過程과

그 原因

第 1 章에서 우리는 中共의 世界革命戰略과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진 中共外交政策의 基調를 綿密히 檢討하였고 그리고 第 2 章에서는 그러한 世界革命戰略이나 外交政策이 形成되는 몇 가지 要因을 살펴 보았다. 이제부터는 中共外交政策이 具體적으로 어떻게 展開되어 왔는가를 概觀하여 보기로 하자.

筆者의 所見으로는 中共의 外交政策은 大體로 다음 다섯 段階로 区分될 것 같다.

① 第一段階은 中共軍이 中國大陸으로 부터 國府軍을 驅逐하고 新政權을 樹立한 余勢로 外部의 反共勢力에 평평하게 對決하는 한편 韓半島나 越南等地에서 벌어지는 革命內爭을 積極支援하므로써 亞細亞全域에 對하여 最大限度의 影響력을 미치려한 時代이다.

1949年 12月 1日 中華人民共和國 中央

人民政府의 成立을 宣言하고 外交部長 周恩來는 各國政府의 承認을 要求하는 同時에 外交關係의 開始로 正式으로 提議하였다. 그리고 同年 12月 16日 毛澤東과 그 一行은 모스크코를 訪問하여 中 蘇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고 相當한 援助와 借款을 얻고 돌아왔다. 이때 부터 中共은 蘇聯-辺倒政策을 宣言하고 親蘇 反美의 氣勢를 올렸는데 이러한 傾向은 韓國戰爭 에 介入하므로써 더욱 強化되었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다.

第二段階는 韓國戰爭이 林戰으로 끝나자 中共은 그동안 鞏固化된 政權을 토대로 1953年 社會主義 改造를 強化하는 한편 亞細亞, 亞非利加 諸國과의 友好와 連帶를 強化하는데 注力하게 되었다. 武力的革命路線으로 부터 友好와 協商의 路線으로 變하게 된 理由는 첫째, 그동안 中共 政權의 基礎는 鞏固化되었고 中共이 世界의 強大國으로 登場된 事實이 韓國戰爭을 通해서 널리 認識되기에 이르렀다는 것과, 둘째로는 中共의 威脅이 美國은 勿論 亞細亞의 隣接國家로 부터

피부로 認知 됨에 따라 中共의 包圍, 封鎖政策이 論議되고 또 1954年 9月에는 SEATO와 같은 反中共軍事體制가 成立하게 되어 中共의 膨脹主義 路線에 부러이크가 걸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부터 中共은 戰術을 바꾸어 美國등에 의하여 包圍, 孤立시키는 作戰으로 나온 것이 이 外交政策의 轉換으로 歸着된 것이다.

中共은 各國의 革命鬥爭을 支援한다는 말 代身 所謂 平和五原則 (即 7. 領土主權의 相互尊重
 1. 相互不可侵 2. 相互內政不干涉 3. 平等互惠 4. 平和共存)에 의하여 亞細亞, 亞非利加人民의 友好와 團結을 呼訴하여 1955年 4月 반등에서 開催된 亞阿會議에서 적지 않은 外交的 成果를 올렸다. 그에 앞서 열린 1954年 7月 제네바會談에서도 相當한 影響力을 끼치므로서 中共의 國威를 宣揚한바 있었다.

第三段階 1956年 2月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共産黨 二十次 黨大會를契機로 中 共 關係에 는 금이 가기 始作한다. 이것이 1956年 4月

5日과 同年 12月 29日 人民日報는 소聯共產
黨大會의 스탈린 批判과 헝가리의 暴動事件에
關하여 완곡하게 나가 소聯의 處事를 批判하는
論文이 나타난 바 있었다.

그후 國內에는 百家爭鳴과 整風 反右派運動의
波動을 겪었고 1958年의 大躍進政策 人民
公社運動이 失敗에 도라가자 中共은 國內政策
의 失敗를 캄프리지하기 위하여 外部의 反共國
家에 對하여 더욱 好戰性과 侵略性을 띠운 外交
政策을 取하게 되었다. 그리고 中亞國家에 對한
攻擊은 1959年의 中印國境紛爭으로 絶頂에
達하는 것이다.

第四段階에 와서 中소紛爭은 表面化 露骨
化되어 中소兩國의 黨械關係를 통하여 理論闘
爭이 展開된다. 이 用爭은 1962年 쿠바危機
와 1963年 以後 擴大되어가는 越南戰爭을
契機로 더 收拾할 수 없을 만큼 惡化되어 中
共은 이제 反美, 反소를 위한 世界的 캠페인을
벌이는 反面 國內에서는 毛澤東路線을 따르지
않는 溫健派, 國際派의 頭目인 劉少奇一派를

權力の座에서 除去하기 위하여 文化大革命이 벌어지는 것이다. 林彪의 論文 「人民戰爭勝利萬歲」는 黨內의 異見을 抑壓하고 毛澤東의 世界革命戰略의 正確性 正統性을 再천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었다고 볼 수 있다.

第五段階는 越南戰爭의 失敗로 쫓은 美國 大統領이 물러나고 Nixon 大統領이 就任한 1969年度부터 始作된다고 보겠다. Nixon은 越南戰의 非美國化를 主張하고 차츰 亞細亞에서 美國을 撤收할 計劃을 發表하자 中共의 執權層은 美國과의 大使級 會談을 다시 열고 協商을 하는 것을 考慮하기 始作하였다. 中美協商의 길에는 無數한 難關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하여튼 中美兩國이 武力으로 解決하기를 꺼리고 外交的 協商의 必要性을 痛感하게 된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며 앞으로 兩國이 어느 程度 이에 成功할 수 있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國際情勢가 左右되며 統韓의 展望이 열리는가가 決定되는 問題라 할 것이다.

果然 九全大會後 中共의 外交活動은 文化革命
 以來 보지 못한 積極性을 띄기 始作하여 그 등
 안 中斷 乃至 撤收하였던 各國駐在大使를 다
 시 派遣하였던 中 中 中의 中 中 中의 國境會談
 도 再開되기에 이르렀다⁽¹³⁾ 이것은 中共의 外交
 政策이 變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 文化革命後 惡
 化되었던 國際的 孤島에서 벗어나려는 企圖 때문
 이라고는 하겠으나 하여튼 이로서 中共外交는
 新局面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부터 오늘의 中
 美 中 中 中共 外 北 德 中日關係가 어떻게 形
 成되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發展될 것인가
 를 보다 詳細히 考察하기로 하자

(13) 世界 No. 289. 1969. 4月号. PP. 221~6

(4) 中共의 對美關係

建國以來 中共의 外交政策에서 一貫하여 變함이 없는 것은 反美路線이며 그것이 中共外交政策의 基調이 있음을 前述한 바 있다. 그 原因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太平洋地域의 超強大國이요 20世紀에 들어 와서 부터 亞細亞에 至大한 關心과 利害關係를 갖으며 第一次 世界大戰, 第二次 世界大戰을 거쳐나오는 동안에 決定的 影響力을 強化해 온 美國과 또 한편 亞細亞의 中華로서 傳統的으로 亞細亞에 君臨하여 온 中國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서 古來의 威勢를 되찾으려는 中共은 亞細亞地域을 두고 勢力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하긴 冷靜하게 따져 볼 때 美國이나 中共이 오늘에 와서 亞細亞諸國을 占據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¹⁴⁾ 亞細亞가 相對方의 勢

(14) 例로 1969年 4月 Foreign Affairs 에 나온 論文은 이 뜻을 傳統的인 中國의 外交政策에 비추어 詳細히 論證하였다. 그 要點은 中國은 傳統的으로 內陸에 對하여 主關心을 갖았지 東亞細亞와 東南亞에 對하여 領土欲이나 征服欲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力圈에 들어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中共은 美國의 努
力を 匪細匪로 부터 追放하려고 하는 것이고
企圖하는 것이다.

한편 美國은 中共의 勢力이 匪細匪全域을 席捲
하는 일이 없도록 中共封鎖를 試圖하여 왔을 뿐
이다.

美國으로 말한다면 第二次世界大戰 以前 부터 中
國에 적지 않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
기 때문에 中日戰爭 동안 거의 完敗한 中國에게
아낌없는 軍事的 經濟的 精神的 支援을 繼續하여
왔다. 中日戰爭이 끝나고 國共間의 內亂이 벌어
졌을 때 美國은 國府軍을 支援하여 준 事實 때
문에 中共指導層의 憤激을 샀으나⁽¹⁵⁾ 戰勢가 中共

(15) 例컨대 Donald S.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61 (N.Y: Atheneum), 1966.

William E. Griffith, The Sino-Soviet Rift (Mass: M.I.I.
Press), 1964.

Kurt London, Unity and Antiradiction (N.Y:
Praeger), 1962. 其他多數.

中.소, 北.傀의 三角關係를 分析한 國內書籍으로서는 國際
問題研究所에서 나온 「研究論叢」(1卷1号) 1968. 6. 其他
특히 中.소 兩國의 革命戰略의 比較에 關해서는 Zagoria의 著書

軍으로 기우러지자 뒤 以上 介入함이 없이 國府 軍의 台灣 占據만을 방조하였을 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美國의 中共에 對한 態度는 微溫的이었으나 韓國戰爭때 介入한 中共軍과 戰爭을 하게 되면서 美國內의 反中共熱은 昂騰하는 한편 亞細亞에 있어서의 中共의 威脅에 對處하여 中共封鎖政策을 積極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0年 케네디 大統領의 行政府가 들어 서자 過去 Dulles 國務長官의 感情的인 反中共 政策을 再檢討하여 새로운 對中接觸을 摸索하기 始作하였다. 그것은 美國의 中共封鎖政策이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며 中共의 國力膨脹을 沮止시키지 못했고 또 人類의 四分之二의 人口를 가리며 極東의 強大國인 中共을 國際社會에서 除外하고 있는 限 極東에서의 緊張緩和는 勿論 自由 共產兩陣營間의 冷戰은 解消될 수 없다고 事實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케네디 政權의 關心과 努力도 中 共 紛爭으로 強化된 中共의 強硬態勢를 드리킬 수는 없었고 존슨政權때

와서 越南戰爭이 擴大하자 中美關係는 惡化될 때
로 惡化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越南戰爭
에서의 失敗은 이러한 中美關係의 再檢討가 要求
되고 美國의 極東政策에 對한 批判的 輿論이 美
國社會를 휩쓸자 존슨은 大統領 出馬를 拋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 越南戰의 解決과 國內의 黑白紛糾의 收
拾을 約束하여 大統領으로 當選된 닉슨은 그의
徹底한 反共的 立場에도不拘하고 中共과의 協商
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中共은 그 兵力을 쓰지 않고서도 人民戰爭을
通하여 東南亞 各國에 對한 侵略의 魔手를 뻗을
수가 있는데 美國이 그때마다 軍事的으로 介入하
고 그 戰爭의 費用을 全担할 수가 없다. 또
이 때문에 國際的 緊張이 繼續되는 限 美國은
自由友邦에 對한 經濟的 軍事的 援助를 繼續해야
하고 또 끝없는 軍費競爭을 維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지껏 美國의 經濟的 出
血을 強要하여 왔고 또 越南戰 介入으로 國際的
威信이 低下시켰으나 恒常 國內의 人氣의 支持의

弱化를 두려워 하는 美大統領으로서 끌려거리기
안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존슨大統領의 前
轍을 밟기를 두려워하는 닉슨大統領으로 하여금
武力對決 代身 妥協과 協商의 길을 摸索하여 보
지 않을 수 없는 原因이다.

이때문에 美國은 그동안 中絶되어 왔던 大使
級會談을 再開하는 한편 記者 學者 實業家들의
相互訪問을 提議하고 또 最近에는 中共에 對한
禁輸措置의 解除를 宣言하기에 이르렀다. 大使級
會談은 現在 「두개의 中國案」을 廢棄할 것과
平和五原則의 協定調印을 前提로 하는 中共의
要求 때문에 1969年 11月 以來 교착狀態에
빠져 있고 그 外의 美國側 提議에도 中共은
廣諾을 보이지 않는 實情에 있다. 中共이 對
美協商을 原則적으로 承認하면서도 美國의 提議
에 応하지 않는 理由는 무엇때문일까? 中共이
美國과 協商하려고 하는 意圖은 닉슨이 亞細亞
紛爭을 非美國化하고 美軍을 漸進적으로 亞細亞
에서 撤收하겠다고 하니가 그 政策을 促進하기
위하여 協商하려는 것이지 그들이 反美政策을 變

更하였기 때문에 協商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要는 武力으로 이루지 못한 美國後退를 協商의 方法으로 이루어 보자는 것 뿐인 것이다. 美國이 亞細亞에서 물러서지 않은채 그 對中接近을 許容하였다가는 中共體制는 崩壞되고 말것이라는 것을 中共은 알고 있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美國이 臺灣을 拋棄하고 亞細亞에서 撤收하는 것 以外에 어떠한 協商에도 應할 수 없는 것이다.

美國政府도 中共이 現狀態에서 協商提議에 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提議나 宣言을 하지 않은 것은 勿論이다.

美國은 對中共敵對政策을 포기하였다는 外交的 제스추어를 取함으로써 中共指導層의 良識 溫健派의 指頭를 促求하며 또 國際輿論의 支持를 얻는데 着眼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美國의 意圖를 알면서도 中共이 大使級 會談을 持續하기를 願하고 對美協商의 뜻을 비치는 理由는 또 있다 그것은 美國과 朝鮮이 關係를 分難시켜서 各伯 擊破式으로 해 치을 수

있는 立場에 시기 爲해서다. 卽 中共의 國際
 的 孤立을 避하고 中美協商으로 소聯을 孤立시키
 서 소聯의 修正主義路線을 먼저 擊破하려는 意圖
 때문인 것이다. 中共의 戰略 戰術로 보아서는
 外部의 敵을 치기 爲하여는 먼저 内部의 團結과
 同盟을 強化하는 것이고 따라서 外部의 敵을 敗
 滅시키기 前에 반드시 内部의 敵을 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臺灣海峽의 緊張을
 強化하지 않고 밀치도 않은 中 小 國境紛爭을 挑
 發하는 所以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中共이 美 小의 妥協과
 和解를 對美協商의 方法으로 계트킬 수 있을 것
 인가? 없다는 것이 明白하다는데 現 中共 政權의
 限界가 들어나는 것이다. 毛, 林派가 그들의
 思考方法을 고치고 現 外交政策을 變更하지 않는
 限 中美協商이 進捗되기를 期待할 수는 없는 일
 이다. 萬一 北은 政府가 그 말 그대로 亞細亞의
 非美國化政策을 實現할 때 毛 林派의 思考方法
 과 政策이 根本적으로 變更되지 않더라도 美 中 妥
 協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今 日의 狀況속에서 美國

의 非美國化政策의 實現性을 믿는다는 것은 愚昧한 일이다. 亞細亞에서 中共을 牽制할 수 있는 潛在能力을 갖는 日本이 再武裝에 積極性을 보이지 않으며 東南亞·東北亞의 地域協力體制나 軍事同盟이 中共의 侵略을 沮止할 만큼 強化되지 못한 지금 美國이 어떻게 一方的으로 撤收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亞細亞의 大部分이 아직 政治的安定과 經濟的繁榮을 누리기가 瞭遠하며 共產主義의 威脅이 尙存하며 深刻한 이 때, 美國이 아무런 간절히 希望한다고 한들 어떻게 非美國化를 強行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美國은 中共이 内部的으로 弱化되거나 崩壞되거나 亞細亞의 諸國이 富強하여지고 地域協力體制를 通하여 中共의 勢力膨脹을 抑制할 수 있게 될 때 까지 亞細亞에서 물러날 수 없는 原因이 된다. 그러면 亞細亞에 있어서 美中對決은 永遠히 繼續되며 亞細亞는 現狀態를 남은채 韓國統一의 可望은 안보이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中共은 文化大革命以後 弱化될 대로 되었다. 毛·林派의 壽命은 몇年以内에 끝

난다고 보아도 錯誤가 아닐 것이다. 特히 毛가 죽은 後는 後繼者問題로 現指導層은 相互殺戮乃至 肅清되고 말 것이다. 그러는 過程에 中共의 埃리터層은 體質改新되어 過去의 頑固한 게리라쿠士 代身 보다 實証的이고 現實主義的인 第二代指導層이 權力을 잡게 됨은 中聯의 歷史를 통해서도 尙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中美協商은 本軌道에 오르게 된다고 하여 妄想이라고 볼 수 있을까?

(5) 中共의 對소-對北傀關係

中 소 紛爭에 關해서는 지난 數年 동안 마스 메 디아나 著述 學術雜誌를 通하여 커가 擴도록 듣고 들어오던 터이다.

그러므로 그 原因이 무엇이고 經緯가 어떠한가 고 여기서 새삼스럽게 論述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다만 中共政權이 樹立되자 中共政府는 過去의 不滿과 微妙했던 關係를 不顧하여 親소-一辺倒 政策을 宣言하고 「소聯의 經驗으로부터 배운다」 「中 소 人民間의 親善과 團結은 永久不滅이다」는 등 兩國의 紐帶強化에 가진 極性を 떨어 오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急變하여 이제 不俱戴天의 敵對關係로 轉換되어 버렸는가 생각하면 참 神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中 소 紛爭의 原因을 筆者더러 簡單히 要約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聯은 입으로만 中共과의 親善과 協助

를 約束하였을 뿐 中共이 期待한 것 만큼 淸淨한 것이 아니었다. 韓國戰爭時期는 말할 것 없고 그 후에 淸 援助도 印度·埃及 其他 中亞 國이나 非同盟國에 對한 援助에 比해서도 인식한 편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인식한 援助를 淸하는 口實으로 中共의 內政에 干涉하려 할 때가 非 一非再하였다. 甚至於 中共指導層의 交替노作까지도 하였으나 中共으로서는 不愉快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中共을 屈國視하는 소聯의 大同主義의 發露가 아닌가? 때문에 中共의 對 非難에 소聯의 大國的 僥國主義가 자주 言及되는 것도 無理가 아니다.

둘째, 소聯이 中共과 事前 協談함이 因이 國際共產主義 路線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國內政 策, 外交政 策을 採択하여 中共의 立場을 難處하게 만드는 例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소聯 共產黨 第二十次 黨大會가 그 代表的인 例인데 그 中에는 特別히 스탈린 格下 運動과 그 후의 스탈린主義 淸算波動은 스탈린主義를 當分間 固守해야 할 中共政權에게 큰 被辱을 끼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困難했던 것은 소련의 對美協商路線
 인데, 이러한 國際的 現狀維持路線은 現狀打破를
 의하여 몸부림치는 國際緊張을 緩和할 것이 아니
 라 도리어 惡化시켜야 할 立場에 있는 中共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었고 特別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이젠하우어 와 말하고 온 후루시초프가 美國
 의 주장에 발마추어 「두개의 中國案」을 中共이
 받아 드리도록 說得하려고 들었을 때 中共은 斷
 乎히 소聯과 對決하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中共으로 볼 때 이것은 強者에게 卑屈
 하고 弱者에게 橫暴스러운 態度이며 世界革命의
 路線에서 難脫하며 結果的으로 美國의 對中共封
 鎖政策을 방조하고 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시째로, 소련은 東南亞, 中東, 亞非利加 其他
 地域에서 中共의 勢力擴張을 妨礙하고 自國의
 勢力을 배치려고 狂奔하고 있다. 는 것이다⁽¹⁶⁾ 勿
 論 이것은 中 소 紛爭의 原因이라기 보다는 그
 結果라고 봄이 適當하다 하겠으나 이것이 도리어
 中 소 紛爭을 더 惡化하는 要因이 되고 있음은
 疑心의 余地가 없다. 最近 周恩來가 소련이 美

(16) 「劉少奇追放から九大大会へ」 「世界」 NO.228, 東京, 1969年 1月.

國과 錫코와 越南을 包圍하여 서로 他國에 對
한 出兵을 默認하고 있다고 非難하여 왔고 또
소聯이 日本과 印尼와 連帶를 強化하며 印度에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強化하고 있는데 對하여
神經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妻컨데 中共은 소聯이 中共의 強化와 成長을
두려워 하며 美國과 野合하여 中共封鎖에 協
助하는 한편 美國이 亞細亞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亞細亞를 自國의 손에 넣으므로서 中共封鎖를 繼
續하려고 한다는 理由로 소聯에 對하여 大端한
敵愾心を 품고 있는 것이다.

이제 中共의 對 소 態度를 1969年 4月
21日 부터 열린 中國共產黨 第九次 全黨大會에서
한 林彪의 政治報告에서 몇 句節만 살펴 보기
로 하자 (1)

「美帝國主義의 本質이 종이 호랑이 입은 이미
全世界에 暴露되었다. --- 소聯修正主義 反
逆徒黨도 亦是 종이 호랑이 이다 --- 브르즈네
프가 政權의 座에 오르고 나서 소聯修正主義 反逆

(1) 「中國共產黨 九全大會 - 林彪 報告」 「國防」 No. 196 安全保障調
査會, 東京, 1969年 7月, pp. 110~113.

徒黨의 指揮力은 더욱 그 效力을 喪失하여 内外의 困難은 더욱 深刻한 것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狂的으로 社會帝國主義 社會파시즘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對內的으로 坐聯人民에 對한 彈壓을 強化하며 資本主義의 全面的 復活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對外的으로는 美帝와의 結托을 強化하여 各國人民의 革命鬥爭을 더욱 徹底히 彈壓하며 ---- 我國에 對한 侵略의 威脅을 強化하고 있다. 數十萬의 軍隊를 끌어서 錫코스로바키아를 占領한 것과 我國의 領土인 珍寶島에 武力挑發을 敢行한 것은 坐聯修正主義가 最近 보여준 醜態에 不遜한 것이다. 그들은 그 侵略과 略奪을 弁護하기 위하여 「有限主權論」 「國際獨裁論」 「社會主義大家庭論」을 떠들어 대고 있다.

이런 것이 모두 무엇을 意味하는가? 쉽게 말한다면 남의 나라의 主權은 有限이지만 自己의 나라의 主權은 無限이다. 남들이 服從을 하지 않으니 自己로는 남에 對해서 國際獨裁 卽 他國人民에게 獨裁를 執行하고 그

~114~

러므로써 히틀러의 「歐羅巴의 新秩序」 日帝의 「大東亞 共榮圈」 美國의 「自由世界의 大家庭」과 똑같은 新版 쓰아가 支配하는 「社會主義 大家庭」 即 社會帝國主義의 植民地를 構築하여 보겠다는 것이다. 레닌은 第二 인터나쇼날의 反逆者들을 「탈로는 社會主義나 實際적으로 帝國主義이며 社會主義가 成長하여 帝國主義가 된 것이다」 라고 날카롭게 糾彈하였다. 이 말은 오늘날 資本主義의 길을 걷는 한줌의 實權派 修正主義 反逆集團에도 正確히 들어 맞는 말이다. 우리는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갖는 소聯의 프로레타리아 階級과 廣範한 人民이 반듯이 들고 일어나서 이 한줌의 反逆集團을 打倒할 수가 있다고 굳게 믿는 바이다. ----- 우리의 偉大한 指導者 毛主席은 「소聯 修正主義와 美帝國主義는 한패가 되어서 이처럼 많은 惡行과 醜行을 繼續하여 왔으나 이것을 全世界의 革命的 人民이 許容할 理가 萬無하다. 世界各國 人民은 지금 蹶起하고 있다.

美帝國主義와 소聯 修正主義를 反對하는 새로운

歴史的時期는 이미 始作된 것이다. 라고 指摘하였다. 全世界의 프로레타리아트階級과 被壓迫人民은 團結하라 !

美帝國主義, 소聯修正主義와 그 앞채비를 埋藏하여 버리자 !

이 引用과 其他 文章에서 짐작이 되듯이 中國의 對소政策은 첫째, 소聯을 修正主義路線으로 부터 世界革命路線으로 轉換시키며 그를 妨害하는 소聯指導層을 交替하는 것. 둘째, 그것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國際共產主義運動으로 부터 소聯을 孤立시키고 中共의 支配體制下에 社會主義國家와 各國共產黨을 統一團結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1950年 後半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繼續된 中소紛爭의 目的은 바로 이것이었고 이것은 韓半 島 北 邊 界 紛 爭 中 小 國 境 紛 爭 中 小 國 境 紛 爭으로 發展하였다.

事件은 1969年 3月 2日 東滿州 우스키江 안에 있는 小砂丘에서 中共과 소聯의 國境守備隊間에 武力衝突이 일어났다. 戰術은 달이 國境守備隊間의 衝突이지 實質的으로는 中

兩軍의 精銳部隊의 衝突으로써 그것은 約 반달 동안 繼續하였다. 그 衝突은 서로가 相對方이 彼此 始作하였다고 主張하기 때문에 外部에서 그 真相을 把握하기는 어려우나 그 前後의 還境을 考察하면 中共側에서 挑發한 紛爭인 것 같다. 本來 그것이 淸나라의 領土이었던 것은 事實이나 淸 滿 國境의 中間에 位置하여 여지껏 아무런 말성없이 지내오던 砂요가 갑자기 紛爭의 對象이 된 理由는 소련의 主張대로 中共이 文化革命으로 大混亂을 겪고 있는 中共人民의 對立感情과 緊張感을 外部로 排泄하여 國內의 團結과 統一을 이불려고 한 것이며 또 反毛派가 소련의 支持를 받는다는 事實로 인하여 反毛 民族感情을 刺戟하여 文化革命運動을 매듭지으려는 意圖의 또 한편 소련의 帝國主義의 性格을 暴露하여 對外的으로 소련不信의 思想을 扶植하고 마지막으로 소련指導層의 立場을 困難케 하므로써 그들을 權力의 座에서 追放할 것을 노린 中共側의 計劃적인 試圖이었던 것 같다⁽¹⁸⁾ 戰聞은

(18) 「中ノ國境紛爭」 「調査月報」 16.162. 內閣官房調査室

117~

3月15日에 一般 끝났으나 그 後도 兩國은 大兵力을 그 地域에 集結시켰으며 그 緊張된 對峙은 아직도 繼續되고 있는 中이다. 9月11日 所聯의 코시긴은 北京에 와서 周恩來와 만나고 北京會談을 열기로 되어 있으나 原則을 굽여서 가지 妥協할 생각이 없다는 周恩來의 말에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交渉의 展望은 밝다고 할 수 없으며 境邊에 따라서는 兩國의 武力衝突로 더욱 大規模로 擴大될 可能性도 아직 多分히 內含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中 所 關係를 惡化시키는 要因의 하나는 所聯의 亞細亞 進出임을 이미 指摘한 바 있었다. 中共을 밀어지지 못한 封鎖이오 自國은 勿論 앞으로 世界의 安全과 平和를 攪亂시킬 危險 要素로 보는 所聯은 過去 數年동안 日本, 印度, 印尼等 反中共國家와의 連帶를 強化하는 한편 1969年 여름 부터 所謂 亞細亞集團 安全保障體制의 構想을 가지고 나와서 中共의 位置를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7月15日 莫府放送은 그로미코 外相의 報告를 解談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¹⁹⁾

「亞細亞에는 武力紛爭 勃發의 威脅이 存在하고 있다. . . . 亞細亞의 現狀을 分析하여 平和를 強化하기 爲해서는 現在의 北京指導部의 外交路線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毛澤東外交는 亞細亞에서의 霸權을 잡기 爲하여 가진 策動을 다 부리고 있고 亞細亞諸國에서의 活動을 活潑하게 展開하고 있다. . . . 自國의 影響力을 強化하려는 北京은 亞細亞諸國에 內紛을 助長하기 爲하여 어떤 나라는 援助하고 어떤 나라에는 核武器로서 威脅하고 있다. . . . 中國은 한편 革命과 新生國援助를 부르짖고 또 한편에서는 帝國主義와 亞細亞의 勢力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다. 客觀적으로 볼 때 北京路線은 帝國主義路線과 一致하고 있다.

「集團安全保障體制를 반드리는 構想은 全般的이며 鞏固한 平和를 確立하기 爲한 課題이다. . . .」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中共이나 소聯이 서

(19) 「微妙な中ソ關係」 「國防」 116, 202 安全保障調査會, 東京, 1969年 12月, pp. 30~31.

로 相對方을 美國보다도 먼저 破滅시켜야 할 敵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中共은 이러한 所聯의 움직임을 越南戰이 끝난 後에 美國이 亞細亞에서 물러나는 境遇에 美國代身 中共封鎖를 繼續할 나라로 보고 그에 對해서 警戒心을 높이고 있는 것도 無理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中 所 關係를 考察하는데 있어 우리들의 至大한 關心事가 되는 것은 當然히 中共 所聯 北傀의 三角關係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國際問題研究所의 研究論叢 第一輯 第一卷을 爲始하여 적지 않은 研究論文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다만 그 줄거리와 問題點을 몇가지 指摘하는데 止하려고 한다.

④ 北傀는 極東에서 美國과 直接 對決하고 있는 政治狀況이나 其他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要件이 비슷한 關係로 美國을 敵對視하는 뜻이나 所聯의 對美協商에 큰 威脅을 느끼는 關係로 中 所 紛爭이 일어났을 때 心情과 氣分에 있어 親中共的이 아니 될 수가 없었으나 1950年

代까지 對決의 틈바구니에서 操心스러운 中요를 시켜왔다. 그러나 60年代에 와서 그 對立이 露滑化하고 妥協의 余地가 없어지자 北傀도 中共의 立場을 支持하며 共產陣營에 있어 서의 現代修正主義를 攻撃하고 나섰다. 1963年 崔鏞健은 6月 北京을 訪問하여 劉少奇와 共同聲明을 發表기를,

(1) 中共과 北傀의 團結은 马克思·레닌 主義와 프롤레타리아트 國際主義의 基礎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2) 美帝와의 鬭爭에 있어서 平和的 鬭爭이란 있을 수 없으며,

(3) 社會主義 國家의 對外政策은 平和共存에 치우쳐서 反帝 鬭爭을 疎忽히 해서 안되며,

(4) (소련)이 自國 自黨의 立場을 他黨 他國에 強要하는 것은 不當하며,

(5) 現代修正主義와는 非妥協的인 鬭爭을 繼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⁰⁾

그 後 北傀와 소련과의 關係는 極度로 惡化

(20) 「研究論叢」 OP. CIT. P. 106

Roy U. T. Kim, "Sino-North Korean Relations" *Asian Survey* Vol. VIII, No. 8 (Univ. of California, Berkeley) Aug. 1968. 其他.

되어 相互暴露戰術로 나가게 되었으나 北傀는 越南戰爭支援의 問題를 두고 中聯의 汎社會主義 國家의 統一路線에 呼應하자 그것을 拒否한 中共과 對立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中共에 文化大革命이 進展하자 金日成은 自身의 安全을 위하여 中共과 訣別하여 1966年 8月 所謂 自主路線을 宣言하게 된다. 이 때 北傀는 中共의 狂症에 恐怖를 느끼고 中聯의 修正主義에도 贊成할 수 없으나 中共과 같은 逸脫主義 孤立主義에도 同調할 수 없다는 理由로 그들 나뉠음으로 越盟支援의 問題를 契機로 中·中을 接近시키고 統一시켜보려고 한 모양이나 그 때문에 中共을 共產陣營에서 完全孤立시키려는 中聯의 單事的 援助에 對한 必要 때문에 오히려 中聯과 가워진 感이 있다. 그러나 金日成 集團은 事實上 兩側으로 부터 孤立 疎外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不安感과 恐怖感이 北傀를 韓國에 對한 超強硬政策 即 積極的인 單事的 挑發政策으로 내몰고 있는 實情에 있다.

(6) 中共의 對日關係

中共의 對日政策은 中共의 對美政策과 對自由陣營 外交政策의 一環으로서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을 美國으로 부터 難問시키며 그러므로써 美國의 對中共封鎖政策을 紛雜하는데 集約되어 있다고 하겠다. 慶應大學의 石川忠雄 教授는 中共의 對日政策의 基本目標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다.

1. 日本을 美國의 影響으로 부터 分難시켜서 可及的 反美容共의 中立國家로 化하게 하는 것.
2. 日本으로 하여금 두개의 中國을 認定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3. 國際社會에서 美國의 힘을 弱化시키고 日本自体의 變革을 통하여 共產陣營의 影響力を 拔大하는 것.
4. 中國의 社會主義建設에 必要한 物資와 技術을 日本으로 부터 供給받는 것.

이제 우리는 中共이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어떠한 外交政策을 取하여 왔는가를 簡

單히 살펴 보기로 하자

① 中共政權이 樹立하자 中共은 美國이 中共을 排除한 對日平和條約에 의하여 美國의 衛星國家로 育成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戰後 威勢를 떨친 左翼系列을 煽動 動員하여 反美的 社會主義政權을 樹立하려 하였고 그것이 안되자 中共式 暴力革命을 企圖하였다. 그 結果는 悲慘한 失敗로 끝나자 1953年頃 부터는 政治的 承認이 없는 채로 對日微笑政策과 民間外交를 通하여 兩國間의 貿易을 促進하는 한편 國交의 正常化를 通하여 日本을 漸進的으로 美國으로 부터 難問시켜 中立化의 方向으로 끌고 가도록 工作을 活潑히 展開하였다.

그러나 日本의 經濟가 復興되고 政局이 安定化하여 社會主義化 中立化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日美의 日本政府의 日美間의 紐帶와 反共的 態度가 強化되자 中共은 (1) 中國敵對視를 中止할 것, (2) 「두 개의 中國」을 造作할 陰謀에 加担하지 않을 것 (3) 日中兩國關係의 正常化를 妨害하지 않을 것이라는 三原則을

~124~

提示하고⁽²¹⁾ 日本政府内の 極右反共派를 孤立시킬 것을 副策하였다. 그 후 數 많은 社會黨 또는 自民黨의 議會議員團이 中共의 招待를 받아 中共을 訪問한 것도 그 움직임의 一環이다. 한편 中共은 左翼政黨과 輿論指導者들에게 工作하여 日美安保條約을 廢棄하고 日本의 再武裝을 反對하는 所謂 平和運動을 裏面에서 積極 造作 支援하여 왔다.

日本의 再武裝과 軍事基地 撤回를 要求하여 온 中共으로서 가장 많이 神經을 써온 것은 日美安保條約과 對中共 軍事戰略基地인 오키나와인 것은 두말 할 必要가 없는 일이다. 今후에 들어서 美國은 오키나와 早速히 日本에게 返還하되 美軍의 作戰의 必要에 의하여 隨時로

(21) 「中共圖의 將來」 汎文社 서울 pp. 309~407

石川忠雄, 「中共의 對日政策」 金俊輝 編

「中國政治經濟線覽」 アジア 政經学会

東京

浜野洋 「中日關係」 pp. 348~362

核基地를 使用할 權利를 留保할 것을 提議
 하였는데 이것은 오키나와에 核基地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日本과 共同으로 使用하자는 뜻이며
 이에 對하여 核基地 徹廢와 美軍의 使用權 否認
 을 主張하는 輿論이 분분하였던 中 지난 11
 月 19日에 華府에 간 佐藤首相은 비슨과 會談하
 여 다음과 같은 合意를 보았다.

(1) 오키나와는 1972年 以內에 返還하되
 美日兩國의 安保上 必要하다면 美軍基地를 維持하
 며 萬一 亞細亞地域에 危急事態가 나면 核基地
 로 使用할 權限을 美軍이 갖는다.

(2) 越南戰이 오키나와가 日本에 返還되기 前에
 끝나지 않을 때 返還問題는 그때 가서 다시
 協議한다.

오키나와 返還問題는 亞細亞의 安保上 매우
 重要함으로 보다 嚴密한 檢討와 分析을 要한다.

美國이 最近에 와서 오키나와를 返還하겠다는
 意圖는 무엇때문일까? 이것은 크게 보아서 非
 美國化 政策의 一環이며 이미 亞細亞에서 最
 強國으로 登場한 日本에게 亞細亞의 安保

를 위하여 美國을 代身하여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美軍戰略의 必要에 의하여 그 核基地를 再建할 權利를 留保한다는 것은 萬一 日本이 共產侵略에 積極적으로 하지 못할 때는 美軍이 그 核基地를 獨自적으로라도 使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政府는 亞細亞地域에서 危急事態가 發生하지 않는 限 軍基地 使用은 日本政府가 管掌하며 또 日美兩國의 安保上 必要하지 않을 때 美軍核基地를 두지 않겠다는 意思를 그 合意事項에 反映시켰던 것이다. 이 交渉에 있어 美國은 日本을 對中共軍事基地로 化하게 하는 데 어느 程度 成功해서 졌을 것이고 日本은 오키나와의 無償 返還約束을 받았으니 좋고 亞細亞 安保의 重責을 많이 지지 않았으니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看廻할 수 없는 것은 日本의 對中共 態度이다.

日本은 終戰以來 美中對決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政經分難의 이름으로 美國에 기대어서 中共의 德을 보아 왔고, 또 中共威脅을 핑계삼아

美國의 至極한 惠澤을 보아왔기 때문에 事實은 어느 나라에도 忠實하지 않은 代身 어느 나라에도 特別한 惡感을 갖지 않는 나라이다. 이와같이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關係없이 商利追求에 만 關心을 갖는 日本이 果然 美國이 期待하는 것처럼 鄧錫亞의 安保에 責任感을 느끼며 中共封鎖政策을 固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日本의 政局을 보아서는 自民黨이 繼續 執權하며 日美安保條約의 更新도 樂觀視 되기는 하더라도 日本의 再武裝을 위한 憲法改正에 이르기까지는 여러가지 難關이 가로 놓여 있으며 設使 日本이 再武裝한다고 하더라도 美國과 같은 反共路線으로 나가지 않을 것임은 明白한 事實이다. 오히려 日本은 그 莫強의 國力을 가지고 美國의 極東政策, 對中政策에 制動的 役割을 하며 中美關係의 調停 役割을 自担할 可能性이 많은 것 같다. 中共으로서 는 日本의 이러한 立場에 아쉬운대로 큰 期待로 걸며 美日關係를 難關시키려 든다는 것은 不問可知의 事實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은 中共의 中間地帶의 理論인데 이 理論에 의하면 美國과 社會主義 國家間에는 두 개의 中間地帶가 있다. (22) 第一 中間地帶는 亞細亞, 亞弗利加, 라틴 아메리카의 後進國이며 이들은 積極的으로 反美, 反소 陣營에 參與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第二의 中間地帶는 美國과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對立할 要因을 內包하는 資本主義 國家로서 日本은 이에 屬한다. 中共으로서는 이러한 第二 中間地帶의 國家와 國交를 正常化 하므로써 反美的 傾向을 갖는 나라와 提攜하여 美國을 完全 孤立시키겠다는 것인 바 現在 日本의 輿件으로 보아 이렇게 될 可能性이 全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現在 日本은 中共이나 소聯과 政治的으로 軍事的으로는 對決할 수 있으나 經濟的으로 對立할 立場에는 있지 않다. 軍事的 對立은 日本 自身이 不願하는 바

(22) 雜誌書 石川忠雄의 論文參照 P. 408

이며 政治的으로 對決하는 것을 中共과 蘇聯
 이 回避하면 日本이 中共에게 敵對할 根
 據가 設어지는 것이다. 反面 日本은 美
 國과 政治的으로 對立할 立場에 있지 아
 니하나 그러나 經濟的으로는 對決할 要
 因을 內含하고 있다. 아무리 美國이 極東
 이나 東南亞 또는 其他 地域에서 日本과
 의 經濟的 對立을 意識的으로 抑制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成長할 대로 成長한 日本
 의 經濟力에 對하여 一種의 緊張關係가
 發展하지 않는다는 保障이 設는 것이고
 보면 이것이 日本으로 하여금 더욱 容共的傾向
 으로 흐르게 하는 原因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더구나 美國 自身이 美蘇協調 美中協商
 의 方向으로 나서게 될 때 그 結果는 不問
 可知的 事實이다. 다시 말하면 中共은 日本
 에게 非武裝, 中立을 願했고 이것이 이루어지
 지는 않았으나 日本을 武裝, 中立의 方向으
 로 이끌도록 自國政策을 調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130~

巨觀的인 눈으로 볼 때 終戰부터 1960年代까지 亞細亞의 政局은 中美對決의 場이였다. 그러나 1970年代 부터는 이미 그 影響力이 相對的으로 弱화되고 또는 後退하고: 日本과 소聯이 그 影響力을 進出·強化할 때다.

특히 近年에 와서 소聯이 日本이나 東南亞各國에 對하여 積極的인 接近政策을 取하여 왔고 太平洋勢力으로서의 自國의 이미지와 役割을 強化하여 왔다. 이것은 첫째, 中共의 勢力이 亞細亞地域으로 빠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이고 둘째로는 美國과 英國이 亞細亞에서 물러난 다음의 亞細亞에 있어서의 勢力의 眞空狀態를 메꾸어 보려는 試圖에서 이다. 日本이 앞으로 遂行할 決定的 役割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나, 하여튼 日本이 中共의 威脅에 밀려서 美國에 기우러지는 것을 막을 만한 影響力을 行使할 것으로 看做된다. 左右間 亞細亞에서 가장 有利한 立場에 서고 앞으로 큰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것은 日本임을 認識하고 結論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7) 中共對外政策의 展望과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

— 結論 —

以上에서 中共의 對外政策의 戰略目標과 展開를 概觀하였거니와 우리가 여기서 眞正 알고 싶은 것은 未來의 展望과 그것이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일 것이다. 事實 未來에 對해서 豫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確實한 것은 모르더라도 過去부터 現在에 이르는 過程과 趨勢를 明確히 認識할 때 未來에 對한 輪廓은 어렵듯이나마 잡혀지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지껏 말해온 것을 明確하게 把握해서 未來를 豫測하는 거울로 삼자.

여지껏 論述하여 온 것을 要約한다면 다음 몇가지의 假定이 生다.

첫째 過去 十餘年 中共政權이 追究하여 본 造反外交政策은 完全히 失敗하여 이제 그 方向轉換

不可避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赫彪의 論文을 檢討함으로서 革命이 成功하는 條件으로서 두가지의 同盟이 確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먼저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이 確立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世界의規模로 擴大할 때 共產陣營의 統一과 團結이 實現되었는가 하는 말이 된다. 이미 보았듯이 中土紛爭은 共產陣營을 다시 回復할 수 없을 만큼 分裂되고 말았다. 中國과 蘇聯은 서로 資本主義國家에 對한 敵愾心보다도 훨씬 熾烈한 敵愾心を 품고 있으며 戰爭一步前에 서있는 形勢이다. 他國과의 同盟은 姑捨하고 中共의 文化大革命은 中共을 弱化시킬대로 弱化시키고 말았다.

다음 勤勞階級과 뿌르조아 지간의 同盟은 이루어졌는가 이 公式을 擴大하면 共產陣營과 美國을 除外한 모든 나라와의 連帶인데 中土紛爭과 特別히 中共의 文化大革命은 여지껏 中共에 對하여 友好的이고 協助的인 中立國家 마저도 完全히 疎外하고 말았다. 中共政權의 威信과 影響力이 지금처럼

732
됨 낮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와같이 世界革命이 成功할수 있는 契機는 無慘하게도 깨어지고 만것이다.

中國外交的 窮極目標에 비추어서 中共의 外交가 건은 成果를 評價하여 보기로 하자. 첫째 強力한 革命基地를 構築하여 中共政權의 安全保障을 強化한다는 것인데 中共의 造反外交政策이 中共의 完全을 強化시켰던가? 둘째 中共의 失地回復의 夢은 實現되기 커녕 더욱 더 멀어진 것이 아닌가? 셋째 中共의 國際的威信이 높아졌는가는 再論할 必要도 없는 일이다. 이렇다면 中共의 外交政策은 完全히 失敗하였고 더 늦기전에 根本的인 方向轉換이 切實하게 要求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²³⁾

그렇다면 中共이 그 國家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서 어느 方向으로 轉換할수 있는가를 客觀적으로 考察해 보자. 中共이 앞으로 完全崩壞를 肩免하

註 23) China and the U.S. Far Eastern policy, p. 291
Zagoria의 證言 参照 P 290

그러면 造反外交의 反對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即 反美·反소가 아니라 어느 程度의 容美·容소의 政策略線으로 나가는 것이 不可避할 것 같다.

그리기 때문에 1969年4月 第9全院大會 以後 「造反外交」와는 性格이 다른 緩和되고 伸縮性 있는 外交政策을 取하게 되었다. 中소紛爭後 斷絶된 外交關係 (610國)를 再開하고 610國으로 부터 召喚한 大使를 다시 派遣하는 한편 美國이나 소聯하고도 協商의 門을 트려고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第9全大會의 文獻을 檢討해 볼때 「造反外交」의 路線이 再強調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現執權層 即 毛林一黨이 權力의 座에 있는 동안 그 湖南兼質과 延安洞蜜에서 생긴 世界觀이 淸算되지 않는限 中共和外交의 方向轉換은 바꿀수 없는 筈일것 같다. 그들이 불러나고 보다 現實主義的이고 合理主義的인 非이데올로기的 엘리트가 執權하지 않는限 中共和은 이미 빠진 自身의 陷阱에서 出아 날 길이 없을 것이다. 24

註 24) Robert A. Scalapino (ed) Communist Penetration in Asia (N.Y: Praetice Hall) 1965 中譯論叢照

둘째 여지껏 中共의 膨脹主義와 革命輸出을 抑
 制하여 오던 美國의 中共 封鎖政策도 木是 成功
 했다고는 볼수 없으며 美國도 政策變更의 必要를
 切實히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所
 謂 亞細亞로 부터의 非美國化政策인데 그것도 現
 在의 諸般契機으로 보아서 實現性이 있는 것이
 아님은 이미 말한바와 같다. 다만 確實한 것은
 亞細亞에 있어서 中共의 影響力이 弱화된 反面
 美國도 挫折感과 自己懷疑 때문에 亞細亞로 부터
 의 后退를 서둘르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여기서 그 極置가 強調되고 役割이 擴大
 된 것은 日本이다. 日本은 美國과 中共의 対立
 속에서 이데오로기에 拘得됨이 없는 非常한 商魂을
 縱橫無盡으로 發揮하여 거의 美國과 苏联 다음으
 로 肉迫하는 國力을 構築하는데 成功하였다. 日
 本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그 地位와 役割로 因하
 여 앞으로는 그 國力以上の 影響力을 行使할 것
 이 予見된다. 그들이 設使 再武裝을 한다고 하
 여도 美國을 代身하는 反共陣營의 主軸 役割을 할

236
것은 옳으나 그런대로 中國과 美國間의 權
衡은 以上の 影響力을 發揮할런지도 모를 일
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理由를 말한다면 첫째
日本國內의 輿論과 容共反美的인 野黨의 壓迫을
이무리 執權黨이라고 해도 完全히 無視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둘째 日本이 世界의 一等國家로
成長함에 따라 美國과의 利害關係가 보다 자주
衝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日本은 武裝을
옌더라도 中共과의 武力對決은 極力 回避할 것이
고 中共 亦是 그럴 것이다. 넷째 朝鮮도 亞細
亞地域에 進出해 오면서 日本과 經濟적으로 文化
적으로 接觸하는 한편 政治적으로 日本을 最大
限度로 反美·反中共路線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
문이다.

前述한바와 같이 亞細亞의 舞臺에는 中共과 美
國이 여지껏 主演俳優노릇을 하여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日本과 朝鮮이라는 두 主人公俳優가 登場
하여 이제부터 네사람의 主演俳優에 의해서 드라
마가 展開될 판이다. 네 國家가 對決했을 때의

國際關係는 두 強國이 對決하는 國際關係와는 判然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四大強國의 牽制와 均衡이 있는 곳에서 統韓의 展望은 매우 다를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中共은 여지껏 韓國을 어떻게 보아왔을까? 中共은 北僞를 比較的 健全한? 同盟國家로 보고 韓國은 韓國動亂時에 敵對했던 關係로 아나 美國이 附屬된 敵性國家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同盟國을 도와서 美國勢力을 韓國에서 驅逐하여 共產統一을 이루도록 힘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中共이나 美國의 外交政策이 變化하여 敵對關係로 부터 協商關係로 바뀌고 또 日本의 影響力이 美國에 못지 않게 強化하였을 때 中共은 未化統一의 꿈을 拋棄하고 어떠한 妥協과 協商을 찾아서 나올런지도 모를 일이다.

中共의 中間地帶의 理論으로 볼때 韓國은 第一 中間地帶인 北僞는 同盟國이었다. 그러나 日本이 第二 中間地帶가 되어 있고 또 韓國의 經濟가 復하고 政治적으로 安定하게 되면 韓國도 第二 中間地帶로 昇格이 되는 것이다. 한편 北僞는 中

紛爭에 끝내 中共便에 슌지 못하고 朝鮮修正主義 反逆徒黨에 附和雷同하고 追從하였으나 同盟國이라 기 보다는 敵性國家이다. 그러나 中共이 造反外 交를 大幅 緩和한 結果 今年 1986年 10月 1日 北京에서 열린 中華人民共和國 建國二十周年을 祝하는 國慶節에는 崔庸健이 外國代表中 唯一한 國家元首로서 天安門樓上에 섰다고 하니 어떠한 準同盟國家 乃至 第一中間地帶에 屬하는 것이 될 런지도 모른다.

萬一 第二中間地帶과 準同盟國 乃至 第一中間地 帶를 併合 統一하려고 할때 中共은 어떻게 나올 지인가 正常的인 環境 속에서 이것이 坐視될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境選에 는 坐視할 수도 있는 일이다. 첫째 第一中間地 帶가 第二中間地帶를 併合해서 보다 第一中間地帶 化 될수 있다고 생각할 때 둘째는 第一中間地帶 라도 그 政權을 몹시 미워하여 그 破滅을 보기를 願하나 달리 그것을 處理하지 못할 때 셋째 第一中間地帶가 第二中間地帶에 吸收 併合되는 것 을 願하지는 않으나 內部的 分裂 混亂 弱화로

어떻게 介入할 힘이 있을 때 이 세가지 境遇에
 韓國統一이 可能하며 또 그 實現성이 不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筆者만의 希望的인 推測인가? 적
 어도 두 나라가 對決할 때의 國際環境 보다는
 此나라가 對峙하여 相互索制하는 國際環境 속에서
 統一의 展望은 더욱 밝을 것이라 함을 疑心을
 사람은 設을 것이다.



中共의 세계戰略과 韓國統一

(1) 中共의 國家目標과 國家戰略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그 나라의 活動은 國家目標의 達成을 追求하며 이 國家目標은 國家活動의 動機임과 同時에 國家政策의 目標로 된다. 國家目標은 國家의 存立과 發展을 爲하여 不可欠한 要素 다시 말해서 國家安全保障·繁榮·國威에 關한 것을 內包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中共이 追求해 온 國家目標을 單純히 그것이 이데올로기상으로 共產政權이기 때문에 追求해 온 것이라고 規定하는 것은 理論上으로나 實際적으로 다 같이 妥當치 않은 抽象論이다.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政策이 追求하는 目標에는 政權의 交替나 이데올로기의 變化에 關係없이 歷史적으로 追求되어 오는 傳統的인 要素와 內的 狀況의 變化에 따르는 可變的인 要素가 混合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中共의 目標을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實事 오늘날 中共이 共產政權이 아니

~142~
있다고 하더라도 追求할 수 밖에 없는 中國固有
의 傳統的인 目標과 이데올로기상으로 共產政權이
기 때문에 派生되어 나오는 目標의 두 側面을
다 같이 考慮해야 한다 (註1)

國家의 存立과 發展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先行
條件은 國家安全保障이다. 安全保障은 領土의 保全
이나 統一을 意味하며 이것은 中國에 있어서도
歷史적으로 가장 重要한 基本的인 國家目標로 되
어왔다. 오늘날 中共은 過去에 그들의 領土의
一部였거나 또는 었다고 생각하고 地域을 다시
收復하고자 하며 그 代表的인 例가 西藏에 對
한 征服試圖와 台灣의 併合을 爲한 努力으로 나
타나고 있다. 西藏과 台灣에 對한 中共의 立場
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好戰的 冒險主
義라는 手法上的 差異를 排除한다면 中國大陸을
支配하고 어떠한 形態의 政權의 立場과도 本質的

(註1) Morton H. Halperin,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p 67. 又 拙稿 國家利益과 國家政策
pp 142 ~ 149.

인 差異가 別로 있을 것이다.

둘째로 國際地位向上이라는 面에서는 短期的으로
 는 亞細亞에서의 指導權의 確立 그리고 長期的으로
 는 國際的 大國으로서의 發言權의 要求가 重要
 한 目標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目標은 中共
 이 標榜하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結 되어 亞細
 亞 나아가서는 A·A地域의 共產政權이나 共產黨
 에 對한 支援으로 나타나며 또 國際共產主義運動
 의 領導權의 掌握을 爲해서인 그들이 옳다고 生
 각하는 正統的 스탈스·레닌主義를 固守하여 反
 蘇 修正主義鬭爭으로 나타나고 있다. 中共이 그
 들의 支配領域을 擴大하고자 하는 努力은 資本主
 義이다. 非共產政權 또는 帝國主義의 打倒를 前
 提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國際政治狀況에서 보
 아 反美帝國主義鬭爭으로 直結되고 있다.

앞에서 指摘한 目標은 大體로 對外的인 目標이
 다 中共은 이를 對外的인 目標과 더불어 對內
 的인 目標을 가지고 있다.

即 그들이 標榜하고 對外的인 目標은 卽째로
 共產獨裁政權의 維持 卽째로 經濟成長 그리고

다섯째로 社會主義的 産業化를 들수 있다. 여기에서 經濟成長과 産業化라는 目標은 繁榮이라는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爲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中共의 對外的인 目標로서 領土 保全이나 統一 및 國際的地位向上 그리고 對內的인 目標로서 政權의 維持·經濟成長·産業化를 들었다.

그러나 中共의 對外活動이나 戰略은 恒常 國內 政治上的 要求 다시 말해서 對內的 目標의 要求에 隸屬되어 왔다. 即 中共은 第一次的으로는 政權의 維持와 經濟成長 그리고 産業化의 要求에 依하여 對外的으로는 反美帝國主義鬭爭과 反蘇修正主義鬭爭 그리고 對 A·A 諸國과의 友好 및 統一 戰線이라는 四大 外交支柱가 形成되어 왔다. 中共의 對外 活動이 基本的으로 對內的인 要求에 依하여 支配되어 왔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를 評價하는 것은 特히 中共의 軍事力의 性格을 判斷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인 前提條件이 된다. 中共이 政權樹立 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豫算 規模에서 보면 一般的으로 對內的 目標과 政權維

持에 重要性을 두고 왔음을 알 수 있다. 通說
 的으로 中共이 好戰的이며 軍事的 政權이라고 한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豫算上
 으로 보면 軍事費는 相對的으로 소박하며 強力한
 空軍力을 要하는 攻擊作戰 모양도 自由中國이나
 美國의 威脅에 對하여 領土를 防衛하기 爲한 防
 禦目的을 爲主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豫算上의 防禦的性格 外에 美國에
 對한 中共의 態度를 잘 理解해야 한다. 中共은
 美國과의 直接的인 衝突을 避하기 爲하여 많은
 努力을 써왔다. 美國과의 直接的인 衝突을 避하
 고져 하는 戰略은 內戰時代의 產物이다.

中共은 台灣의 奪還과 蔣政權의 除去에 基本的인
 重要性을 두었으나 1950年 美國이 台灣의 防
 衛에 介入하게된 然後 美國과 直接的인 軍事的인
 衝突을 일으키는 行動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唯一의 反應은 大端러 조심스럽게 일으키는 金門
 ·馬祖島에 對한 砲擊이었다. 印支나 印度에 對
 한 中共의 行動도 美國의 攻擊을 直接的으로 볼
 리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恐怖感에 依하여 基本

~146~
的인 影響을 받았다.

이와 같은 中共의 基本立場을 理解하는 것이 그의 軍事戰略이나 軍事力의 性格을 理解하는데 앞서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의 軍事戰略을 理解하기 앞서 果然 現在의 國際政治秩序를 中共이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2) 中共의 世界戰略判斷

中共은 다른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國際的 狀況 判斷을 基本的으로 重要視하고 있다. 中共의 主張에 依하면 戰略을 樹立決定하는 第一段階는 現段階의 歷史的 基本性格을 把握하는데 있다. 따라서 中共의 戰略이나 意圖를 理解하는 關鍵은 그들이 現在의 國際關係를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나를 理解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中共의 世界戰略判斷을 理解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은 美蘇에 依한 世界的 領導權의 確立을 爲한 試圖가 歷史的 現段階의 特徵이라고 본다.

(註 2) 그러기 때문에 中共은 公式的으로 美蘇에 依한 世界支配를 즐기게 非難하고 있다. 이와 같은 美蘇의 試圖는 西方側에는 和解 그리고 蘇聯에서는 平和共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中共은 이것을 美蘇가 世界를 두개의 勢力圈으로 分割하여 美蘇 以外の 다른 國家가 國際社會에서 그의 地位를 向上 시키는데 必要한 힘 特히 核能力을 開發하지 못하겠음 妨害하기 爲한 結托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이것은 中共이 早速한 時日內에 台灣의 奪還이나 核武器의 保有를 不可能하게 만드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極力 抵抗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中共은 美蘇의 結托이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도 危險한 存在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은 蘇聯이 正統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버리고 修正主義路線을 따르게 되면 革命에 無關心하게 되며 따라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將來가 重大한 威脅을 받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註 2) Morton H. Halperin, op cit p 16

이러한 戰略判斷에서 中共은 美蘇에 依한 世界
支配體制를 打破하고자 한다. 그러나 核第二擊能
力을 가지는 美蘇에 比하면 中共의 國力은 너무
나 劣等하다. 따라서 中共은 美蘇獨占體制에 反
對하며, 終極的으로는 그것을 打破할 수 있는 第
三의 國家群이 出現하며 새로운 國際情勢가 展開
될 것을 期待하여 왔다. 이를 第三의 國家群이
美蘇과는 두개의 超強國에 依한 現狀維持에 反對
하며 또 그 支配에 抵抗하므로서 美蘇結托에 依
한 世界支配秩序를 撤廢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의 이와 같은 第三의 國家群에 加担케 할 것
으로 期待하는 國家는 그 自身 外에 佛蘭西와
日本이라고 보이며 또 歐羅巴와 其他 地域의
國家들이 이에 加担케 할 것을 期待하고 있다.
亞阿地域의 新生國家에 對한 中共의 立場은
바로 이와 같은 美蘇支配體制를 打破하기 爲
하여 第三 國家群을 形成하려는 世界戰略의
一環으로 理解된다. 다시 말해서 亞阿地域에 對
한 友好關係의 摸索은 反蘇修正主義 閥爭과 反美帝
國主義 閥爭을 爲한 統一戰線의 形成을 意味하며

國內 革命戰爭에 適用했던 農村에 依하여 都市를 包圍陷落시킨다는 革命戰略을 國際舞臺에 擴大하여 援用 適用하고 있다. 美國과 蘇聯은 世界的 都市이며 反蘇修正主義鬭爭과 反美帝國主義鬭爭에 있어서 亞阿地域은 世界的 農村으로 보고 있다. 中共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當面課題는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美蘇에 依한 包圍網을 打破하여 突破口를 찾아 내는데 있다. 中共이 第三 國家群에 對한 期待는 1965年 亞阿會議의 提議로서 絶頂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이 會議가 流産되었음은 勿論 同年에 있던 印尼의 9.30 쿠데타 이것을 前後하여 일어난 阿弗利加的 右傾化 쿠데타 그리고 國內的으로 文化大革命에 依한 主流派 對 冥權派 間의 權力鬭爭으로 그의 對外活動이 基盤을 喪失하여 萎縮하게 되어 亞阿地域에 미칠 수 있는 그의 影響力이 限界處에 부딪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其間 中共은 그의 政權의 恒久的 安全性에 對한 自信을 喪失하지 않았다. 지난 1960年과 1961년에 겪은 國內的인 危機는

中共으로서는 重大한 것이 아닐 수 없다. 自然災害와 人民公社의 失敗에서 온 農業의 危機를 克服했음은 勿論 中蘇紛爭의 激化에 따라 蘇聯技術者가 撤回하게 되어 産業에 重大한 危機를 造成하고 同時에 國際적으로도 孤立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中共의 重大한 危機時代를 美國이 結果적으로 利用하지 않았기 때문에 中共은 從來에 느껴오던 美國의 支援에 依한 自由中國의 大規模的인 暴動에 對한 威脅을 再評價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從來와는 달리 自由中國이나 本土內의 어떠한 勢力도 中共政權의 維持에 對하여 아무런 重大한 威脅要素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더욱 큰 自信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中共의 自己政權에 對한 確信은 越南戰爭을 통하여 더욱 굳어진 것 같다. 國內적으로는 文化大革命에 依한 政治的 混雜이 極甚했고 對外的으로는 越南戰의 抗戰에 따라 美軍에 依한 中共本土에 對한 奇襲攻襲의 威脅을 느꼈다. 그러나 美國은 結果적으로 이러한 不安狀態를 利用하지 않았음은 勿論 越南戰의 結果를 爲하여 一方的인

~17~

撤收를 段階的으로 實行하여 되었다. 越南에서의 美軍의 一方的인 撤收를 中共은 毛澤東의 人民戰爭戰略의 勝利라고 評價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自信에 對한 確信은 中蘇對立의 激化와 正比例해서 成長해 왔다. 中共으로서는 늘 中共政權의 破壞를 爲한 美軍攻擊의 可能性에 對한 不安感에 사로잡혀 왔다. 中共이 美軍攻擊의 不安感에 사로잡히는 限 中蘇紛爭을 決裂狀態에 까지 惡化一路로 擴大시킬 수는 決코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蘇紛爭이 決裂狀態를 넘어서 그것도 越南戰의 渦中에서 國境紛爭을 들러 싹고 戰爭一步前 狀態에서까지 到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中蘇關係의 惡化狀態를 一面에서 본다면 美國에 依한 威脅意識의 漸次的인 解消過程에서 얻어진 中共側의 自信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結果적으로 中共은 그들의 目的과 成功可能性에 對한 信念을 얻게 되었다.

(3) 中共의 戰略思想

앞에指摘한 中共의 自己政權에 對한 信念은 毛澤東의 戰略思想에서 보아도 明白하다.

毛澤東이 鬭爭의 最高形態는 戰爭이며 組織의 最高形態는 軍隊라 하여 暴力이 國家目標의 達成을 爲한 正當한 手段이라고 한다 (註3) 銃砲에서 政權이 誕生한다고 하고 政治가 軍事力을 統制해야 한다고 하여 軍(軍事)에 對한 黨(政治)의 優位基盤을 確立하였다.

毛澤東 戰略思想의 基本原理는 無에서 有로 發展하며 小에서 大로 發展하여 終極的으로 國家目標을 達成할 수 있는 立場을 構築한다는 觀念에 있다. 그는 아무리 弱한 國家라 하더라도 持久鬭爭에 依하여 漸次的으로 그 力量을 強化하고 反面에 敵의 力量을 弱화시키므로서 壓倒的으로 優越한 國家에 對해서도 終極的으로 勝利할 수 있다고 強調한다. 中共은 이와 같은 戰略은 內戰

(註3) 毛澤東選集 三一書房訳 第四卷 P 48

時代에 發展 適用시키고 今日の 國際關係에 拡大 適用시키고자 한다.

毛澤東의 基本戰略은 農村에 依하여 부르조와의 牙城인 都市를 包圍陷落시킨다는 包圍戰略이다. 이 包圍戰略은 無에서 有로 發展하고 小에서 大로 發展하여 壓倒的으로 優越한 敵을 敗北 시키기 爲하여서는 持久戰爭이 必要하게 되어 時間의 規處에서 持久戰敎義로 發展되었다. 또 이 包圍戰略은 用兵 作戰에 있어서 게릴라를 中心으로 하였기 때문에 革命的 게릴라戰의 敎義로 發展했다 (註4).

그는 必勝의 信念에서 戰略的으로는 敵을 過少評價하되 戰術的으로 慎重을 期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그의 主張은 오늘날 對美關係에서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適切한 戰略만 使用하여 持久戰으로 끌고 가면 長期的인 眼目에서는 終極的으로는 美國은 敗北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當面的으로는 美國이 壓倒的으로 優越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慎重을 期해야 한다.

(註4) Morton H. Halperin; "Mao Tse-tung's Revolutionary Strategy and Peking's International Behavi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IX, March 1965, pp 80-99

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美國이 아무리 強大
한 核武器를 가지고 있다해도 終極的으로 는 「종
이 호랑이」에 不過하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그
는 美國이 아무리 많은 核武器를 가지고 中共을
攻撃한다고 해도 中共을 完全히 敗北시킬 수는
없으며 戰爭의 終極的인 勝敗를 決定하는 것은
武器가 아니라 人間이라고 主張한다. 이것은 核
武器가 人間을 殺傷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一國의 政治的 方向을 決定하는 것은 武
器體系가 아니라 人間의 意志라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이것은 軍事的으로 脆弱한 中國共產黨이
越等하게 強力한 國府軍이나 日本軍을 敵으로 하
여 이것을 敗北시키기 爲하여서는 大衆의 政治的
支持가 必要하게 되어 武器보다도 人間 다시 말
해서 革命精神의 鼓吹가 不可欠 하였다는 歷史的
經驗의 反映이다. 이리하여 物質的으로 貧困하였
던 弱者의 戰略인 毛澤東의 戰略은 物質的으로
豊富하여 压倒的으로 優越한 裝備의 役割을 앞세
우는 西歐의 傳統的인 産業動員論에 代身하여 毛
澤東이 투철한 革命精神과 政治的 忠誠心 그리고

量的으로 많은 人的資源을 活用하는 政治的 動員
論을 發展시켰다.

(4) 中共의 國家軍事戰略의 構造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毛澤東의 基本戰略은
革命戰爭戰略이며 이것은 內容上 包圍戰略·持久戰
略·게릴라戰略을 그 特色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毛澤東의 革命戰爭戰略을 林彪가 端的으로
人民戰爭戰略이라고 하여 代弁하고 있다.

毛澤東 自身은 人民戰爭戰略이라는 말을 많이 使
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革命戰爭戰略은
人民戰爭戰略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毛澤東
의 革命戰爭戰略은 戰爭의 主体를 人民大衆이라는
現狀에서 捕捉할 때 人民戰爭戰略으로 理解되고
있다.

人民戰爭戰略은 美蘇 特히 부르조와의 軍事路線
을 代弁하는 唯武器論에 對한 對逆物이다. 이것
은 軍의 正規化·近代化를 拒否하며 戰爭 勝敗
를 左右하는 것이 物質이 아니라 人間이라고 보

는 立場이다. 羅端卿과 彭德懷를 中心으로 하는 軍의 近代化論者는 이미 唯武器論者라 하여 肅清되고 林彪를 中心으로 하는 人民戰爭論者들이 軍을 支配하게 되었다. 그러나 核時代의 中共의 國家軍事 戰略은 決코 人民戰爭戰略 一辺倒는 아니다.

많은 財政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核武器의 開發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오늘날의 中共은 傳統的인 人民戰爭戰略과 核戰略의 二元性을 그 戰略構造의 特徵으로 하고 있다 (註5)

中共은 베트남戰爭이 人民戰爭戰略의 典型的인 試驗場이며 또 베트남戰爭에서 人民戰爭戰略이 일단 成功을 거두었다고 보는 것이 中共의 立場이다. 中共은 亞阿地域에 對하여 毛澤東式 人民戰爭戰略을 展開하여 革命을 輸出하고자 試圖해 왔다. 오늘날과 같은 核時代에 中共이 人民戰爭戰略을 그대로 重要視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毛澤東의 基本戰略이라는데 그 全部의 要因이 있는

(註5) Alice Langley Hsieh, Communist China's Strategy in the Nuclear Era pp139~151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中共 나름의 核時代의 戰略判斷을 反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오늘날 美蘇間에 核을 中心으로 하여 戰略的 均衡이 維持되어 어떠한 形態의 小規模의 在來式戰爭도 이것이 拔戰되어 核全面戰爭으로 發展될 憂慮가 多分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抑制되고 그 代身에 戰爭이 國家間의 戰爭보다도 國內的인 戰爭 卽 非正規的인 內戰으로 陰性化되고 內在化되는 것이 革命의 輸出을 爲하여 效果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中共이 核時代에 있어서의 人民戰爭戰略과 核戰略의 兩者의 折衷主義에서 그 戰略構造가 二元構造로 되어 있는 것은 將次에 美國·蘇聯·中共의 三者間에 核均衡을 만들어 내어 結果적으로 人民戰爭戰略을 展開하는데 有利한 狀況을 發見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中共의 戰略은 對蘇 對美의 兩面作戰을 前提로 하고 있다. 中共의 戰略을 評價할 때 가장 重要的한 것은 中共은 抗日戰爭 以來의 戰略的 經驗을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나를 理解하는데 있다. 毛澤東이 核武器를 保有하는 美國을 「종이 호랑

이라고 보는 限 그의 戰略은 核武器中心의 戰略 일 수는 없다.

抗日戰爭時代의 中共과 오늘날의 中共의 戰略의 가장 큰 差異점은 첫째로 抗日戰爭 當時의 戰略 目標이 「日本帝國主義 打倒」에 集中되어 있는데 反하여 오늘날의 戰略目標은 「反美帝國主義 打倒」와 「反蘇修正主義 打倒」로 變化되었다는 데 있다. 둘째의 差異점은 戰場이 中國大陸에서 亞細亞 阿非利加 그리고 中南美를 包含하는 全世界에 擴大되었다는 點에 있다. 다시 말해서 「中國民族의 解放」에서 「全世界 被壓迫民族의 解放」으로 擴大되었다는 點에 있다. 따라서 中共의 戰略은 大哥哥의 見地에서는 世界解放戰爭 그리고 小哥哥의 見地에서는 祖國防衛의 두가지로 正分되며 이 兩者는 密着關係에 있다.)

中共의 戰略은 抗日戰爭時代의 戰略을 量的으로 擴大한 것이지만 質的으로는 根本的인 差異가 없다. 林彪가 主張하는 人民戰爭戰略이 바로 그것이다. 中共은 農村에 依하여 都市를 包圍하던 抗日戰爭時代의 戰略을 世界戰略으로 擴大 發展시

었다. 林彪는 美國과 歐羅巴를 世界의 都市로
보고 亞阿 그리고 中南美地域을 世界의 農村으로
보고 世界革命의 中心地를 世界人口의 圧倒的 多
數를 占하는 亞阿 그리고 中南美地域의 革命闘爭
에서 찾고져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中共은 亞阿 그리고 中
南美地域의 革命闘爭을 그의 軍隊를 派遣하여 支
援하는 立場은 取하고져 하지 않는다. 中共은
民族解放闘爭에 있어서 土着的 要素를 強調하여
革命은 그 나라 人民이 스스로 하며 다른 나라
가 이에 代身할 수 없다고 強調한다. 이와 같
은 中共의 態度는 베트남 戰爭에 처한 그들의
立場을 端的으로 나타내며 이 뜻에 있어 蘇聯과
그 立場을 달리하고 있다.

中共의 抗日戰爭時代의 戰略은 베트남戰略에 그
대로 계승되어 있으며 對美 祖國防衛戰略에도 그
대로 適用될 것임이 틀림없다. 中共이 가장 바
라는 것은 高度의 裝備을 한 美軍이 中共本土에
輿地 靚수이 들어와서 進擊해 주는데 있을 것이
다. 이때 中共의 戰略戰術은 正規軍은 余備로서

後退시키는 反面에 大規模의 民兵을 動員하여 人海戰術으로 美軍을 包圍하여 過度하게 늘어난 補給線을 攪亂시킬 것이다. 그리고 美軍의 爆撃에 對해서는 地下에 굴을 파서 重要施設은 疎開시키는 戰法을 取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基本的으로 케릴라戰이며 또 이것과 同時에 남겨둔 優勢한 正規軍을 集結시켜 圧倒的으로 優越한 兵力을 가지고 分散된 美軍의 小部隊를 包圍殲滅하는 運動戰을 兼用할 것이다.

民族의 運命을 거는 決戰을 회피하는 그들의 戰略思想에서 보아 雙方이 大軍을 直接 對峙시켜 勝敗를 판가름 하는 決戰은 積極的으로 피할 것이다.

(5) 中共이 核武器를 開發하게된 動機

앞에서 中共의 戰略構造가 人民戰爭戰略과 核戰略의 二元構造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中心이 되는 것은 人民戰爭戰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中共이 核武器를 開發하게된 實質的인 動機는 무엇일

카?

美蘇共存이 질어감에 따라 西方側에서는 蘇聯이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으리라는 信念이 늘어가는 反面에 中共의 軍事力 特히 核能力이 커져감에 따라 軍事戰略家들은 中共에 더욱 큰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關心은 中蘇紛爭의 激化와 베트남戰爭을 고비로 하여 더욱 促進되고 中共의 核威脅에 처한 요격미사일의 配置까지 考慮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西方側의 動向의 밑바닥에는 中共이 核戰爭의 可恐性을 認識하지 못하고 事實上 核戰爭을 바라고 있다는 評價가 前提되어 있다. 이것은 中共에 처한 그릇된 判斷이다. 西方側이 中共을 이렇게 評價하기 까지에는 蘇聯의 作用이 적지 않았든 것으로 보아진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西方側의 對中共觀은 中蘇紛爭의 激化와 더불어 蘇聯이 그의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西方側과 和辭에 이르기 爲하여 퍼뜩인 對中共觀이 余波의 產物일 수도 있다. 中共은 核戰爭이 世界 特히 中共에 對해서 致命傷을 입힐 첫이라는

것을 모를 理가 없다. 中共의 指導者는 그들이 努力해서 産業化를 爲해서 小規模의 核戰爭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中共은 歷史의 未來에 있어 資本主義가 없애지고 共產主義가 尙界의 政府形態로 남을 것이며 中共과 蘇聯이 政治實體로서 남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中共은 核戰爭의 破壞性을 力說하는 蘇聯을 非難하였다. 그러나 中共이 核武器를 保有하기 以前의 狀態 特別 敵의 核武器所有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는 狀態에서 核戰爭의 可恐性을 強調하리라고 期待하는 그 自体가 잘못이다. 中共은 西方側이 그들이 核戰爭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誤解를 利用해 온 셈이다. 1960年代 初의 中共의 態度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時期에 있어서 西方側의 分析家들도 中共이 核戰爭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結論을 내리는 것이 通例였다.

그러나 當時만 하더라도 中共이 核戰爭을 事實上으로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이 核戰爭의 可恐性을 否認하는 立

場을 對外的으로 取었다는 것은 敵이 中共을 核
武器로 破壞하지 않을가 하는 恐怖感과 弱者意識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20次 党大會 以來로 蘇聯은 이미 核戰爭이
반드시 不可避한 것이 아니라 하여 從來의 戰爭
不可避論의 提제를 修正하였다. 이와 같은 變化는
中·蘇聯紛爭에 있어 가장 重要한 爭點의 하나로
되어 왔다. 그러나 그間에 있어 戰爭에 對한
中共의 態度에도 相當한 變化가 일어났다. 勿論
아직도 中共은 戰爭의 不可避論을 믿고 있다.
그러나 中共이 不可避하다고 믿고 있는 戰爭은
美國 또는 其他 資本主義國家와의 戰爭이 아니라
民族解放戰爭이나 資本主義 國家相互間의 戰爭에
主眼點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오늘날 中
共도 兩大陣營間의 戰爭은 不可避한 것이 아니라
고 믿게 된 듯 하다.

蘇聯과 中共을 核戰爭을 어떻게 防止할 것이냐
에 對하여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中共은 平和를
얻기 爲하여서는 戰爭을 準備해야 한다고 主張했
다. 따라서 西方側파의 核戰爭을 防止하기 爲하

~164~
方法은 共產側의 核能力과 軍事力의 強化에 集中在
고 본다. 따라서 中共은 蘇聯이 核能力에 있어서
美國보다 劣等한 地位에 놓이는 것을 拒否하
여 그것 보다도 優越한 地位를 構築하도록 努力
할 것으로 期待했다. 뿐만 아니라 中共이 核武
器를 保有하도록 蘇聯이 支援해 줄 것으로 믿어
왔다.

中共은 國際政治에서 다루는 核均衡의 役割을
看過하지 않았다. 表面上 中共은 武器보다도 人
間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力說하지만 實質的인 中
共의 立場은 이것과는 正反對로 戰略的 均衡의
重要性에 執着되어 왔다. 美蘇에 核한 核均衡을
바탕으로 國際政治秩序의 現狀維持에 不滿을 품은
中共은 核武器를 保有하지 않았기 때문에 核武器
를 保有하는 美蘇에 비해 더욱 戰略的 均衡의
重要性을 認識했다. 이리하여 中共은 歴史的인 特
定段階의 特徵을 核均衡에 依하여 評價하고자 試
圖했다. 1957年 中共이 東風이 西風을 抑圧한
다고 한 것은 核均衡이 變化함에 따라 歴史的 段
階가 變化한다고 하는데 對한 認識의 表現으로

理解된다.

中共은 1957年頃に 主要한 變化가 일어난다
 고 믿었는데 그 理由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集約表現할 수 있다 即 첫째의 理由는
 蘇聯이 美國보다도 強大해 진다고 보는데 있었고
 둘째의 理由는 蘇聯이 中共에게 核武器를 提供해
 줄것으로 믿는데 있었다 그러나 結果적으로 이
 두가지의 期待는 1966年頃に 이르러 背叛되었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同時에 中共은 蘇聯으로 부터의 孤立感에 더욱
 사로 잡히게 되었다. 1957年頃は 中共軍으로서
 는 가장 重要한 時期였다. 毛澤東 以下 中共指
 導者들은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國防新技術協定을
 締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共側의 發表에
 依하면 1957年 11月에 締結된 國防新技術協
 定에서 蘇聯이 原子彈의 生産을 中共에 提供할
 것을 約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1959年에 이
 協定을 蘇聯이 一方的으로 廢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中共은 蘇聯에 依한 約束背反과
 國際的 孤立에서 突破口를 찾기 爲하여 더욱 活

높하게 獨自的인 核開發에 全力하게 되었다.

따라서 中共의 核開發의 動機(動機)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 위에 서 있다. 即 첫째의 前提條件은 모든 強大國은 核武器를 가지고 있으며 中共은 強大國이다. 따라서 中國도 核武器를 가져야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中共이 核武器를 願하게 된것은 時期的으로는 原子武器가 重大한 힘의 基盤이며 따라서 中共도 結局 原子武器를 가져야 겠다고 決心한 1946年 以來의 일이다. 이리하여 中共에 있어 莫重한 財政的인 負擔과 科學技術上의 難處에도 不拘하고 核武器의 保有가 基本的인 念願으로 되어 왔다.

둘째의 前提條件은 美國에 依한 核攻襲에 對한 抑制力을 確保해야 겠다는데 있었다. 더욱이나 極東에서 軍事的 緊張이 늘어남에 따라서 核抑制力의 必要性을 느꼈다. 中共의 政策은 앞으로 近10年間은 美國에 對한 直接的인 威脅보다도 亞細亞에 對한 威脅으로 作用할 것이다. 美國 核攻襲에 對하여 亞細亞를 担保物로 利用하여 自國

理解된다.

中共은 1957年頃에 主要한 變化가 일어난다
고 믿었는데 그 理由는 大体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集約表現할 수 있다 即 첫째의 理由는
蘇聯이 美國보다도 強大해 진다고 보는데 있었고
둘째의 理由는 蘇聯이 中共에게 核武器를 提供해
줄것으로 믿는데 있었다 그러나 結果적으로 이
두가지의 期待는 1966年頃에 이르러 背叛되었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同時에 中共은 蘇聯으로 부터의 孤立感에 더욱
사로 잡히게 되었다. 1957年頃은 中共軍으로서
는 가장 重要한 時期였다. 毛澤東 以下 中共指
導者들은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國防新技術協定을
締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共側의 發表에
依하면 1957年 11月에 締結된 國防新技術協
定에서 蘇聯이 原子彈의 생물을 中共에 提供할
것을 約束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에 이
協定을 蘇聯이 一方的으로 廢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中共은 蘇聯에 依한 約束背反과
國際的 孤立에서 突破口를 찾기 爲하여 더욱 活

裕하게 獨自的인 核開發에 全力하게 되었다.

따라서 中共의 核開發의 動機(註6)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 위에 서 있다. 即 첫째의 前提條件은 모든 強大國은 核武器를 가지고 있으며 中共은 強大國이다. 따라서 中國도 核武器를 가져야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中共이 核武器를 願하게 된것은 時期的으로는 原子武器가 重大한 힘의 基盤이며 따라서 中共도 結局, 原子武器를 가져야 겠다고 決心한 1946年 以來의 일이다. 이리하여 中共에 있어 莫重한 財政的인 負擔과 科學技術上의 難處에도 불구하고 核武器의 保有가 基本的인 念願으로 되어 왔다.

둘째의 前提條件은 美國에 依한 核攻襲에 對한 抑制力을 確保해야 겠다는데 있었다. 더욱이나 極東에서 軍事的 緊張이 늘어남에 따라서 核抑制力의 必要性을 느꼈다. 中共의 政策은 앞으로 近10年間은 美國에 對한 直接的인 威脅보다도 亞細亞에 對한 威脅으로 作用할 것이다. 美國 核攻襲에 對하여 亞細亞를 担保物로 利用하여 自國

(註6) Morton H. Halperin, op. cit, pp 74~75

의 目標을 追求할 것이다.

세계로는 共產圈에 있어서의 領導的 地位를 構築하기 爲하여서 이다. 中蘇紛爭의 激化와 더불어 中共은 蘇聯에 對하여 成功的으로 挑戰하기 爲하여서는 確 特別 核武器의 保有가 必要하다고 느꼈다.

國際的 孤立의 打破를 爲하여 核開發에 專念한 中共은 核武器를 開發하므로써 自身을 強大國으로 登場시키고자 試圖한다. 이것과 同時에 中共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領導權의 確立 美國基地의 撤廢 및 中共支配에 對한 모든 亞細亞諸國에 依한 承認을 追求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蔣政權의 打倒와 台灣의 併吞을 追求하고 있다. 그들은 美國이 繼續 中共의 主敵이며 美國과는 어떠한 和解의 可能性도 없으며 和解를 追求하는 것은 危險한 일이며 無意味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6) 中共軍의 機能

一般論的으로 말해서 軍의 機能은 外部的인 侵略으로 부터 國土를 防衛하며 對內的인 平和維持에 參與하는데 있다. 그리고 軍은 傳統的으로 一般大衆에서 隔離되어 衣·食·住를 營爲하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나 中共軍은 그 機能에 있어 傳統的인 軍의 그것과 本質的인 差異를 가지고 있다. (中共軍)은 單純히 戰爭에만 從事하는 것이 그 任務의 全部가 아니다. 中共軍은 戰爭에 從事하는 外에 大衆을 宣傳하며 大衆을 教育하며 大衆을 武裝化하며 또 大衆을 支援하며 政權을 樹立하거나 또는 共產黨組織을 만드는 任務를 지고 있다. (註ク) 그러기 때문에 中共軍은 大衆에서 遊離되는 것이 아니라 密接히 接觸하면서 衣·食·住生活를 營爲하여 農氏의 農業을 支援하며 工場管理에 參與하며 教育에서 重大한 役割을 하며 또 政治的 組

의 目標을 追求할 것이다.

세째로는 共產圈에 있어서의 領導的 地位를 構築하기 爲하여서 이다. 中蘇紛爭의 激化와 더불어 中共은 蘇聯에 對하여 成功的으로 挑戰하기 爲하여서는 曷 特別 核武器의 保有가 必要하다고 느꼈다.

國際的 孤立의 打破를 爲하여 核開發에 專念한 中共은 核武器를 開發하으로서 自身을 強大國으로 登場시키고자 試圖한다. 이것과 同時에 中共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領導權의 確立 美國基地의 撤廢 및 中共支配에 對한 모든 亞細亞諸國에 依한 承認을 追求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蔣政權의 打倒와 台灣의 併吞을 追求하고 있다. 그들은 美國이 繼續 中共의 主敵이며 美國과는 어떠한 和解의 可能性도 없으며 和解를 追求하는 것은 危險한 일이며 無意味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7

(6) 中共軍의 機能

一般論的으로 말해서 軍의 機能은 外部的인 侵略으로 부터 國土를 防衛하며 對內的인, 平和維持에 參與하는데 있다. 그리고 軍은 傳統的으로 一般大衆에서 隔離되어 衣·食·住를 營爲하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나 中共軍은 그 機能에 있어 傳統的인 軍의 그것과 本質的인 差異를 가지고 있다. 中共軍은 單純히 戰爭에만 從事하는 것이 그 任務의 全部가 아니다. 中共軍은 戰爭에 從事하는 외에 大衆을 宣傳하며 大衆을 教育하며 大衆을 武裝化하며 또 大衆을 支援하며 政權을 樹立하거나 또는 共產黨組織을 만드는 任務를 지고 있다 (註ク) 그러기 때문에 中共軍은 大衆에서 遊離되는 것이 아니라 密接히 接觸하면서 衣·食·住生活를 營爲하여 農民의 農業을 支援하며 工場管理에 參與하며 教育에서 重大한 役割을 하며 또 政治的 組

織的 機能의全般에 걸쳐 廣泛한 機能을 다한다. 특히 이번 에 있는 文化大革命을 통하여 軍의 對 民役割이 促進되고 強化되었다. 여러가지 處에서 軍은 毛澤東思想을 實踐하는 모든 水準의 政治組織에서 唯一의 國家機關으로 되었다. 文化大革命의 初期段階에 있어 軍은 紅衛兵을 組織하는데 있어서 中心的인 役割을 하였다. 그리고 文化大革命의 後期段階 卽 여러 鬭爭集團 사이에 分裂이 極甚하여 運動 그 自体가 大混亂을 惹起했을 때 軍은 主流派를 積極的으로 支持하도록 強要되었다. 軍의 指揮官이 여러 가지의 革命組織에 進出하여 모든 水準의 行政組織과 生産機關을 支配하게 되었다. 더욱이나 지난 4월에 있는 九全大會에서 새로운 黨組織과 더불어 軍出身이 黨 權力構造에 大擧 起用되게 되었다.

이러한 處에서 中共軍은 傳統的인 近代的軍과는 그 基本立場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에 不拘하고 中共軍은 國防이라는 近代的인 軍의 傳統的인 機能을 다하고 있다. 萬一에 中共이 外部的인 重大한 武力侵攻을 받았을 경우에는 中共軍 —

~70~
正規軍을 말함 -- 은 初期段階에서는 後退하여 敵의 戰線이 너무나 擴大 分散되어 그의 勝利가 確實하게 되었을 때 正面攻襲作戰을 試圖할 것이다.

中共은 美蘇를 主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美蘇에 依한 侵略으로서 美蘇가 核奇襲攻襲을 가하여 一霎으로서 中共의 軍事力量 經濟施設 그리고 主要通信施設을 破壞하고자 하는 戰爭을 假想하고 있다 그리고 中共은 이러한 境遇에 있어 相對方의 目的이 中共의 抵抗意志의 破壞에 있으나 中共이 宏大한 領土와 莫大한 人口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結局 中共을 破壞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失敗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攻擊者가 中共本土에 對한 武力的 侵入과 더불어 核攻擊을 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人民戰爭戰略을 展開하여 攻擊者를 擊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中共은 생각하고 있다. 中共은 敵이 美國이든 蘇聯이든지 間에 空軍力 海軍力 그리고 在來式 地上火力에 있어서 圧倒적으로 優越하며 따라서 이에 對處하는 唯一 効果적인 戰略이 人民戰爭戰略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中共이 依存하는

人民戰爭戰略의 教義는 本質的으로 攻擊的인 것이
라기 보담도 防禦的인 것으로 理解된다 (註 8)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戰略教義는 中共의 現在의
輿件으로 보아 가장 適切한 것이기도 하다 交通
과 通信組織이 未備한 中共으로서는 防禦戰略이
不可避하다 單일에 攻擊戰略을 使用하려던 兵力의
輸送問題와 補給問題에 있어서 根本的인 難關에
逢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防禦戰略은 現在의
平和狀態下에서도 相對的으로 脆弱한 經濟에 過重
한 財政的 負擔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戰時
에 있어서도 軍隊가 産業基地에서 不當하게 隔難
될 必要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 人民戰爭戰略
의 最大의 弱點은 核攻擊에 대하여 中共을 防禦
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中共의 核開發을
爲한 것은 努力은 이와 같은 戰略的 靉을 매우
기 爲한 것이다.

(註 8) Michael B. Yuhuda; "China's Military
Capabilities," *Current History*, September
1969, pp. 142~149

(7) 中共의 軍事力量의 概況

이제 論한 바와 같이 核戰略을 包含하여 中共의 軍事戰略은 本質적으로 防衛적인 것이다. 中共에 있어 在來式 軍事力量의 根幹은 人民解放軍이며 이것은 約 250 万으로 推算되는데 이것은 全体的인 軍事的 可用 人的資源의 約 2%에 該當한다. 그리고 人民解放軍 外에 民兵이 있는데 2億以上の 男女로서 構成되어 있다.

民兵은 裝備나 訓練에 있어 보잘것 없다. 지금 現在로서 民兵의 不過 15% 程度의 男女가 初歩적인 軍事訓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民兵의 役割은 特히 地方에 있어서 社会的 政治的 役割의 全般을 다하며 政治的 經濟目的을 가지는 大衆組織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平和時에 있어서 民兵의 役割은 그들에게 賦與된 特定한 軍事的 役割보담도 오히려 政治的 經濟的 役割이 더 重要視되고 있다. 民兵의 基本的인 核心體는 豫備兵, 地方의 中堅幹部 그리고 黨幹部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 基本的인 核心體는 人民解放軍을

爲한 訓練된 豫備兵力을 構成한다. 그러나 民兵은 特定한 地方性을 띄우는 本質적으로 地方的인 組織이다. 따라서 民兵은 地方的인 限界를 넘어서 短時間 內에 大規模적으로 動員할 수 있는 一般的인 豫備軍은 되지 못한다. 事實上 民兵의 가장 重要한 軍事的 役割은 實質적인 武力侵攻을 받았을 경우에 發生한다. 民兵은 實質적인 武力侵攻을 받은 경우에 村落이나 人民公社를 防衛하기 爲한 地方的 防衛單位로 되며 人民解放軍을 爲한 게릴라 支援部隊로서 活動하게 된다.

中共에 있어 民兵은 侵攻한 敵에게 出血을 漲要하기 爲하여 各種의 게릴라 役割을 다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民兵이 이와 같은 게릴라 役割을 다하는 동안에 人民解放軍은 奧地에 後退하여 敵軍이 中共本土에 너무나 깊숙히 進擊하여 그 兵力이 相對적으로 孤立 分散되는 것을 기다린다. 따라서 理論上으로 본다면, 正規軍은 侵略者에 直接的으로 挑戰하여 勝利한다는 信念이 確실히 될 때까지는 敵을 斷片的으로 破壞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防衛狀態에 있어서는 中共이 主要한 戰爭에 當面했을 때 確實히 民兵이 第一次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民兵이 이와같은 役割을 하기 때문에 高度로 訓練되거나 武裝될 必要도 없다. 民兵의 圧倒的 大多數는 尙히 訓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防衛狀態에 있어서는 一見 우리가 皮相的으로 느낄 程度로 그리 크게 不便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毛澤東의 戰略思想에 依하면 莫大한 量의 民兵으로서 人海戰術을 展開하여 敵이 그 속에 包圍되겠음 하는 反面에 人民解放軍이 물속에 있는 고기와 같이 醜惡者를 擊退시키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人民의 圧倒的인 部分이 基本的으로 忠誠的이며 또 이와 같은 線에 따라 半組織化되어 있는 限 中共이 主要 侵略을 받았을 경우에 民兵은 重要한 役割을 다하게 될 것이다.

中共은 아직 經濟發展의 水準이 낮으며 産業基礎이 相對的으로 적으며 交通通信手段이 未備하기 때문에 莫大한 人員을 裝備시켜 그것을 迅速히

動員할 能力이 아직은 없다 (註9)

그러나 이와 같은 事實을 指摘하여 中共의 指導層이 高度는 近代的인 軍의 建設에 外面하고 있다고 結論짓는 것은 根本적으로 잘못이다. 事實上 이것과는 正反對로 中共은 1960年 蘇聯援助가 撤回된 以來 飛空機, 艦艇, 그리고 戰車等을 그들 스스로의 努力에 依하여 生産하고져 相當한 努力을 해 왔다. 그 一例로서 中共은 지금 MIG-19 및 MIG-21을 그들 스스로 生産하고 있다.

이러한 概況을 前提로 다음에 中共의 在來式 軍事力量과 核能力을 살펴 보기로 한다.

(8) 中共의 在來式 軍事力量

지금 現在로서 中共의 在來式 軍事力의 攻擊力量은 大端히 低位에 있다. 이와 같은 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指摘할 수 있다. (註10)

(註9) 16id 및 프린스턴 研究所長 칼·케이젠의 論文 Military Strategy, Military Forces and Arms Control

(10) 16id 및 라이사워의 論文 Transpacific Relations

即^①戰略的으로 人民戰爭戰略을 基盤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要因때문에 그 軍事力의 攻璽보다도 防衛的인 것에 더 適合하다. ②經濟力이 微弱하다. ③輸送手段이 貧困하다. ④補給能力이 貧困하다. ⑤軍隊의 基本組織의 性格이 獨特하다. ⑥中共軍이 史的으로 陸軍과 空軍을 包含하고 合同作戰의 成功的인 經驗을 가지고 있지 않다. 空軍力이 微弱性 때문에 中蘇國境紛爭에서 蘇聯側이 航空機를 利用해도 中共이 이에 対処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諸弱矣 가운데서도 特別 東南亞와의 關係에서 본다면 中共軍의 輸送問題는 最大의 難矣으로 되어 있다. 中共은 越盟에 相對的으로 大規模의 兵力을 派遣할 수 있다. 그러나 可用道路는 敵의 攻璽에 脆弱하며 이와 같은 弱矣은 하노이以南에 派兵할 경우에는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中共과 베트남과는 鐵路의 規格이 다르다. 胡志明 루트를 거쳐 越南에 大規模的인 派兵을 하며 補給을 한다는 것은 美軍의 攻璽에 到底히 支障케 될 수 없는 問題이다. 中共이 지니는 이와 같은 問題矣은 東南亞 一般에 對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中共이 東南亞에 많은 兵力을 展開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作戰이다. 이러한 뜻에서 생각 한다면 東南亞는 一般的으로 莫大한 數의 中共 陸軍이 作戰을 할 수 있는 範圍를 벗어나 外灘地帶에 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中共軍의 指導層이 人民戰爭戰略을 採扶하고 있다는 뜻에서 戰略敎義上으로도 中共軍의 大規模的인 展開는 그 意圖에 어긋난다. 毛澤東의 人民戰爭戰略에 依하면 革命은 外部의 支援에 依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人民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中共軍은 다만 後進地域의 民族解放革命을 激勵하며 促求하며 또 精神的으로 支援하지만 兵力을 派遣하거나 또는 土着的 革命勢力에 代身하여 役割을 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1962年 中印國境紛爭 時에도 中共은 히말라야 山脈을 지나 印度平野에서 큰 戰鬪를 支援할 만한 補給能力을 保有하지 못하였다. 中共이 合同作戰의 能力을 欠如하고 있다는 뜻에서 본다면 台灣海峽을 지나 本土에 100哩 떨어져 있는 台灣을 征服하기 爲하여 兵力을 派遣한다는 것은 지금 現在의

中共의 能力은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500哩의 中蘇國境地帶의 大部分도 너무나 遠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自然障壁이 많기 때문에 中共이 蘇聯을 侵攻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難點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 北方을 侵攻하거나 또 美國과의 關係에서 東南亞를 侵攻할 수 있는 中共의 攻襲能力은 거금으로서는 그리 큰 考慮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中共이 東南亞 邊境에 처하여 軍事問題를 惹起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이 問題는 오히려 政治的인 性格을 더 띠는 것이라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滿洲地方과 韓半島에 처한 中共의 攻襲能力은 東南亞나 蘇聯에 처한 그것과는 事情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註11) 中共의 攻襲能力에 대하여 地理的으로 가장 適合한 唯一의 地域은 滿洲에 隣接한 地域이다.

北韓은 中共이 兵力을 展開하여 補給하기에 가장 有利한 地理的 條件을 가지고 있는 地域이다. 勿論 中共이 北韓에 對하여 作戰上 地理的으로 有利한 條件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蘇聯의 支援이 없거나 또는 美軍이 繼續 南韓에 駐屯하고 있는 限에 있어서는 北韓이 또다시 6.25와 같은 冒險을 敢行한다는 것은 中共에 對해서도 커다란 被害를 가져오게 할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輸送能力이 改善 強化되고, 産業基盤이 成長하여 大規模的인 軍需生産을 支援할 수 있는 時點에 到達하게 되면 根本的인 變化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根本的인 變化는 가까운 將來에 몇年 內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專門家들은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最少限 앞으로 10年 以內에 이러한 變化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專門家들의 評價이다. 따라서 不遠한 將來 急激한 變化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非現實的인 評價라고 하겠으나 그 反面에 보다 긴 眼目에서 이러한 可能한 變化 要因에 對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왜냐하면 이제 論한 內容은 將次 中共의 在來式

原子力의 政策能力에 依하여 亞細亞國家 中에서 가
弱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第一次적으로 우
韓國이라는 것을 示唆하기 때문이다.

(9) 中共의 核能力

美國은 原爆에서 水爆을 保有하게 되기까지 8년이
라는 期間을 要했고 英國은 5年 그리고 蘇聯은
4年이 걸렸다. 佛蘭西는 10年이 지났어도 水爆의
兇險이나 製造에 關하여 一定한 方式을 가지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原爆과 水爆의 兇險에 成
功하는데 不過 3年이라는 時間도 다 걸리지 않았다.

中共의 核開發計劃은 그 開發速度나 兇險된 武器의
種類에 있어 다 같이 印象的이며 따라서 中共에서
核兇驗이 있을때 마다 그것이 國際政治에 주는 影響
은 至大하였으며 또 그럴때 마다 美國을 비롯한 西
方側에서 그 軍事的 能力에 關하여 여러가지의 憶測
과 評價가 이루어 졌다. 中共이 原水爆 兇驗에 있
어 時間上으로 美國 蘇聯 그리고 英國에 비하여 훨씬
짧은 時間에 成功하였음은 勿論 이에 要하는 技

術적인 難關도 相當히 克服한 것으로 西方側에서 評價되고 있다. 이리하여 中共은 1966年 10月에도 射程距離 4~600哩의 誘導밧사일에 依한 核實驗에 成功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 中共의 核開發施設은 80~90個의 原子彈과 小數의 1素彈을 裝着시킬수 있는 밧사일의 生産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要는 運搬手段의 開發에 달려 있다. 그 間 中共의 核運搬體系에 關해서는 여러가지로 憶測되었다(註12).
 맥나마라 前國防長官은 中共의 1967년까지는 核彈頭 裝備의 中距離밧사일을 實戰化하여 68~69年에는 其中 몇發을 實戰配備하며 1975년에는 美國에 直接 到達하는 大陸間밧사일의 配備가 始依될 것으로 내다본 바가 있다. 클리포드 前國防長官은 大陸間밧사일(ICBM)의 成功은 1972年 그 實戰配備는 1975年이라고 評價하였다. 또 레어드 國防長官은 1970年 여름頃에는 ICBM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英國戰略問題研究所에서는 中共이 射程距離 1500~3000哩

(註 12) 스탠포드大學 原子研究所 報告書 *Comunist China and Arms Control, a. Conf. 1978*
 Study, 1967~1976, 第三章 今日의 十年의 戰略 軍力·軍備管理

의 中距離미사일 (IRBM)의 實戰配備를 곧 始作하게 될 것이라고 觀測하고 있다.

現在 中共이 가지고 있는 唯一한 運搬手段으로서 는 第二次大戰 直後의 T4-4 中距離爆轟機 - 이것 은 美國의 B-29를 蘇聯이 模倣한 것을 본 단 것임 - 을 T-2機 未達로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 中距離 爆轟機는 亞細亞의 戰略 目標에 核武器를 運搬할 수 있는 唯一의 手段이다. 中共은 特히 終極的으로는 大陸間미사일의 開發을 目標로 미사일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中共은 中距離미사일의 開發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지난 몇年 동안 中共이 文化大革命의 展開에 따르는 政治的 經濟的 混亂과 生産不振이 있었던 關係로 그 의 미사일開發이 豫想했던 바 보다는 多少遜少하였다. 한동안 西方側에서도 中共의 核開發能力과 미사일開發能力에 關한 評價도 그리 活潑하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年代初에 中共이 最少限 中距離미사일을 保有하게 될 것이라고 西方側의 多樣한 意見이 좁혀 들어가고 있다. (註13)

(註13) Morton H. Halperin,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p. 125

뿐만 아니라 一說에 依하면 이미 中距離밧사일 (/ RBM) 施設이 西部中國의 蘭州 近處에 架設되어 있으나 아직 試驗段階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見解도 만일 이것이 實戰配備되면 아프카니스탄에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모든 周邊國家와 中蘇國境에 沿한 蘇聯의 防衛陣地의 西部까지도 中共의 中距離밧사일의 射程距離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直接的인 威脅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中共의 밧사일能力에 關하여서는 그 自体가 秘密로 되어 있으나 단지 그 憶測이 甚々하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들의 多様な 意見 가운데서 우리가 그 最大公約數를 추려 내릴 수 있는 結論은 빠르면 3年내에 그리고 늦어도 5年내에 中共의 核武器의 威脅은 潛在的인 것으로 부터 現實的인 것으로 浮刻된다는 事實이다.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中共이 1972 ~ 1975年에는 水爆彈頭를 가지는 超強大國으로 登場함은 勿論 大陸間밧사일의 生産도 軌道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中共이 射程距離 2400 키로의 中距離밧사일을 開發하게 되면 마리아나 群島를 除사하는 日本에서

印度에 이르는 美國의 大太平洋 先進基地는 勿論 印度 이란을 包含하는 中東 그리고 蘇聯이 中共의 核武器의 射程距離안에 들어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中共이 射程距離 9600키로의 미사일을 開發하게 되면 美國本土와 阿非利加까지도 그 射程距離안에 들어 간다.

이와 같은 中共의 核開發과 미사일 開發이 展望에 처한 美軍部の 意見은 中共이 1972년까지는 中距離미사일을 保有하게 될것이라는데 一致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現在의 모든 美國 大太平洋基地가 그 射程距離안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美戰略家들이 現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太平洋基地에서 美本土에 1000哩 더 接近하기 爲하여 마리아나 게로란·마셜群島를 沒收하고 마이크로네시아群島에의 撤收와 그의 基地建設의 構想을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外誌는 報道하고 있다 (註14) 마이크로네시아群島를 基地化하면 現在의 오키나와基地에서 美本土에 1000哩 더 接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註14) "New Defense Line in Asia", U.S. News and World Report, August 25, 1969. pp 21-23

戰略的 構想의 第一段階가 베트남에서의 美軍撤收이다. 이리하여 美國의 戰略이 重大한 變化를 示唆하면서 具體化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太平洋에 있는 基地를 美本土에 가장 가까운 線에까지 撤退하는 것을 最大의 理想으로 하고 있다. 中共의 威脅에 對處하려는 美國의 새로운 防衛線에 關한 構想은 美國이 將次 中共에 가까운 固定基地를 核攻撃의 威脅에서의 射程距離上 벗어날 수 있는 地點에 까지 後退시키는 代身에 海上·航空勢力을 一新有事時 迅速히 展開시키는 態勢로 展開하고자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가운데 地域紛爭을 非美國化한다는 「닉슨·독트린」에 따르는 베트남에서의 美軍撤收과 1972年頃으로 豫想하는 中共의 中距離미사일의 保有展望 그리고 이에 對處하고자 防衛線을 移動하고자 하는 美國의 새로운 戰略構想은 原則問題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戰略的 價値의 再檢討나 美軍의 段階的인 撤收問題 — 現在는 例外的인 存在로 取扱되고 있다 — 의 具體的인 學論의 展望과 더불어 軍事적으로 우리에게 重大한 問題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中共이 軍事的으로 가장 弱點을 나타내는 것은 時期的으로 現段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中共의 現段階의 戰略目標은 亞細亞에 있는 美國과 蘇聯의 基地(地域目標)와 美國과 蘇聯의 歐羅巴領土에 있는 制限的 目標에 對한 核第一番 能力을 保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中共은 美蘇가 必要하다고 判斷할 경우 그의 明確한 核先制攻擊의 目標로 된다. 이것은 中共이 設想 核第一番 能力을 保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核第二番 能力을 가지는 美蘇에 比하면 그의 軍事的 意義가 相對적으로 減少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註 5) 따라서 終極적으로 中共의 最終目標은 美蘇와 마찬가지로 核第二番 能力을 保有하는데 있다. 第二番 能力의 確保는 그들의 要求대로 防衛와 完全主權의 要求를 賦與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美國과 蘇聯의 現體制가 高度의 正確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量的으로 적은 現體制는 戰略적으로 너무나 脆弱性을 나타내며 따라서 不充分하다. 따라서 中共이 現段階

한 核第二重 能力을 保有하기 爲하여서는 많은 億
사일 ~ 100 내지 200 基로 推算하고 있다. 이를
保有하지 않으면 아니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리하여 西方側에서는 中共이 核第二重 能力을 保
有하기 爲하여서는 最少限 尙後 10 年은 要할 것
으로 본다. 따라서 中共이 核第二重 能力을 保有하
게 되는 時期를 1980 年代 初로 보고 있다.

中共의 核武器開發에 對한 現在의 目的은 強大國
으로서의 地位要求 美蘇에 依한 世界支配의 打破
그리고 自主의 象徴에 있다. 蘇聯에 軍事的으로 依
存할 수 없는 오늘날의 實情에서 본다면 科學技術
을 發展시켜 終極적으로 그의 防衛의 主要점을 克
服할 수 있다는 信念의 表示가 自主의 象徴이다.

따라서 自主의 象徴은 美國에 對하여 戰略的 抑制
力을 保有하기 爲한 精神的 支柱로 되어 있다.

中共은 軍의 組織, 裝備 그리고 軍事力의 性格때
문에 效果적인 防衛能力을 欠如하고 있다. 即 ①
核·産業施設의 破壞를 目的으로 하는 重大한 地上
攻害 ② 海上攻害 그리고 ③ 蘇聯에 依한 滿洲地
方에 對한 攻害에 對한 效果적인 防衛能力이 없다.

~PP~

따라서 지금 現在까지의 中共의 軍事的 關心은 防衛, 台灣에 對한 主權의 主張 그리고 美蘇에 依한 世界支配體制의 打破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1970年代 初에 들어 가면 事情은 本質적으로 달라진다.

(10) 結 論

中共의 核開發은 亞細亞의 核均衡을 뒤 흔들며
 하는데 가장 決定的인 役割을 할것이다. 中共이
 核開發에 高度의 政策上의 優先權을 주고 있는 것
 은 強大國으로서의 地位構築과 美國에 對한 核抑制
 力을 保有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戰術的 核武器를 保有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
 이 아니라 戰略的 抑制力의 確保에 目的이 있다.
 따라서 中共은 地上軍事作戰에서 使用할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美國 또는 蘇聯의
 政策에 對한 核抑制力과 強大國으로서의 地位構築을
 爲하여 美蘇의 核能力과 對等한 近代의 戰略體制의
 確立에 專念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確實하다

이러한 理由뿐만 아니라 또한 航空機 能力이 없기
 때문에 中共은 熱核彈頭를 裝着시킬 中거리 核開發에
 專念할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中거리
 核開發이 經濟建設에 주는 財政的인 負擔을 가장
 적게 하기 爲하여서는 數個의 中距離 核武器와 1~2

個의 大陸間밧사일의 開發을 扶할 公算이 크다.
그리고 大陸間밧사일의 開發問題에 있어서는 ICBM
나 밧사일 積載 潛水艦 中에서 어느것을 扶할 것
이냐의 문제가 있으나 美國에 對한 核抑捌力을 保
有하기 爲하여서는 大陸間밧사일 보담도 中距離밧사
일의 開發에 焦點을 들것이다.

여기에 中共의 밧사일開發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몇 個의 可能性을 指摘할 수 있다. 即 ① 1972
年頃 一 元來 美國은 1960年代末로 豫想했으나,
이 豫想보다도 좀 遲延되었다. — 에는 中共이 美
國의 太平洋基地를 直接 射程距離內에 두는 中距離
밧사일을 保有하게 될것으로 美軍部에서는 그 見解
가 一致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重細亞의 核均衡에
根本的인 變化가 일어나며 또 이것을 時點으로 해
서 美蘇를 다같이 軍事的으로 中共을 몇分안에 重
細亞의 數百萬의 人口를 殺傷시킬 수 있는 能力을
現實的으로 가지고 있는 國家로서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中共의 中距離밧사일
이 成長하게 됨은 勿論 ② 1975年 乃至 1980
年代 初에 이르기 까지 밧사일 積載 潛水艦 또는

ICBM을 開發하여 近代的 核戰略體系에 들어가
美蘇를 直接 核攻襲할 수 있음은 勿論 核第二重
能力을 保有하게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中央이 1970年代 初에 이르기 까지 核第一重
能力 그리고 1980年代에 들어가면 核第二重 能
力을 各々 保有하게 될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제 指摘한 바와 같이 中央이 美國에 對한 核
抑制力의 確保와 強大國으로서의 地位要求 (台灣問題
포함) 그리고 美蘇에 依한 世界支配體制에 對한 挑
戰에 目的을 두고 核및사일을 開發하는 限 中央이
그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核第二重 能力을
確保하게 되는 時期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中央의 核第一重 能力이 美蘇에 對한
直接的 威脅을 주는 것이 아니라 亞細亞에 對한 美
國의 基地와 中蘇國境에 跨는 蘇聯의 西部 防衛
障地가 威脅의 對象이 되기 때문에 美蘇의 立場에
서 본다면 中央이 가지게 되는 核및사일 能力은
그의 第一重 能力 보다는 第二重 能力이 더 重要
視될 것이다. 이것은 現任의 中央의 能力으로 보
아 最少限 向後 10年間은 中央의 核武器가 美蘇

에 대한 直接的 威脅보다는 第一次的으로 亞細亞에
대한 直接的 威脅으로 남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共의 動向에 대한 亞細亞 諸國의 關心은
美蘇의 그것과 그 緊迫性을 根本적으로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여기에 다음
과 같은 몇個의 結論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中共이 1972年頃에 中距離의 事를 保有
하게될 境遇부터 論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 美
國의 亞細亞基地가 直接 威脅을 받게될 것이다.

따라서 ① 美軍의 亞細亞에서의 撤軍과 防衛線 移
動構造 — 美軍部の 支配意見이 마이크로네시아群島
에의 撤收와 基地化策이다 — 이 駐韓美軍의 駐屯
與否에 대한 終極的인 結末을 짓겠음 刺戟할 公算
이 크다. ② 亞細亞에서의 現在와 같은 核均衡에
重大한 變化를 이르게 亞細亞諸國에 核拡散의 現象
이 나타나겠음 刺戟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中共
의 現實的인 核威脅 때문에 亞細亞諸國 가운데는
自主的인 核開發이나 他國으로 부터의 核搬入을 試
圖하게 될것이다. 이와 같은 國家로서는 印度·日
本·濠洲 그리고 印尼가 그 可能性이 많다. 이 中

에서 自主的인 核開發 能力이 있는 國家로서 日本과 印度를 想定하는 것이 通評이다 印度의 境遇에 는 그것이 核開發을 試圖한다면 中共이다. 蘇聯의 援助에 依한 可能性이 있다. 日本은 美日安保條約을 自動延長하기로 했기 때문에 當分은 美國의 核傘下에 依存할 것이지만 1975~80년에는 自主的인 核開發을 試圖할 展望이 크다. 어쨌든 이리하여 1975年代에 이르기까지는 垂細垂에의 核 拡散이 剩戰됨과 同時에 現在의 核均衡에 重大한 變化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核 拡散은 비단 軍事的인 意味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相互間에 國際關係에 變化를 가져오는 要因이 될 것이다. 뿐만 이 核 拡散 傾向이 北傀를 剩戰하여 北傀와 中共과의 關係의 發展如何에 따라서는 北傀내에 中共의 核武器를 搬入하는 結果를 招來할 憂慮가 없지 않다. ③ 美國의 核 威脅이 없는 限 더욱 地域的 紛爭에 介入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万一에 中共이 美國에 依한 核 攻撃의 威脅이 없었다면 韓戰에 있어서의 勿論 金門島나 越南戰에 對한 支援을 더욱 強化했을 것

이러는 것을 理解한다면 充分히 豫見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이와는 反대로 美國의 核攻襲에 依한 威脅이 없이는 것이 保障되지 않을 境遇에는 美國이 軍事的으로 抑制할 수 없는 突破口 即 菲 細亞에 있어서의 民族解放戰爭에 對한 支援을 더욱 強化할 것이며 特히 台灣海峽에 對한 立場을 強化하고자 할 것이다. ⑤ 飛弱한 隣接國家의 中立化를 長期的인 視點에서 追求할 것이다.

中共의 威脅은 第二重 能力을 保有하게 될 것으로 보는 1980年代 初가 더욱 問題視된다. 中共이 核開發의 目的(註16)으로 삼고 있는 台灣海峽에 對한 主權, 強大國으로서의 國際的地位 그리고 美蘇에 依한 世界支配體制의 打破와 같은 基本目的이 그대로는 解決되기 어렵다. 이 目的의 達成은 中共이 核第二重 能力을 保有하게 될 1980年代 初의 問題로 되어 있다. 中共의 現在의 核開發은 第一次的으로 美蘇에 對한 核抑制力의 保有를 爲한 것이며 따라서 第一次的으로는 防衛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70年代 中年期를 前後하여 中共이 第一重 能力의 保有에서 第二重 能力의

(註16) Martin H. Halperin, op cit, p.126

205~
保有로 接近하면 할수록 그의 核武器는 防衛적인
것으로 부터 美蘇에 對한 直接的인 威脅으로 浮刻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亞細亞 強大國의 立場에
서 부터 美蘇 다음에 가는 世界的 大國으로서의
立場에 接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中共은 向後
10年間 漸次的으로 歐羅巴에서 蘇聯이 다 했던 것
과 비슷한 重大한 役割을 亞細亞에서 다하게 될 것
임이 分明하다. 西歐에서의 緊張緩和가 美蘇共存體制
에 依存하든지 將次 亞細亞에서의 緊張緩和는 世界
問題에 關한 現狀維持에 對하여 美蘇의 基本的인
合意가 維持되는 限에 있어서는 美中緊張關係의 緩
和와 共存體制의 摸索에 달려 있다. 이것을 亞細亞
問題의 解決이나 平和維持를 爲하여 中共이 차지하
게 될 影響力이나 發言權이 오히려 美蘇의 그것을
凌駕할 바가 있게 될것임을 示唆하며 나가서는 앞
으로 10年 以內에 中共이 世界問題에 對해서 美
蘇에 못지않은 發言權을 가지게 될것임을 意味한다.

앞으로 베트남戰爭이 解決된 以後에도 美中關係를
左右할 基本的인 問題는 台灣問題이다. 따라서 美國
이 아무리 從來의 包圍政策에서 孤立 또는 包圍政策

~196~

으로 轉換하여 中共에 對한 接近을 試圖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美國이 台灣이 中國의 合法的인 正統政府라는 極端적인 公式的 立場을 修正 乃至 變換하여 中共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는 限에 있

어서는 對中共關係의 改善를 期待하기 어렵다는 것 을 意味한다. 勿論 美·第7 艦隊가 台灣海峽에 머

물려 있는 限 中共이 台灣에 對하여 軍事的 冒險 行動을 試圖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面에

中共이 台灣에 對한 強硬한 主張을 緩和할 可能性 은 날이 갈수록 稀薄해져 간다. 따라서 中共의 核

心力이 開發되면, 勿論 그 軍事的 威嚇은 現實 的으로 浮刻되며 美國으로서는 이에 對처하기 爲하

여 從來와 같은 軍事的 安全保障 爲主의 方法에서 轉換하여 어떠한 政治方法에 依한 解決策을 求한다

면 ① 「두 개의 中國論」이던 또는 「하나의 中國과 하나의 台灣論」이던지 間에서 中共의 代表權問題에

對한 以上 더 政治的으로 外面할 수 없게 되며 이 것은 「두 개의 韓國論」을 拳論케 할 것이다.

② 이들 여러 要因에 依하여 中共이 歐州에서 蘇 聯이 對美關係에서 다루던 것과 비슷한 重大한 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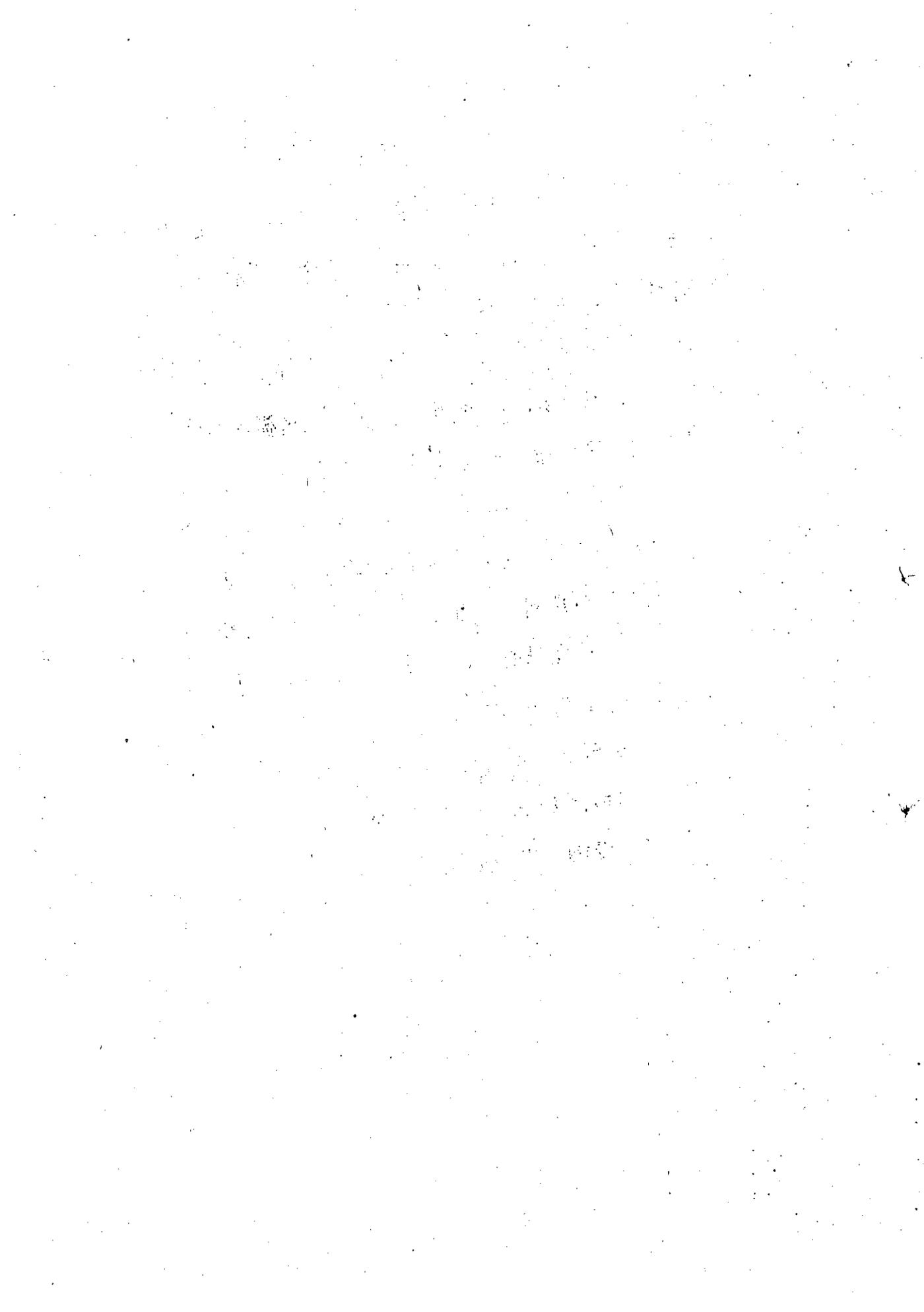
획을 中共이 亞細亞에서 다하게 된다면 中共은 韓國統一問題에 對하여 美蘇에 못지않은 決定的인 影響力과 發言權을 確守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韓國統一問題는 더욱 複雜性을 띄우게 될 可能性이 많다.

위에 指稱한 여러 結論은 中共의 軍事力の 膨脹이 우리에게 軍事的인 直接的인 威脅이나 影響力을 준다느니 보담도 그것으로 因한 亞細亞 勢力關係의 再編成이나 이에 對한 美國을 비롯한 關係의 反應 그리고 또 北傀의 動向에서 오는 影響이나 威脅이 오히려 더 直接的임을 말하여 준다. 우리에게 對한 第一次的인 威脅은 北傀의 存在이다. 中共의 存在는 軍事적으로 우리의 主敵이라는 面보담도 北傀에 對한 支援力이라는 面에서 干先적으로 問題視된다. 政治的인 面에서는 韓國統一問題의 解決이 亞細亞問題의 解決에서 떠난 個別事項으로서 解決될 可能性 보담도 美中關係의 改善에 따라서 亞細亞問題 解決과 一環으로서 解決될 可能性이 있다는 事實에서 問題가 된다. 늦어도 1970年代의 中半期까지 中共의 核能力이 美國의 太平洋基地를 直接的으로 威脅할 수 있는 存在를 浮刻될 것으로



展望되는 反面에 北승의 亞細亞특트린에 따르는 地
域紛爭의 非美國化政策을 實施하기 爲한 起點으로서
一方面的인 撤軍에 依한 베트남戰爭의 解決이 72年
頃으로 내다 보이며 또 이것과 같은 해인 72年
까지의 오키나와의 日本에의 返還 71年末까지의
스에즈 以來에서의 英軍撤收에 따르는 힘의 眞空狀
態 造成의 可能性 蘇聯의 頭着한 海洋進出 또 經
濟國家로서의 役割에서 政治國家로서의 役割에 轉換
할 것을 要求하는 美國의 漸次的인 對日政策의 變
化等 一連의 事態進展은 70年代의 亞細亞 國際關
係가 美·蘇·中·日의 相互關係에 依하여 크게 變
貌될 것임을 預하여 준다. 이러한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기 爲하여서는 韓日間의 軍事的 協調가 不可
避하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逆效果的으로
中共의 冒險主義를 더욱 刺戟할 可能性이 있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共產側에도 問題없는 것은
아니다. 中蘇國境紛爭에 따르는 蘇聯의 極東軍事力의
強化는 中蘇對立이 解消되지 않는 限 제/次的으로
는 對中共 包圍나 壓力으로서의 役割을 하게 될것
이다.

그러나 一面에 있어서 蘇聯이 對美競爭을 指向하는
 限에 있어서는 蘇聯의 極東軍事力の 強化는 結果的
 으로 極東에서의 東西間의 軍事的 勢力均衡을 共產
 側에 有利하게 만드는데 一役을 다하게 된다. 그리
 고 이와 같은 東西軍事的 均衡의 變化는 北傀에
 처하여 有利하게 作用하게 될것이다. 勿論 美蘇共
 存體制가 維持되는 限에 있어서는 蘇聯이 美國의
 介入을 不可避하게 만드는 北傀의 全面南侵을 支援
 할 可能性이나 또는 蘇聯이나 中共의 支援缺이 北
 傀가 南韓을 攻襲할 可能性은 다 같이 적다. 그
 러나 그 反面에 브에블로號 事件이나 EC/2/1 型
 裁害墜事件과 같이 制限된 範圍內에서의 韓半島에서
 의 緊張助成이나 게릴라活動은 앞으로 韓半島에 있
 어서 계속 政治的 心理的 支援要素로서 作用하게
 될 것이다.



中共의 經濟發展이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

1) 中共經濟의 推移의 現況

中共政權成立 이후 지난 20年間の 中共經濟의 推移를 살펴보면 이것을 몇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49年에서 1952년까지 經濟復興期, 53年에서 57년까지 第1次 5個年計劃期, 58年 이후 第2次 5個年計劃期間中, 1958年에서 1960년까지 大躍進, 60年에서 62년까지 經濟危機, 61年에서 65년까지 經濟調整期, 66年에서 70년까지의 第3次 5個年計劃期中의 文化大革命期 등이다.

1949年 中共은 戰後 經濟混亂의 收拾으로 經濟計劃을 수행할 기반을 확립키 위한 國策의 政策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50年 6月에는 土地改革를 實施하고 51年에서 52年사이에는 反革命分子를 鎮壓하고 三反五反運動으로 無產者獨裁 體制의 기초를 공고히 했다. 이리하여 52年末

에는 農工雙方의 生産이 革命前의 最高水準에 도
달했으며 土地改革도 53年1月에는 기본적으로
完了되었다. 이 기초위에서 53年1월부터 第1
次5年計劃에着手했다. 同年10월에 발표된
「過渡期의 總路線」은 1949年의 中共政權의
成立으로 新民主主義革命의 段階에서 社會主義革命
의 段階로 들어간 것으로 보며 社會主義의 基本
的完成에 이르는 過渡期의 總任務로서 ①社會主義
工業化와 ②農業 商業 手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
를 내걸었다. 過渡期의 基本任務를 完結하려면
「復興期」의 3년을 제외하고 약 15年前後の 歲
月 즉 대체로 세차례의 5개년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대한 社會主義工業化를 실현할 國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數10년에 걸친 努力이 필요하고
예컨대 4, 50年의 歲月 즉 수世紀의 後年全部
가 필요하다^{註1)}고 하였다. 이 總路線의 經濟面
에서의 實踐이 第1次5年計劃이며 同計劃의 特
색은 156個項目에 걸친 蘇聯援助와 設計에 의하

註1) 1955年 7月 5日 第1期 全國 人民代表大會 第2回會
議에서의 李富春 「第1次5年計劃 草案報告」

工業單位의 建設을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莫
극단적인 重工業優先政策이라는 矣이다. 同計劃期
間中の 基本投資額은 550 億元인데 그중 56%
가 工業에 18.7%가 運輸 通信 交通에 8.2%
가 農林業에 투자 되었다. 工業投資中 重工業投
資가 占이라는 比重은 87%나 되었다. 一 結
과 第1次5年計劃期間中 工業總生産額은 倍增하
여 農工總生産額中에서 工業生産額이 占이라는 比
重은 1952年의 41.5%에서 57年의 58.5
%로 상승 하였다 矣다. 同期間의 年平均成長率
은 農工業生産額 10.9%, 工業生産額 19.2%,
年工業生産額 12.8%, 農業生産額 4.5% 이다.
그리고 각도를 바꾸어 보면 生産財工業이 年成長
率은 26%, 消費財工業 13.5%, 食料品生産
額 3.7% 이다. 第1次5年計劃은 모든 部門에
서 目標을 超過達成했다고 하나 農工間의 不均衡
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外交面으로는 中 소관계
가 惡化되고 國內政治面에서는 中國共產黨과 民主
諸政黨과의 長期共存方針이 揭示되어 百家爭鳴 百
花齊放運動이 展開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中國民主同盟 등을 중심으로 中共政策에 대한 강력
한 비판이 나오자 57년부터 政府批判者에 대한 整
頓운동 反右派鬭爭이 시작되었다.

58년에 第2次5年計劃에 착수하여 社會主義
建設의 總路線을 내세웠다. 總路線의 골자는 기
본적으로는 重工業優先政策을 유지하면서 工業과
農業 重工業과 輕工業, 中央工業과 地方工業,
近代的方法과 舊式方法에 의한 生産을 同時的으
로 발전시키는 두 다리로 걷어가는 方針이다.

그리고 소련의 모방이 아니라 中共의 独自の
工業體系의 自律的完成을 지향 한다는 것이다.

그리기 위해 소련援助減少로 받는 打擊은 人民
公社에 의한 全國民大衆의 動員과 組織化 土法
小規模工業生産에 의한 資本節約的方法의 수행으
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大躍進 人民公社
總路線이라는 三面紅旗의 슬로건 밑에서 쉼없는
社會主義教育이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人民公社가
조직되었다.

表1 中共의 主要生産高

년도	鋼塊	銑鉄	發電量	原油	食糧
1952	134.9萬t	192.9萬t	92.6億KWh	43.6萬t	15,440萬t
1965	1,800萬t	2,750萬t _(30%)	800億KWh	1,000萬t	21,000萬t

第2次5年計劃의 目標은 62年末까지 57年에 비해 工業生産額을 75% 工業生産額을 100% 農業生産額을 35%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나 大躍進의 결과 59년에는 57년의 그것을 각각 94.4% 131.5% 45.8% 달성하여 5年間의 建設目標을 2年間에 초과달성 했다고 한다.

1958年度の 總投資規模 270億元中の 64.8%가 工業投資이고 그중의 87.4%가 重工業에 12.6%가 輕工業에 투자되어 重工業優先의 傾向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毛澤東의 主觀主義的 判斷에서 나온 大躍進에 의한 重工業偏重 政策의 暴走와 人民公社에 의한 성급한 社會改革 59年 가을에 시작되어 3年동안 계속된 大自然災害 60年の 소련에 의한 援助의 全面的中斷과 소련技術者의 撤收등으

로 第2次5年計劃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61年1月 中共8期9全總會가 개최되어
 總路線의 正當性을 확인하면서 「調整 強化 充實
 向上」의 8字方針과 그에 따르는 第2次5年計
 劃의 전면적인 再檢討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人民公社가 대폭 후퇴하고 自力更生과 農業에 기
 초를 둔 工業化方針에 따르는 經濟再建이 시도되
 어 政策取換이 이루어졌다. 自力更生論은 소련-
 邊疆에서 独自の 經濟建設을 하려는 方針으로서
 ①國內蓄積으로 建設할것 ②技術體系의 自立化 ③
 生產手段의 自立化 ④主要消費財의 自給化가 그
 내용이다. 農業基礎論은 農業을 기초로 하고 工
 業을 손잡이로 하는 國民經濟發展의 諸方針으로서
 基礎建設의 縮小과 農業再建 人民公社의 後退와
 生產意慾의 증대이다. 經濟調整의 內容은 196
 1年부터 62年 사이에 經濟를 조정하고 63년에
 강화하고 64년에 充實化하고 65년에 向上하는
 것인데 62년부터 起點되기 시작하여 1964年
 에서 1965年 사이에는 전면적으로 完成되었다
 한다.

그 결과 1960년에 1.6億톤 까지 떨어졌던 食糧生産이 65년에는 2.1億톤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其他 主要物資生産面에서도 순조롭게 회복 발전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이에 소련으로 부터의 借款을 완전히 청산하고 中共의 貿易量은 劇싹히 증가 되었으나 对共產圈貿易의 비중이 떨어지고 对非共產圈貿易의 비중이 表2.3에서와 같이 증가 되었다.

表2 中共의 对소貿易額 (單位 100萬 루블)

項目 \ 年 限	1960年	1964年
總 額	1,498.7	404.5
中共의 수출	783.3	282.8
中共의 수입	735.4	121.7
中共의 出超	27.7	161.1

表3 中共의 對外貿易 (單位 100萬 人民幣)

項 目		1962	1963	1964
輸 出	共 產 國	270	230	210
	非	250	300	360
	合 計	520	530	570
輸 入	共 產 國	235	220	195
	非	235	270	300
	合 計	470	490	495
總 額		990	1,020	1,070

이상과 같은 經濟의 회복 발전의 기초 위에서 66年 1月부터 第3次 5年計劃에 착수 하였다. 그러나 65年부터 시작된 文化大革命은 지금까지 政治 經濟의 實權을 장악하고 실제로 中共을 지배 해온 劉少奇國家主席등의 實權派를 毛澤東등이 批判하고 그 權力의 탈환을 위한 투쟁으로서 전개되어 一大混亂을 이트켰으나 69年 4月の 中國 共產黨 第9回 全國大表者大會로 終止符를 찍었다고 할수 있다.

文化大革命이 經濟面에 미친 影響은 各分野에서

經濟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으며 특히 交通運輸面에서 가장 현저하고 다음으로는 工業 對外貿易 農業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農業面에서의 저해가 비교적 적어 食糧生産은 年間 2.1 내지 2.2 億才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人口 7 億 5 千萬人의 1人當 年間 純食用食糧은 190 kg 前後로 추계 되어 儲蓄需要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등부족량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小麥輸入은 經濟上 政治上 必要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文化大革命도 점차 수습되어 감에 따라 社會秩序가 회복되고 生産이 향상되는 傾向에 있다고 하며 第3次計劃 第3次年度인 1968年 부터는 文化大革命만을 주장하지 않고 工業 農業 生産의 發展 指導機構의 確立 交通運輸의 強化를 강조하여 종전의 態度를 바꾸어 生産增強에 힘쓰는 姿勢를 갖추고자 하는 것 같다.

(2) 中共經濟의 問題點과 展望

中共經濟는 소련-보통에서 벗어나 中國方式에

의한 經濟建設을 하게된 결과로 自力更庄을 내걸
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自由陣營과의 經濟交流을
擴大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의
援助中斷은 重工業優先政策에의 怨怒를 버리지 못
한채 農業優先政策으로 전환하지 않을수 없게 되
었다. 이러한 특질을 지닌 中共經濟에 있어서
첫째로 問題되는 것은 自力更庄이다. 中國은 丁
史적으로 美國 소련과 함께 三大自給自足國家의
하나가 될 만큼 國土가 넓고 物的資源이 풍부하
고 人口가 많은 地大物博 人多的 나라이다.
비록 國富가 크다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는 國民所得을 增大 시킬수 없다. 經濟開發은
自力보다는 대담한 開放體制下에서 先進技術과 先
進共產設備의 도입으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中共路線의 전반적인 變質에 따르는 政策轉換 없
이 中共經濟의 큰 發展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는 國防力強化政策이다. 經濟力은 國民福祉
水準으로서 평가되는 國民福祉로서의 經濟力 戰力
으로 評價되는 國防力으로서의 經濟力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自由陣營은 前者의

共產陣營은 後者의 經濟力培養에 注力하고 있다.
 中共도 國防力強化爲主의 重工業優先의 經濟建設을
 한 결과 1,2次5年計劃의 실시 과정에서 國民
 福祉가 희생되는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
 기되었다. 「①重工業化의 速度에 비해 輕工業建設
 이 매우 느리고 ②原材料工業의 발전이 加工業製
 造工業이나 國民需要에 뒤따르지 못하며 ③食糧이
 나 綿花等의 증가량이 國內需要에 비해 不充分
 하다는 것이다.」^{註,2)} 國防經濟의 基礎工業이 1
 次5年計劃 이후 건설되기 시작하여 機械設備의
 自給率이 90% 이상 金屬資材의 自給率이 8~9
 0%나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機械工業體系의
 완전한 확립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綜合産業으로서 莫大한 資金과 방대한 工
 業力이 필요한 核開發을 했다는 것은 파급한 國
 民負擔과 國防力強化一辺倒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
 이다. 中共의 國防費의 規模를 보면 1950年
 에는 總歲出額에서 國防費가 차지하는 比率은

註,2) 宮下明義編, 自由, 共產, 兩國의 經濟力의
 比較 1959. 108面, 4

41.9% (28億元) 였으나 1960년에는 8.3% (58億元) 로 |졌다. 1965년의 國防費는 60億으로서 그 構成內容은 軍事要員費 30% 作戰 및 維持費 25% 軍事訓練 및 建設費 25% 軍事研究 및 開發費 20%이다. 그러나 共產陣營의 國防費의 상당한 부분이 經濟建設費 社會文化 教育費 行政管理費 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 할 때 中共의 國防費는 표시된 금액보다 수배에 달 하는 방대한 金額이 될것으로 推算된다. 이러한 國防力強化政策의 시정없이 經濟發展은 기약키 어렵다는 것은 自由 共產陣營을 막론하고 공통된 사실이다.

셋째는 文化大革命과 같은 中共의 이데올로기 重視가 中共의 經濟發展을 저지해왔다는 사실이다. 中共에서는 20년 동안 共產主義的方式에 의한 經濟建設이 이루어졌다. 「史的으로 보면 짧은 期間이지만 이 사이에 이 나라의 經濟活動을 지배한 方針은 獨裁的 프라그마티즘과 革命的 유토피아니즘 사이에서 원저하게 등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革命的情熱을 控制할 시기에는 이 나라

經濟機關도 대체로 일관된 投資計劃을 追求 할수
 있었고 이로써 工農業兩面에 걸쳐 상당한 增産을
 달성 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 指導者들이
 達成可能한 經濟成長速度에 壓증을 느껴 어떤 증
 류의 政治的魔術로 短期間內에 눈부신 經濟的成果
 를 나타내고자한 시기에는 비참한 結果가 되기
 쉬웠다. (註, 3)

이러한 이념을로기 重視에 의한 經濟成長의 強
 化는 2次5年計劃期의 大躍進運動과 經濟調整期
 後의 文化大革命에서 찾아 볼수 있다. 共產主義
 經濟建設에 있어서 異端分子를 숙청하고 主体를
 재검비하케 하기위한 整風運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나칠 때에는 언제나 經濟發展에 지장을 초래
 했다.

이상과 같은 中共經濟의 發展에 대해 1966
 年 美國의 스펀포드研究所가 1960年代 殘存期
 間에 있어서 中共의 經濟成長의 가능성에 관해

註, 3)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8 An economic Profile of Mainland
 China, 1967 前田專夫訳: 中國本土の經濟的プロフィール, 1967
 9頁

도출한 結論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 經濟危機를 克服한 中共經濟가 1970년까지
 는 上昇傾向을 거듭한 것이다. 둘째 核開發에
 成功했지만 1960年代에 큰 近代的 軍事力を
 건설하기는 불가능하다. 셋째 그러나 國境地帶에
 서 軍事行動을 이르기 世界平和를 祈願 할 것이다.^{註4)}
 첫째문제에 대해서는 文化大革命으로 中共經濟의
 上昇傾向이 약간 주춤했지만 1970年代에 드러
 가쳐도 대비약은 없을지라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된다. 둘째문제에 대해서도 1970年代에
 드러가 특히 후반기에 現代的 國防産業의 建設에
 의한 裝備現代化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문제인 國境紛爭은 1970年代에
 도 큰 변화없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
 에 經濟政策의 基調 科學技術 對外貿易을 展望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간 20年間의 中共經濟를 회고하고 文化革

註4) Stanford Research Institute, The economy
 behind the bamboo curtain

日本, 世界週報, 1966年 8月 16, 23, 30 日号

命過程에서 일어난 經濟論爭이나 經濟事態를 검토
 하는 가운데서 급후에 예상되는 經濟政策의 方向
 은 農業基礎論이다. 1957年2月 毛澤東이 最
 高國防會議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同 강연은 ^{註, 5)}
 「우리나라는 大農業國으로 農林人口가 全國人口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工業發展을 農業發展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工業은 原料와 市場을
 얻을수 없고 強大한 重工業을 建設하기 위한 資
 金を 비효적 많이 蓄積할 수가 없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輕工業과 農業은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重工業이 農業을 主要한 市場으로 하지않
 으면 안된다는 문제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명백히
 인식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것은 工業優
 先傾向이 강한 소련의 第1次5年計劃의 反省
 의에서 農工業의 不均衡을 外國資本으로 조정하는
 것을 原則적으로 拒否키 위한 것이었으나 重工業
 優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同 강연은 「우리나
 라의 經濟建設은 重工業을 中心으로 한다는 것 이

註, 5) 三-書房에 毛次東談後, 著作集

「人民內部的 予荷을 을게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

뜻은 확실히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1958年5月の 8全2回會議에서 農工併進方針이란 折衷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大躍進의 挫折에서 調整期로의 轉換期에서의 當面目標은 食糧生産의 回復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제기된 것이 1962年9月の 8期中央委員會 第10次 全體會議에서 採択된 農業基礎論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人民의 當面任務는 毛沢東同志가 제창한 農業를 기초로 하고 工業을 손자비로하여 國民經濟를 發展시킨다는 전반적인 方針을 貫철하여 農業의 發展을 第1位에 두고 工業과 農業의 關係를 善게 처리하며 상호하게 工業部門의 活動은 農業를 기초로 하는 制度에 옮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經濟計劃의 重要傾斜는 農業 輕工業 重工業의 生産回復을 위한 農業優先論이 아니고 급후의 中共經濟의 基本構造를 考察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農民에 대한 权力的擄取를 弃용치않고 外資導入을 거부하는 自力更生을 임수하는 是 中共의 經濟事構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 韓나라의 經濟力과 軍事力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科學技術의 發展速度의 科學技術障의
 育成임으로 中共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1956年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에서 「科學技術發
 展 12年計劃 (1956 ~ 1967)」이 채택되었
 다. 科學技術振興은 ①原子力 ②自動化 ③計算技
 術 ④無線電信 電子學 ⑤半導體技術 ⑥젯트, 로켓
 引擎에 注力키로하고 國防關聯項目인 原子力과
 半導體技術에 最優先優先을 두었다. 그후 同計劃
 을 10年으로 短縮하였고 新兵器開發을 위해 冶
 金工業과 稀金屬材料研究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이 方面의 幹部養成에 힘썼다. 이리하여 近代綜
 合工業의 結晶이라고 할수 있는 航空機生産工業이
 일어나게 되었다. 1949 ~ 1963年間に 科
 學技術發展의 기초가 될 高等教育人員 約120万
 名이, 單科大學과 綜合大學을 졸업했다. 그중 理
 科 農科 醫藥 工科의 4學科를 전공한 數는 6
 7万1千名이다. 이 人員數는 1964年度 美國
 의 技術關係卒業者 115万名의 約60%가 된다.
 이것은 1928 ~ 48年間の 4科의 卒業生數

7万名에 불과한 대약진이다. 그러나 中共이 삼각관 不足으로 科學技術增強을 위한 資金捻出이 어려운 것이라는듯 文化大革命과 같은 운동으로 大學生이나 科學技術者의 素質보다 出身姓令을 따지게 된다는듯 등은 科學의 發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것이다. 中共이 政治的不安과 經濟的困難을 극복하지 않는한 海外留學을 통해 先進技術을 받아 드리지 않는한 더욱이 中共이 科學者나 專門職業人에 대한 態度를 바꾸지 않는한 今後에 있어서 科學技術과 그 障害의 成長은 기대키 어려운 것이다.

中共側은 소련의 援助中斷이 短期的으로는 큰 타격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中共의 製造能力振大와 輸入依存度低下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中共의 自力更生政策은 自由障營의 機械設備나 技術導入을 허용치 않을수 없었다. 더욱이 第3次5年計劃期의 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외국과 大規模의 去來를 해야할 經濟的 必要성이 있기 때문에 對外貿易은 금후 더욱더 증대 될것이고 西方側과의 貿易은 더욱더 增大 될것이

다. 금후의 輸出은 農業産品이나 紡織品面에서 증가할 것이나 鎳産物이나 金屬輸出도 증가할 것이다. 西方側에서의 穀物輸入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면 이를 위해 상당한 外貨를 支出해야 함으로 近代工業의 擴張에 필요한 資本設備의 導入은 穀物輸入으로 제약될 것이다. 그러므로 長期借款으로 貿易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능하든가 農産品의 輸出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든가 資本設備의 증분한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3) 中共의 經濟發展이 韓國統一에 미친 影響

① 中共의 經濟發展이 韓國統一에 미친 影響을 中共의 經濟發展이 ④순조로워 自由陣營의 大國家를 따라가고 완전 가망성이 있다고 전망되는 경우 ④예기할 것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 經濟成長이 느릴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④순조로우나 自由陣營을 능가하기 어렵다고 전망되는 경우의 세가지 假定 밑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中共의 經濟發展은 社會主

義陣營의 勢力強化와 自由陣營의 위협이 될 것이다. 社會主義陣營에 대해서는 첫째 소련을 제외한 社會主義國과의 協力支援關係를 강화할 것이고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協力支援으로 平和적인 中間地域을 확대할 것이다. 둘째 社會主義陣營의 市場擴大에 공헌할 것이다. 셋째 世界的인 革命基地化 내지 大擴張政策에 의한 侵略의 物的可能性을 증대시킨 것이다. 中共은 비록 現代戰을 수행할만한 空軍 海軍이 없다는 質的弱勢에도 불구하고 陸軍의 量的인 優勢의 政治優先 내지 1RBM 체계의 강화로 카바향편사 經濟力培養으로 점차 내적증신을 거둘 것이다.

中共의 經濟發展이 自由陣營에 대해서는 첫째 큰 市場을 마련해 주게 되고 둘째로 海外市場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치열한 經濟競爭을 이룬 것이며 셋째로 經濟發展에 따르는 中共의 軍事力增大가 極東의 安全保障을 위협할 것이다.

만일 1의 假定이 성립 될수있다면 中共의 世界未化野慾은 증대될 것이고 北極는 經濟 軍事面

에서 支援을 받을 수 있는 中共에 기우러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 경우에 中共 北僞를 중심으로한 共匪勢力은 날이 갈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韓國統一을 늦추면서 經濟的 軍事적으로 우세한 팀은 배양하기에 힘써 北僞側에 유리한 統一의 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2의 假定이 성립될 수 있다면 中共의 強硬路線은 계속될 것이고 中間 北僞間의 經濟協力關係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北僞의 經濟的 對蘇依存關係는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中 蘇 北僞間의 國際關係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中共의 經濟發展이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은 미미할 것이다.

3의 假定이 성립 된다면 中共의 經濟發展은 自由陣營의 큰 위협이 됨이 없이 東西貿易擴大를 통해 世界經濟發展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中共의 態度의 圓화와 東西解氷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 경우에 中共의 經濟發展은 平和的인 韓國統一의 國際經濟的 環境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1의 假定은 現實에 있어서나 예측 가능한 未來에 있어서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非現實적인 것이 될 것이다. 2의 假定은 現實과 부합되나 中共經濟의 將來가 반드시 韓半島の 統一이 될 것이라고는 전망 될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를 전망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경우에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3의 假定은 現實적인 妥當性은 적으나 未來의 가능한 方向 중에서는 가장 確率이 높은 것이 될수 있다. 1970年代 後半期나 1980年代가 그러한 시기가 될것으로 내다보인다.

②中共의 對東南亞進出이 韓國統一에 미칠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東南亞地域은 對外的으로는 中共의 政治的 經濟的인 壓力 對內的으로는 社會經濟的 基盤을 지배하는 華僑問題로 해서 큰 威脅을 받고있다. 이러한 背景 밑에서 中共은 1955年 Bandung會議 이후 東南亞貿易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一部 國家에는 經濟援助까지 하고 있다. 그 결과 對

西政貿易에서는 2億弗 이상의 赤字를 내면서도
 對東南亞貿易에서는 反대로 2億弗 이상의 黒字를
 나타낸다. 兩地域은 같은 低開發 農業國이었으나
 1. 2次 5年 計劃에 의한 中共의 工業化로
 經濟交流의 新分野가 개척되었다. 더욱이 東南亞
 市場에 대한 中共의 覬覦은 東南亞市場에 있어서
 中共商岳과의 격심한 경쟁을 이르게 工業化에 힘
 쓰는 東南亞新興諸國의 産業에 큰 타격을 주었다.
 따라서 라이 말레 싱가포르 越南 필리핀등은 中共
 商岳의 輸入禁止措置까지도 취할바 있다. 中共은
 東南亞에 대해 주로 綿製品 雜貨 고무加工品 輕
 機械 建設資材 食料品 등을 수출하고 東南亞에서
 생고무 주석 麻袋 木材 설탕 고무라 紅茶 커피
 쌀등의 特産物을 輸入하면서 奉橋送金을 포함한
 外貨를 획득하여 西政로 부터는 建設資材나 機械
 를 수입했다. 中共經濟의 發展에 따라 이상과
 같은 景況은 더욱더 尙화될 것이며 勞動集約的産
 業에 있어서는 東南亞市場을 둘러싸고 韓國을 비
 롯한 自由陣營諸國家의 有力한 경쟁상대국이 될것
 이다. 어제부터 中共의 東南亞進出은 韓國의 對東

南亞市場을 좀더 勝共統一의 物的能力을 배양하려
는 韓國의 經濟成長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이다.

○中日關係의 변화가 韓國統一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美蘇의 平和共存體制에
따르는 東西和解의 분위기가 조성파 더불어 東西經
濟交流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中共貿易에 대해서
는 現狀세하에서 中共에 物資를 공급하는 것은
中共의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유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見解와 도리어 그것은 自由陣營의 위
협이 된다는 견해로 나누어졌다. 國內經濟事情으로
中共貿易을 중시 해야 하는 입장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입장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對中共貿易을
둘러싼 贊否兩論으로 나누어는 중요한 근거가 되
는 것 같다. 日本의 國內經濟事情은 英國과 함께
對中共貿易을 필요로 한다. 여하간에 入口 7億
이상 이라는 巨大한 中共市場을 둘러싸고 自由陣
營國家間의 輸出競爭이 격화 될 것이다. 中共市
場은 日本의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市場으로서 原
料供給地로서 日本經濟에는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中蘇紛爭으로 對蘇依存에서 벗어나 自由陣營과의
 貿易擴大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中蘇과 美國
 의 通貨防衛政策에 따르면 對日輸入規制로 對美依
 存度에서 東南亞地域이나 共產地域으로 새로운 市
 場을 개척해야 하는 日本은 서로 밀접한 經濟交
 流를 해야 할 立場에 놓여있다. 특히 美國의 越
 南後退에 대신해서 日本의 아시아 進出이 적극화
 될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는 台灣 韓國에의 進出
 이 증가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進出하고 있
 다. 日本의 東南亞進出은 1958年頃을 고비로
 증대되고 1960年頃에는 對美市場과 같은 비중
 을 차지하게 되어 對美依存에서 東南亞로 重점이
 이동 되었다. 앞으로 中蘇의 經濟發展 떠나나가
 서는 中日國交回復이 이루어 진다면 中日經濟交流
 는 급격히 확대될 경향에 있다. 그러나 東南亞
 市場에서는 1次産産品이나 輕工業製品에서는 크게
 경쟁될 것이다. 重化學工業製品에서는 별다른 경쟁
 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中日
 은 共存可能하다고 할수 있고 自由化擴大은 貿易
 擴大을 노리는 日本은 實체를 추구하는 나머지

中道の偏向으로 나가 韓國을 국제적으로 포섭하
 하는데 加勢할 必要성 조차 없보인다. 이것은
 결국 韓國 防衛와 韓國統一에 暗影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것이다.

이상과 같이 中共의 經濟發展내지 對外經濟關係
 展望이 韓國統一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그러나
 우리는 韓國統一의 內的條件으로서 韓國經濟의
 近代化(工業化)와 現代化(福祉經濟化)를 통해
 經濟的 實력을 배양하는 한편 自由主義 經濟體
 制의 優越性을 과시함으로써 勝共統一과 平和統
 一の 기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다른편으로는
 끊임없는 共産勢力의 武力浸透에 대비하여 自由
 陣營의 結束을 強化하고 共同防衛體制를 확립하
 여 우리나라를 大陸反擊의 勇리軍 지보가 되도
 록 하면서 國土統一의 偉業을 완수할 수있는
 기회를 노력해야 할 것이다.

韓國統一을 위한 우리의 對備策

(1) 對 아시아 政策의 方向

1) 中共指導層의 歸趨

1965年 가을 부터 中共全土를 회
모다 렸던 소위 文化大革命의 회오리바람은 1968
年末로서 一段落 짓고 1969年에 들어서자 中共
은 安定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一般的
인 觀測이다. 11年만에 開催된 九全大會는 그
것을 確認하는 要式措置의 黨大會였다고 볼 수
있다. 이 九全大會에서 反毛勢力인 黨實權派의
巨頭 劉少奇는 正式으로 黨 및 黨要職에서 逐出
할 것을 決定하였으며, 이로써 反毛勢力에 대한
大肅清이 黨에 의하여 公式化되었다. 憲法上으로
國家主席의 解任은 黨大會 아닌 全國人民代表大會
에서의 決議에 의하도록 規定되어 있음으로 劉少
奇는 아직 法的으로는 國家主席의 地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共產國家인 中共에서 그것
은 그리 큰 問題는 될것 같지 않다. 이제 中

共은 그동안 거의 解体狀態에 있었던 黨組織과 權力構造를 毛·林體制 中心으로 再建, 再整備 하여 黨이 正常的으로 그 機能을 다하게끔 하는데 注力하고 있는듯 하다. 黨·軍·大衆組織의 三者를 統合한 臨時最高權力機關인 革命委員會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는 어떻게 文化大革命期間의 黨不在現象을 극복하고 黨을 再建하여 毛·林의 支配體制를 確立하는가 하는 問題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中共이 內的으로 그만큼 弱화된 것으로 速斷해서는 안된다. 물론 그동안의 混亂과 無秩序는 中國共產黨에 대하여 큰 損傷을 준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中共이 보다 效果的이고 強力한 支配組織體系를 가질 수 있는 契機도 될 수 있는 까닭이다.

共產國家의 肅清이란 肅清이 進行되는 過程에서는 黨이나 政府組織의 混亂과 弱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일단 遂行된 後에는 그 體制가 오히려 強化되는 경우가 一般的인 現象이기 때문이다. 文化大革命이라는 一聯의 肅清過程을 거치므로써 毛·林은 첫째 그들의 體制의 安定을 위

협하는 또는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要素를
창소함으로서 内部的인 團結을 공고히 할 수 있
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文化大革命을 치르므로
써 人民公社運動의 失敗로 累積된 社會不滿을 해
소시키고 民衆의 信任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로 그들은 이 肅清
過程을 통해서 黨組織과 行政組織에 清新한 氣風
을 불어 넣으므로써 能率을 복돋고 紀綱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지금 中共의 國內狀況으로 미
루어 보아 毛澤東의 文化大革命은 이러한 機能을
어느 정도 다한것 같이 보이며 따라서 앞으로
中共은 變動의 契機가 되는 大事件이 벌어지지
않는 限 지금의 方向으로 安定의 길을 걸게 될
可能性이 많다. 따라서 만약 지금의 趨勢로
中共의 内部體制가 安定될 경우 毛가 死亡한다
할지라도 스탈린死後의 兪聯에서와 같은 急激한
變動은 있을것 같지 않다. 앞에서 金永俊教授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스탈린이 死亡하였을
때, 兪련의 事情과 毛가 죽었을 때 中共의 事
情 사이에는 큰 差異가 있기 때문이다. 후루시

초프가 執權하였을 때, 소聯은 스탈린이 쌓아 올린 政治的, 經濟的業績으로 이미 苛酷한 스탈린主義를 必要로 하지 않을만큼 形便에 있었던 것이다. 후루시초프는 스탈린主義를 否定해도 소聯의 安定에 큰 影響이 없을뿐더러, 그 自身에게도 아무런 影響이 없고 오히려 有利하다고 믿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中共의 경우는 事情이 좀 다르다. 中共이 毛澤東死後에 그의 強硬路線을 否定하고 國內外政策을 大幅 緩和할 立場에 있지 못한듯 하다. 다시 말해서 毛는 아직도 그의 路線이 否定되어도 中共에게는 별로 影響을 주지 않을만큼 빛나는 政治的, 經濟的業績을 쌓지 못했다. 中共은 共產國家로서 아직도 毛의 路線을 必要로 하는 段階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毛의 路線에 變質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디렘마의 要素를 中共이 內包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우선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이번의 文化大革命을 契機로 中共의 軍部勢力이 크게 強化되었고 中央黨機構는 물론, 中央政府의 各部處 要職

에 대거 進出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軍部의 進出은 그 背景에 공고한 基盤을 跳躍板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毛·林體制中心으로 党을 再建하고 再整備하는 党·軍·大衆組織의 三者統合 위에 樹立된 暫定的인 最高權力機構인 革命委員會에 있어서 軍이 意外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29個 省級革命委員會에 있어서도 軍의 進出은 팔목할만한 것이다. 19個의 省級革命委員會를 軍指揮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말이다. 党의 再建은 軍에 대한 党의 優越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內容으로 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共產體制인 中共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革命委員會에 대거 進出한 軍이 党의 優越性確保를 前提로 하는 党改編, 再建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協調할까 하는 것은 적지 않은 懷疑를 자아내는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文化大革命이 進行하는 동안 中央이나 地方의 公共報道機關 그리고 紅衛兵壁報 기타 批判會合 등에서 党指導者들은 다분히 파장된 비난을 받았다. 이것은 党의 이미지를 크게 해쳐놓았음

이 틀림 없으며 따라서 党이 民衆과 軍部の 信任을 過去의 水準으로 회복하는데는 상당한 時日이 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은 이번 九全大會에서 党을 대표하는 陳伯達 아닌 林彪가 毛의 後繼者로 指名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林彪는 이번의 文化大革命에서 軍을 대표하는 人物로서 重要な 役割을 하였으며, 理論面에서도 毛의 路線을 忠實히 따를 人物이라는 것이 明白히 들어나서, 당연히 毛의 後繼者가 되리라고 予測한 사람은 많았다. 問題는 그가 毛의 後繼者가 됨으로서 앞으로 中共의 權力構造에서 軍이 차지할 比重을 公式적으로 確認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는 사실이다. 林彪가 軍部를 과연 어느 정도로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領導力이 과연 安定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疑問을 자아내고 있음은 모르는 바도 아니다. 또한 이번의 指名措置가 毛死後에 林의 領導的地位를 반드시 保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이번 文化大革命後 軍勢力의 強化 그리고 中

中共의 權力構造에서 軍部가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졌다는 事實과, 林彪가 이번에 毛의 後繼者로 指名되었다는 事實은 中共의 支配勢力에 관하여 우리에게 一聯의 予測을 가능케 한다.

즉 毛澤東이 死亡한 후에 林彪가 領導權을 강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林彪가 領導權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混亂이 造成되는 경우, 中共을 領導하는 支配權은 결국 軍部の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予測이다.

이러한 予測을 뒷받침하는 實例를 우리는 바로 文化大革命에서 軍部가 한 役割에서 찾을 수 있다. 1967年初 文化大革命을 推進한 소위 「左派勢力」 사이의 派閥싸움과 橫暴도 經濟生産力이 크게 低下되고 秩序가 견잡을 수 없는 混亂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人民解放軍」의 管區司令官들은 憤怒와 敵意로 그것을 대하었으며, 狂奔하는 毛派(左派)에 대하여 대담한 干涉을 加했다.

이 結果 軍部隊와 毛派의 革命集團 사이에는 武力衝突이 일어났으며, 中共의 公共秩序는 一大修羅場으로 化하였다. 그리하여 1967年 9月 毛澤

東은 「人民解放軍」의 管区司令官에게 秩序를 회복하기 위해서 軍事力을 使用할 것을 命令하였다. 이 命令이 내려자 軍指揮官들은 곧 紅衛兵과 毛派의 「革命集團」에 전면적인 統制를 加했으며, 文化革命으로 붕괴된 地方黨機構 대신에 地方「革命委員會」의 組織에 작수함으로써 地方에 있어서 支配的政治勢力이 되었다. 黨·軍·大衆集團의 소위 三者結合은 바로 이들의 支配的인 領導下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疑心の 餘地없이 이번 文化大革命을 契機로 軍의 權威와 威信은 크게 昂揚되었으며 그만큼 그들의 自負心도 높혀 놓았던 것이다. 사실 中共政權은 銃口에 태어난 政權이었다는 그 本質的性格으로 因하여 軍의 位置가 높은 것이기 마련이 있었지만, 그것이 黨組織에 化合된 것이었고 더욱이 黨優位의 原則이 固守되었던 까닭에 表面化된 政治勢力으로 化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文化大革命으로 말미암아 事情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黨은 一時 不在의 狀態에 있었고, 現在 겨우 再建되는 과정에 있으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軍의 庇護下에, 따라서 軍의 優越된 形勢下에서 推進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示唆해 주리라고 믿는다.

毛가 生存하고 있는 限, 그의 높은 權威 아래 黨再建作業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老齡에 달한 그가 生存하고 있는 동안 과연 黨이 軍에 대하여 優起된 位置를 確保할 정도로 再建될런지는 매우 疑問視되는 問題이다.

비록 軍이 中共의 支配的政治勢力으로 表面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毛를 위시한 中共의 現高位 指導層은 적어도 그들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軍部の 壓力을 많이 받으리라는 것은 想像키 어려운 일이 아니다. 對外政策路線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지금의 毛의 路線은 軍部の 意思, 利害關係와 背馳되지 않고 오히려 一致되고 있다.

따라서 軍部는 現在 中共이 追求하고 있는 對外政策路線을 계속 支持하리라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毛澤東이 死亡한後 中共의 對外政策이 強硬路線을 지나치게 急激히 벗어나서 西方陣營이나 소련에 대해서 態度를 緩和할리... 할때 軍部는

그들의 指導層에 대해서 強力한 壓力要素가 될 가능성이 많다.

中共指導層의 世代交替過程에서 만약 軍部가 領導權을 장악하는 경우, 中共의 對外政策, 특히 對아시아政策은 보다 強硬한 方向으로 기울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現在의 毛澤東路線을 계속 追從할 可能性은 濃厚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中共은 계속해서 韓國統一을沮害하는 큰 要素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으로 中共國內政治에 있어서 軍部가 進出한다해도 우리는 그들 軍部勢力을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中南美地域의 後進國軍部勢力과 동일한 性格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中共의 軍部가 政治指導勢力으로 登場할 경우 그들은 다른 後進國의 軍部勢力에 비해서 國內外政策의 決定에 있어서 훨씬 柔軟한 伸縮性을 보일 可能性이 많다. 그들은 毛澤東戰略이라는 神話를 全面的으로 否定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否定할 수도 없을 것이다. 毛澤東戰略은 한 傳統으로서 그만큼 그들의 內面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毛澤東의 持久戰略과 遊擊戰術의 強靱하면서도 유들유들한 伸縮性이 將來에 있어서도 中共指導者의 變함없는 特性이 되리라고 말할 수도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한낱 根據없는 預言이라고만 덮어 들 수는 없을 것이다.

2) 中共의 對아시아戰略과 外交政策

中共의 對外戰略이 그들의 傳統的인 持久戰略, 遊擊戰術에 立脚한 것이었음은 이미 序說에서 指摘할 바 있다. 따라서 그것은 毛의 獨特한 戰略的空間觀과 時間觀에 根源을 두었으리라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대체로 지금까지 西方의 戰略家들은 原則적으로 時間과 힘(즉 軍事力)을 독립한 別個의 要素로 보는 傾向이 없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時間과 軍事力 사이의 關係를 認定한다 해도 그것은 一定한 時間內에 힘(軍事力)을 集中, 分散, 移動시키는 것을 重視하는데 끝일뿐, 그 以上の 關係는 認定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遷延된 時間이란 곧 浪費된 時間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

다. 이에 반하여 毛澤東의 戰略은 時間과 힘 (軍事力, 政治的勢力)을 보다 密接한 相互關係로 結付시키고자 하는데 特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軍事力, 政治的勢力을 培養, 強化하기 위하여 時間을 얻고 그러한 時間을 얻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경우에 限해치만 힘을 消耗하는 것이 그의 戰略의 特徵이다. 그에게는 遷延된 時間이란 決코 浪費된 時間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時間의 遷延은 보다 큰 軍事力, 政治勢力을 構築하는 方便이며, 勝利의 一條件이다. 그러므로 그가 힘을 消耗한다면 그것은 한낱 힘의 消耗에 끝이지 않고, 보다 큰 힘을 얻기 위한 時間의 稼得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遷延된 時間, 그리고 時間을 얻기 위한 힘의 消耗, 때로는 後退, 領土의 喪失(空間의 喪失)까지도 그 속에 勝利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戰爭이나 紛爭을 행하는 過程(즉 彼我가 힘을 消耗하는 過程)을 長期化, 持久化함에 의하여 相對方의 強矣, 長矣를 減少시키고 短矣를 極大化하여 그들을 弱化시키는 反面에 自己側의

弱點을 減少시키고 長處를 極大化하여 戰力과 政治力量을 增加시키므로서 相對方이 優勢하고 自己側이 劣勢한 初期段階의 形勢를 自己側이 優勢하고 相對方이 劣勢한 段階의 形勢로 轉換시키는 것이 바로 그의 戰略이었다.

이 戰略에 의하여 그는 勝利를 견으웠고 마침내 中國本土를 占據하고 中共政權을 樹立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이 戰略은 비단 中日戰爭 中國內戰에 있어서 中國共産黨의 基本戰略이었을뿐 아니라 1949年 政權樹立後, 台灣問題, 韓國戰爭, 그리고 오늘의 越南戰爭 등 主要한 對外政策作成에 있어서 基調를 이루는 中共의 基本戰略이었다.

1965年 발표된 論文 「人民戰爭勝利萬歲」 속에서 林彪는 그러한 毛澤東의 革命戰略이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核心을 이룬다는 것을 明白히 하였다.

그러나 核武器의 登場은 그러한 毛澤東의 戰略에 어느 정도 修正을 加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核武器가 가지는 可恐할만한 破壞力은 中共의 그와 같은 傳統的인 戰略이 반드시 效果的

일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危機心을 中共指導者에게 자아낸 것 같다. 經濟建設의 山積한 課題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희생하고 莫大한 費用이 드는 核武器, 그리고 그 運搬手段의 開發을 그들이 서둘러진 根本理由는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中共이 核武器를 保有하고 그 運搬手段을 開發함에 따라서 中共의 世界戰略은 새로운 次元의 性格을 갖게 될 것 같다. 核戰略과 在來式軍事力에 의한 傳統的인 持久戰略, 遊擊戰略을 併用하는 二元的인 戰略으로의 發展이다. 따라서 自由陣營의 國家, 특히 中共에 隣接한 自由國家는 中共의 在來式戰略에 對備해야 할뿐 아니라 核戰略에도 對備해야 하는 二重的인 負擔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中共이 核戰略과 그들의 在來式戰略을 機動性있게 併用하는 새로운 次元의 戰略을 採擇할 경우, 우리는 이에 對備한 새로운 戰略의 開發이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中共이 核武器와 그 運搬手段을 開發함에 따라서 그 傳統的戰略에 어느 정도의 修正이 加해질

부분은 그들의 戰略的時間觀이라 할 것이다. 즉 「軍事力, 政治的勢力을 培養, 強化하기 위하여 時間을 얻고 그러한 時間을 얻는 경우에 限해서만 힘을 消耗한다」는 그들의 戰略이 가까운 時日內에 全面的으로 修正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核攻撃力이 아직도 美蘇에 비해서 훨씬 劣勢에 있고 기타 在來式軍事力, 經濟力에 있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遷延된 時間이란 결코 浪費된 時間이 아니다..... 時間의 遷延은 보다 큰 軍事力, 政治勢力을 構築하는 方便이며, 勝利의 큰 條件이다」라는 部分에 있어서 「遷延된 時間」, 「時間의 遷延」에 대한 觀念, 評價는 달라질 可能性이 많다는 말이다. 그들은 核威脅에 의해서 「時間의 遷延」을 과거의 標準보다도 훨씬 短縮시킬려고 企圖할런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核攻撃力의 開發도 그들의 對西方, 對蘇 그리고 특히 그 隣接國家들에 대한 戰略이 훨씬 더 機動성과 伸縮성을 띤 것이 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中共이 核攻撃力을 發展시키는 直接的目的是 美

蘇의 核力에 대한 戰略的抑制力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強大國으로서의 地位構築에 있었다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序說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中共對外政策의 基調가 되는 根本要素를 勘案할 때, 그들은 그들의 核攻擊力發展段階가 가질 수 있는, 以上の 積極的인 意義와 政策的效果를 그들의 核攻擊力에 賦與하려고 할 것임이 거의 틀림없다. 이미 그들의 核保有는 徐々히나마 亞洲, 특히 極東에 있어서 軍事力の 均衡에 重大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즉 그들의 核力이 發展할수록) 이곳의 勢力關係의 再編을 促進시킬 것임은 疑心의 餘지가 없다.

中共의 現核攻擊能力은 實戰配置가 可能한지 疑問일 정도의 段階에 있는듯 하다. 비록 實戰에 使用할 수 있는 段階에 있다해도 그 貯藏量은 극히 限定된 것으로 推算되며, 특히 運搬手段은 그 隣接地域을 威脅할 程度의 中距離誘導彈開發에 골이고 있는 形勢이다. 그러므로 美蘇의 心藏部를 攻擊할 수 있는 第一打撃力을 가지는데도 4,

5年이 所要되리라는 것이 一般的인 概測이다.
中共이 美蘇와 거의 동등한 第二打撃力을 가지는
時期를 1980年後로 보는 見解를 健全한 根據
에 立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共이 第二打撃力을 갖게 될 1980年代의 아
시아情勢에 관해서는 速断이라는 非難을 받을 것
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여기서 云謂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最少限度 우리는 두가지 事實을 予測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이때쯤 되면 中共은
核戰의 可恐할만한 結果를 한 具體的事實로서 知
悉하게 되고, 지금의 美蘇와 같이 全人類의 將
來에 대해서 한 強大國으로서 責任을 질려고 할
런지도 고른다는 것, 둘째는 中共이 美蘇 兩國
에 대해서 核全面廢棄案과 같은 것을 내놓고 요
란스러운 宣傳活動을 展開할런지 모른다는 程度의
予測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中共의 現段階의 核攻擊
能力이 그들의 對아시아政策에 미치는 影響에 局
限시켜서 考察하기로 하자.

中共의 核攻擊力發展은 現段階에 있어서 이미

太平洋의 美防衛線을 後退시키는 한 壓力으로 登場하고 있다. 日本의 오키나와 返還要求에 美國이 應하는 태도를 보이는 裏面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오키나와가 中共의 核攻擊力의 發展으로 그만큼 核心前進基地로서의 價値를 크게 喪失했다는 것도 그 주요한 理由의 하나라는 것은 이미 흔히 認定하는 事實이다.

中共의 核威脅은 現在 아시아에 相反된 두가지 可能性을 造成하고 있다. 그 하나는 美國이 아시아에서 非美國化政策을 강화할 경우, 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는 自主적인 核開發이나 他國(美國이 될 可能性이 많다)으로 부터 核搬入을 試圖하게 될런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家로서는 印度, 日本, 濠洲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中共은 아시아의 核均衡을 위해서 오히려 核擴散을 助長할 可能性이 있으며, 北傀의 核開發을 援助하거나, 또는 그곳에 中共의 核武器를 搬入할런지 모른다는 予測이다. 또 하나의 可能性은 中共의 核威脅이 오히려 아시아諸國에 대하여 核武器撤去를 強要하는 效果를 가질런지

모른다는 推測이다.

現在로서는 中共이 北傀의 核開發을 援助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그것은 中共自体에 대한 威脅도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또한 現中共 · 北傀關係, 朝鮮 · 北傀關係로 미루어 보아서 中共이 가까운 將來에 北韓地域에 核武器를 搬入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北傀가 어떠한 過程을 거치던 간에 核武器를 가지는 경우, 北傀의 對外政策에 中共이 지나치게 깊이 말려 들어갈 憂慮가 있으며 中共은 그것을 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中共은 韓國戰爭을 除外하고는 다른 나라에 人民戰爭을 誘發하는 策動을 하면서도, 그 나라의 問題에 지나치게 깊이 말려 들어가서 自身의 獨自性을 잃게 되는 것을 竭力 避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越南戰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共產勢力이 一掃되었을 때, 그들이 平素 壯談한 것과는 判異하게 積極적으로 介入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立證한다.

中共이 앞으로 아시아地域에서 追求할 戰略은

中共自體를 除外한 아시아地域을 어떻게 非核地帶
化하는가에 焦點을 둘 公算이 크다. 특히 日本
이 獨自的으로 核武器와 그 運搬手段을 開發하는
데 대해서는 中共이 重大한 威脅으로 볼 可能性
이 크며 極力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유
럽에서 西獨의 核武裝을 防止하기 위하여 朝鮮이
可能한 모든 手段을 動員하듯이, 아시아에서 中
共은 큰 危機를 支拂하는 수가 있더라도 日本의
本格的인 再武裝, 그중에서도 특히 核攻擊力을
가지는 것을 防止할려고 努力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므로 中共은 그들의 核攻擊力에 의하여 美
國이 아시아에서 非美國化政策을 強行하도록 壓力
을 加하는데 注力할지언정, 日本의 本格的인 核
武裝을 刺戟하는 過激한 措置는 可能한 限 回避
하리라고 展望된다.

더욱이 最近 日本과 蘇聯이 接近할 傾向을 보
이게 됨에 따라서 中共은 對日接近政策을 일층
強化하지 않을 수 없는 窮地에 몰려들어 가고
있는 氣色이 濃厚하다. 특히 日本의 海軍力強化
는 中共으로서의 深刻한 不安을 자아내는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日本의 海軍力強化速度를 鈍化시키려는 것은 中共의 海洋門戶의 安全을 위해서는 不可缺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뜻에 있어서도 中共은 日本과 어떤 線에서 妥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中共은 美第七艦隊에 代置될 수 있는 日本의 強力한 艦隊가 東支那海를 游戈한다는 것은 惡夢과 같은 것이 틀림없다.

이에 덧붙여서 中共의 不安을 더하게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事態는 朝鮮이 極東海域의 海軍力을 大幅 強化했다는 사실이다. 朝鮮의 海軍力強化는 주로 潛水艦을 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美第七艦隊, 日本 그리고 우리 大韓民國에도 큰 潛在的威脅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의 中蘇關係를 보아서 그것을 가장 深刻한 威脅으로 느낄 國家는 아마도 中共이라 할 것이다. 中共이 極東의 蘇聯艦隊 특히 潛水艦隊의 攻撃으로 부터 그들의 通商路를 保護할만큼 對潛水艦戰術과 兵器를 發展시켰는가 하는 것은 극히 疑問이다. 따라서 中共으로서는 日本이 朝鮮의 海軍力強化에 대한 牽制力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단순한 所望만은

아닐 것이다. 中(중) 外(외) 關係가 惡化(악화) 하면 할수록, 그리고 外(외) 國(국)의 軍事力(군사력) 특히 海軍力(해군력)이 強化(강화) 되면 될수록 中(중) 共(공)은 日(일) 本(본)에 대하여 보다 柔軟(유연)한 立場(장황)을 취할 可能性(가능성)은 큰 것으로 展望(장망)된다.

따라서 中(중) 共(공)은 日(일) 本(본)이 그의 安全(안전)에 직접적인 關係(관계)가 있다고 믿는 곳에서 露骨(노골)적인 進出(진출) 氣勢(기세)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상당 期間(기간) 삼가할런지도 모른다. 尼(니) 遜(遜) · 佐(사) 藤(텐) 會(회) 談(담)이 있은 후, 곧 美(미) 國(국)과 日(일) 本(본)은 中(중) 共(공)과 某種(모종)의 協商(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尼(니) 遜(遜) · 佐(사) 藤(텐) 會(회) 談(담)後(後) 발표된 共同(공동) 聲(성) 明(명) 가운데서 韓(한) 國(국)의 安全(안전)이 日(일) 本(본)의 安全(안전)에 대하여 「essentia」라고 表現(표현)한 日(일) 本(본)의 強硬(강경)한 立場(장황)은 우리의 注目(주목)을 끈다. 이것은 北(북) 傀(괴)에 대한 態度(태도) 表(표) 明(명)에 끝나지 않고, 外(외) 國(국) 關(관) 係(계) 특히 中(중) 共(공)에 대해서 韓(한) 半(반) 島(도) 問(문) 題(제)에 관하여 日(일) 本(본)이 그 立場(장황)을 뚜렷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現在(현재) 整(정) 理(리) 段(단) 階(계)에 들어서 中(중) 共(공)의 國(국) 內(내) 事(사) 情(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中(중) 共(공)이 그러한 美(미) 國(국), 日(일) 本(본)의 움직임에 곧 積(적) 極(극)적인 反(반) 應(응)을 표시하지 않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긴 眼(안) 目(목)에서 볼 때 結(결) 局(국)

中共은 中日關係改善의 必要性 때문에, 北傀를 後援하여 韓半島에 紛爭을 造成할려는 企圖은 當分間은 保留할런지도 모르며, 兩國關係의 改善進展 如何에 따라서는 韓半島와 같은 銳敏한 地域에 일종의 緩衝地帶를 設置하는 默契를 맺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경우 中共의 立場에서는 北傀가 그들에게는 第一中間地帶가 되고 韓國은 第二中間地帶가 될 것이다. 韓半島全體가 中共의 第一中間地帶가 되는 경우, 日本은 그것을 自身에 대한 威脅으로 보고 再武裝을 서둘러야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韓半島全體가 中共의 第二中間地帶로 化하는 경우, 中共은 多少 威脅을 느끼겠지만 그 代價로 日本의 再武裝 특히 核武裝을 防止 또는 遲延시키고, 나아가서 日本을 中立的 位置에 들 수 있다는 利處이 있다. 中共은 지금까지 韓半島全體를 第一中間地帶化하는 政策을 堅持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韓國統一의 가장 重大한 外的障礙要素의 하나

나왔다. 그러나 日本이 美國과의 紐帶를 強化하고 獨自的인 武裝을 가지고자 하는 計劃이 急速度로 進展될 경우 中共은 韓半島全體가 第二中間地帶化하는 것을 容認 甘受는 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韓半島의 現狀維持는 할려고 努力할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中共이 北傀를 後援하여 全面南侵을 試圖할 可能性은 減少된다고 볼 수 있다.

要件대 中蘇關係가 어떤 妥決에 도달하지 않는 限 그리고 美國이 계속 아시아에서 非美國化政策을 強行하는 경우, 中共의 對아시아政策의 焦點은 앞으로 점차로 美國에서 부터 日本으로 옮겨질 可能性이 濃厚해질 것이다.

3) 中共經濟의 方向

「文化大革命」으로 1966년부터 中共經濟의 上昇傾向은 다소 주춤한 氣勢를 보였으나 1968年末부터 점차로 正常을 恢復함에 따라서, 다시 上昇趨勢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1970年代에 이르러서 中共經濟는 飛躍的發展은 하지 못할 筈이라도 적어도 1960年代 前半期의 上昇率을 나카네타카는 展望은 세울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中共經濟의 急速한 發展을 압박하는 要素는 여러가지 있다. 첫째 그들은 資本不足으로 現代科學技術을 導入한 生産施設의 設備을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 둘째는 中共과 같은 後進的經濟構造의 國家에서는 지나치게 過重한 國防費의 支出이다. 이들은 核武裝開發과 미사일計劃의 發展을 위해서 이미 莫大한 投資를 하였으며 그것은 中共經濟의 急速한 發展을 阻害하는 要素가 되고있다. 셋째는 人口增加의 壓力이다. 다른 後進國에서와 같이 人口의 急速한 增加는 資本蓄積을 鈍化시키는 重要한 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제는 農業政策의 失敗로 中共은 穀物輸入을 위
해서 상당한 外貨를 支出하고 있다. 이로서 近
代工業의 擴張에 필요한 資本設備의 導入은 食糧
輸入으로 制約을 받고 있다. 中共의 경우 이것
은 重大한 弱點이 아닐수 없다. 中共으로서
長期借款으로 貿易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農産品의 輸出이 지속적으로 增加
하지 않으면 資本施設의 充分한 도입이 어려운
가득이다. 다섯째는 專(專科技術)과 紅(政治性)
의 問題이다. 文化大革命 過程에서 지나치게
政治性, 虎性을 強調한 나머지 科學技術의 發展이
큰 制約을 받았던 것이다. 中共의 現況을 보아
서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해서 紅을 削減하고 專
을 위주하는 方針으로 전환할 可能性은 가까운
將來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共經濟는 거의 閉鎖的이라고 할 程度
의 自給自足體制下에서 發展해 왔다는 사실에 주
리는 注目해야 한다. 이것은 中共經濟가 國際經
濟體系에 依存하는 度가 그만큼 낮으며, 따라서
그들의 對外政策에 그렇게 큰 影響을 미칠수 있

는 要素가 못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의 對 中共禁輸措置의 解除, 그리고 日本의 經濟的接近은 中共의 아시아政策에 直接的으로 變質을 가져올 要素가 될수 있다는 것은 速斷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西方國家들이 中共의 好戰的態度를 柔軟히 轉하는 目的으로 그들과 經濟交流를 試圖할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長期的인 眼目에서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은 國內經濟事情에 있어서 英國과 더불어 對中共貿易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中共市場은 日本의 重化學工業產品의 輸出口市場으로서, 日本經濟에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美國의 弗貨防衛政策에 따른 對日輸出入規制도 對美依存에서 東南亞地域이나 共產地域으로 새로운 市場을 開拓해야 할 日本으로서도 오히려 中共보다도 더 切實히 對中共貿易을 願할런치 모른다.

그러나 中共이 1970年代에 들어서서 飛躍的인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大規模의 資本導入, 특히 逆拂의 프렌트導入이 必要不可缺하며 그것을 有利한 條件에서 提供할수 있는 나라는 日本을 우선

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的인 面에서
도 日本과 中共은 接近할 可能性이 많다고 展望
된다. 더욱이 蘇聯과 日本이 最近 활발한 接近
傾向을 보이고 있는만큼, 中共은 아시아에서 現
在을 免하기 위해서, 그리고 蘇聯과 日本 사이
에 새기 박는 의미에서도 中共과 日本 사이의 關
係는 앞으로 急速度로 好轉되리라고 予想된다.

經濟的인 面에서 日本은 西方陣營과 中共 사이의
共存을 위하여 一次的인 橋梁의 役割을 하게 될
런지도 모른다. 끝으로 中共經濟의 發展은 中共
製品과 韓國製品 사이에 激烈한 競爭을 誘發할
것이며 그 樣相, 內容도 過去와는 달라질 것이다.

과외에 韓國과 中共이 競爭된 製品分野는 주로
綿織物, 雜貨였으나 앞으로는 그것이 훨씬 多樣化
될런지도 모르며, 韓國의 東南亞市場을 占領으로서
勝共統一의 物的能力을 배양하려는 韓國의 經濟成
長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런지 모른다. 그러나
中共經濟는 앞으로 輕工業分野보다도 重工業分野에
置重할 公算이 크며, 따라서 輕工業製品 위주의 韓
國輸出에 그렇게 重大한 威脅은 되지 않으리라 展望된다.

(2) 우리의 對備策

1) 北僞의 孤立化

最近의 아시아 및 世界情勢의 動向으로 미루어 보아서 國土統一을 위한 우리의 對備策은 一次的으로 北僞의 孤立化에 그 焦點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北僞의 軍事 및 經濟力量으로 보아서 그들이 소련이나 中共의 協力없이 單獨으로 또 다시 大舉南侵을 敢行할 수는 없다는 것이 一般的觀測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南侵企圖를 挫折시키기 위해서도 소련 및 中共을 北僞로 부터 遊離시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수 없다. 다음은 北僞自体의 軍事力 및 經濟力의 強化를 制止, 牽制하기 위해서도 二大共產國家인 소련과 中共을 北僞로 부터 遊離시킨다는 것은 大韓民國의 安全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統一을 위해서 有利한 條件을 마련하는 一次的措置가 될것이다. 北僞는 自主國防을 소리 높게 외치고 經濟的인 自給自足を 위해서 手段을 쓰

고 있으나 아직도 소련이나 中共에 依存하는 바
가 크다. 특히 航空機와 같은 高級現代武器에
있어서는 全數으로 소련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
며, 北傀가 外貨를 얻는 根源이라고 볼수 있는
對外貿易의 대부분은 소련, 中共을 支지한 共產陣
營을 相對로 하고 있다. 北傀가 共產陣營으로
부터 孤立될 때, 그들의 士氣가 크게 低下될뿐
아니라 莫大한 戰略物資, 武器, 戰費를 요하는 第
二의 韓國戰爭을 勃發시킬 意慾을 알게 될 것이
다. 北傀의 經濟는 過多한 國防費의 支出로 크
게 壓迫을 받고 있으며, 소련으로 부터의 援助中
斷으로 더욱 惡化되고 있다. 그들이 70年計劃
을 延長하지 않으면 안된 理由는 여기에 있다.
그들이 南侵을 企及해도 소련이나 中共이 아무런
援助도 提供하지 않으리라는 展望이 뚜렷할 때,
결코 無謀한 大規模排北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國際情勢, 특히 아시아情勢는 北傀의 孤
立化를 가능케 하는 方向으로 進展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美蘇는 共存이 불가피하다는데 意見
이 일치하고 있는 듯하며, 急速度로 接近해 가고

있다. 이제 소련은 對美關係를 회생하면서 가지
北僞를 後援하여 韓半島에 戰爭事態를 造成할 것
같지는 않다. 소련의 그러한 方針은 中蘇關係의
惡化에도 起因하는바 클 것이다. 中蘇關係는 回
復할수 없는 정도로 惡化하여 소련은 이제 世界
問題에 있어서 美國의 協力이 必要한 段階에 들
어서게 될것 같다.

美蘇의 接近; 그리고 中蘇關係의 惡化는 아시아
情勢에 連鎖的인 反應을 이트킬 可能性을 造成했
다고 볼수 있다. 中共은 아시아에서 孤立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트지 않을수 없을것
같다.

日本의 經濟力量, 政治的影響力이 크게 向上됨에
따라서 그것이 中共의 對아시아政策에 미칠 影響
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바 있다. 中共
은 現情勢로 보아서 從來의 對日接近傾向을 오히
려 強化할런지도 모른다는 것도 앞에서 論하였다.
사실상 中共이 가장 嫌惡하는 것은 日本이 本格
的으로 再武裝, 특히 核武裝을 갖추고 美國이 第
二線에 물러서는 事態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北僑를 後援하여 韓半島에 戰爭을 誘発함으로서 日本의 本格的인 再武裝을 促進시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北僑를 孤立化시킬수 있는 基礎的條件은 어느 정도 成熟해가고 있다고 보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상 論한바로 미루어 보아서, 國土統一을 위한 우리의 一次的인 對備策인 北僑의 孤立化를 위해서 우선 韓國은 여러가지 附隨的인 問題點은 있겠으나 日本 및 美國과 中共과의 關係 改善의 움직임을 逆利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有利할 것이다.

日本의 對中共牽制力量이 增加하여, 中共이 아시아에서 日本, 美國, 兩國에 對抗하는 二重的負擔을 背야 하는 경우, 그리고 中蘇關係의 惡化로 苏联의 壓力이 增加하는 경우, 中共은 적어도 日本의 壓力을 回避하기 위해서 어떤 線에서 妥協을 모색하려고 할때, 北僑의 孤立化를 위해서는 가장 有利한 條件이라고 볼것이다. 소위 「自主路線」을 부르짖고 中蘇 사이를 徘徊하는 北僑는 中共

의 눈으로 볼때 그렇게 信賴할만한 存在는 沒될 것이다. 또한 再武裝을 촉진 日本이 韓國, 美國과 強力한 三角紐帶를 形成하게 되는 경우, 이에 對抗하기 위해서 中共이 北僞와의 關係를 穩固 強化하려고 하기에는 北僞의 力量이 너무나 微弱하다는 것이 아마 中共의 立場일 것이다. 中共은 北僞를 크게 刺戟하지 않으면서 韓, 美, 日의 強力한 三角紐帶關係의 形成을 防止 또는 破壞하기 위해서 省和의 제1목표를 日本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日本이 自國의 安全을 위해서 韓國의 安全을 위하여 中共에 대하여 要求하게 될 條件은 間接적으로 北僞를 孤立化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은 우선 韓, 美, 日의 三角紐帶強化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北僞의 孤立化, 韓國의 安全保障 나아가서 國土統一의 素地造成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外交는 그 重點을 이러한 이 三角紐帶強化에 두어야 하며, 그 外郭에 다른 아시아諸國과의 集團安全保障體制를 樹立하고 그것을 基礎

127

으로, 對中立國外交, 그리고 對UN政策으로 그 範圍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같은, 中心核을 가진 構造가 되어야만 보다 效果的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外交構造를 갖게 될 때 中共은 韓半島에서 紛爭造成이 아시아 및 全世界에 連鎖적으로 미칠 影響을 考慮하게 될 것이다. 中共이 內的으로 安定되면 그들이 1955년에 試圖한 것과 같은 平和政勢를 아시아諸國에 또 다시 試圖할 可能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境遇에 對備해서도 그러한 努力을 中斷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韓國自體의 力量強化

統一에 準備하여 우리가 自體의 力量을 構築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다음 두가지 目標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政治, 經濟, 軍事, 文化 등 모든 領域에 있어서 北僞를 완전히 壓制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中共이나 소련으로 하여금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움직일수 없는 既定事實도 認許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強力한 力量을 構築하는 것이다. 지금의 發展速度로 보아서 우리는 큰 過誤를 범하지 않을 限 1975年 以後 부터 1980年에 이르는 사이에 대체로 이러한 力量을 가지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우리가 이러한 力量을 가지게 될 때 이미 國土統一의 基礎은 마련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問題는 다만 統一成遂의 契機를 捕捉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力量의 構築에 優先權을 주어야 할 것인가. 두말할 나위없이 經濟力量의 培養이 急先務이다. 經濟力量의 強化가

242~
國防力強化의 土臺이며, 政治, 文化發展의 基礎의 변
더리, 韓國의 國際的位置을 鞏固하 라는 가장 確
실한 路徑은 此로 矣. 經濟發展과 이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이야 말로 強靱한 反共意識, 勝
共意志를 保障한다. 恒産 있는 天에 恒心이 있는
과 矣.

다음은 軍事力의 強化이다. 우리의 軍事力이
韓半島에 ... 있어서 莫強할 때, 中共은 韓半島에 大規
模의 紛爭을 造成하는 企圖를 抛棄치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그리고 北僞의 士氣는 必下되고 敗
北意識이 팽배하여 自體內의 矛盾으로 그 權力基
礎가 흔들릴 可能性이 많다. 특히 20世紀의
全體主義體制 가운데 自體內의 矛盾으로 瓦解된
體制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北僞와 같이 分斷된 地域內에 形成된 全體主義體
制에는 해당될 수 없을런지 모른다. 北僞는 分斷
된 地域內에 形成된 共產體制은 特殊性 때문에
다른 共產政權처럼 「社會主義建設」, 「共產社會實
現」과 같은 目標을 至上課題로 삼을 수 있고 統
一이라는 目標을 그것보다 優位에 두고 至上課題

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한 全体主義體制로써 社會緊張을 계속 造成하고 그로서 全体主義的인 統制를 大衆에 強要하여 그들의 體制를 維持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統一을 大名分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統一이라는 目標은 흔히 다른 共產國家가 設定하는 至上課題인 「社會主義建設」이나 「共產社會實現」과 같은 目標와는 본질적으로 그 性格이 다르다. 그것은 두렵게 限定된 目標이며 이것을 成遂할 責任은 一次的으로는 그들이 敵으로 삼은 相手方에게 돌리겠으나 그 다음은 그들의 執政者인 金日成과 그의 側近者가 背야할 것이다. 스탈린의 「資本主義의 威脅」을 名分으로 하여 朝鮮社會에 緊張을 造成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社會主義建設」이라는 至上目標에 附隨되는 副次的인 目標에 지나지 않았다. 스탈린이 만약 「社會主義建設」을 至上目標로 하는 「一國社會主義」를 擇하지 않고 「資本主義國家의 打倒」를 무엇보다도 強調하는 國際共產主義路線을 계속 追從했다면 그의 政權을 維持했을지 疑問이라고 말할 수 있는 根拠

~244~
는 여기에 있다. 金日成이 統一을 北傀의 至上課題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共產全體主義 體制의 執權者로서는 큰 弱點인 것이다. 그는 統一이 達成되지 않은 責任을 大韓民國에 돌리기 위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닌 그가 그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계속 어떠한 冒險的인 措置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韓國에 대하여 계속해서 挑發行爲를 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의 하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韓民國의 軍事力이 莫強하여 未北統一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종의 敗北意識이 民衆속에 감돌며, 그 責任은 必然的으로 金日成과 그 側近者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統一失敗의 責任이 金日成의 指導力 缺陷에 있다고 民衆이 받게 되는데 만큼 北傀의 體制가 根本的으로 흔들릴 때는 없을 것이다. 韓國의 自体의 經濟力, 政治力, 軍事力 強化 면으로 도 統一成遂의 可能性이 마련된다고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는 根據은 여기에 있다.

正 誤 表

面	行	誤	正	面	行	誤	正
4	4	共產主義는	共產主義者는	127	15	對中政策	對中共政策
6	13	植民地이며서도	植民地 아니면서도	127	16	中美關係	中共美國關係
40	19	미 비	마 비	130	2	中美對決	中共、美國對決
45	3	을렸고 해도	을렸다고 해도	130	10	돌째로는	돌째로는
63	17	露骨되어	露骨化되어	132	8	中國과	中共과
75	1	中 紛糾	中 紛糾	133	4	中國外交의	中共外交의
"	2	中國의文化大革命	中共의文化大革命	133	8	中共의完全을	中共의完全을
"	4	中國人民	中共人民	133	9	失地回復을	「失地回復」을
83	6	強力한革命其他가	強力한革命基地가	131	12	는다	는다
87	6	理論 —	理論的	138	1	스지 못하고	스지 못하고
88	13	考察하여 보거로하	考察하기로 한다	143	6	結 되어	結付되어
89	9	辱恥를	受侮를	143	19	標榜하고	標榜하고 있는
90	6	中 國	中共	147	8. 13	結 託	結託
93	12	奉社 하여	奉社 하다	148	9	美蘇結託	美蘇結託
98	4	再 選 明	再 選 明	149	15	喪 失	喪 失
"	9~8	Nixon	Nixon	150	16	混 難	混 亂
101	3	進放하려고 하는 것이 企圖하는 것 보다.	進放하려고企圖하는 것 이다.	151	1	實行하여	實行하게
102	17	없다고	없다는	"	4	自 身	自 身
102	20	드리킬 수는	도리킬 수는	152	13	하더라도	하더라도
103	19	國際的威信이	國際的威信을	176	8	空軍力이	空軍力의
104	14	廣 諾 을	應 諾 을	180	9. 11	吳 駢	吳 駢
105	15	指 頭	拾 頭	190	1	崩 催	崩 潰
105	19	美國과 소련이	美國과 소련의	193	3	中 共 이 다	中共이 나
106	1	스 기	서 기	"	13	뿐 만이	뿐만 아니라
106	9	멀지도 않은	참치도 않은	196	7	台 灣 이	台灣에
106	20	進 步	進 陟	"	8	않는 것이다	않을 것이다
107	17	現 狀 態 를	現 狀 態 로	198	6	스에즈 以來	스에즈 以來
111	3	동부림처럼	동부림처럼	210	14	先進 生産 設備	先進 生産 設備
115	6	中 國	中共	221	5	힘은	힘을
118	18	만드려는	안드려는	"	8	中 間	中共
120	3	중요을 지켜왔다	중요을 지켜왔다	235	7	優 越	優 越
"	14	치우치서	치우치서	241	6	核 功 擊 力	核 攻 擊 力
"	15	(소련)이	소련이	259	19	外 郭	外 廓
122	14	中 國 의	中共의				
123	17	中 國	中共				
124	15	오끼나와	오끼나와를				
126	18	美中對決	美中共對決				

